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

2011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국제비교지수로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

2012
Giving
Korea

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아름다운북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2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

2011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국제비교지수로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일 시: 2012년 10월 17일(수)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주 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2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

2011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국제비교지수로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사회 :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업사회공헌분과 부소장)

시간	프로그램	
13:00~13:30	접수 및 등록	
13:30~13:40	개회사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13:40~13:50	환영사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13:50~14:00	전체 프로그램 소개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업사회공헌분과 부소장
1부 Giving Index 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및 한국 기부자 성향 심층분석		
14:00~14:30	한국인의 나눔 -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4:30~15:00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5:00~15:20	질의 및 응답	
15:20~15:40	Coffee Break	
2부 기부문화발전의 첫걸음, 국제비교지수로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15:40~16:10	미국의 기부행태 연구 방법과 사례발표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Amir D.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16:10~16:40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윤연옥**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6:40~17:10	패널토론	좌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패널 **박태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Amir D.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윤연옥**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실장
17:10~17:30	질의 및 응답	
17:30~17:40	폐회사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Giving Korea 2012

Presided by **Seong-yeon Park**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Time	Program	Speaker
13:00~13:30	Registration	
13:30~13:40	Opening Remarks	Young-jin Kim CEO, Handok Pharmaceuticals Co.,Ltd. Chairman,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13:40~13:50	Welcoming Remarks	Jong-suk Y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t Hanyang University Chairman, The Beautiful Foundation
13:50~14:00	Introduction	Seong-yeon Park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Vice Directo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Session1. Giving Index Giving Index 2011 and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		
14:00~14:30	Giving Index 2011	Yeon-hee Rho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ellow,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14:30~15:00	Who cares for neighbors?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	Chul-hee Kang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at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15:00~15:20	Q&A	
15:20~15:40	Coffee Break	
Session 2. How to Make International Giving Index -The Beginning of Developing Giving Culture-		
15:40~16:10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COPPS): Current Research Trends	Amir D. Hayat Statistician,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16:10~16:40	Giving Statistic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Yeon-ok Yoon Director, Trend Analysis Division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16:40~17:10	Panel Discussion	Chair Yun-hi Won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at University of Seoul Directo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Panel Tae-kyu Park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Yeon-hee Rho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at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ellow,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Chul-hee Kang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at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Amir D. Hayat Statistician,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Yeon-ok Yoon Director, Trend Analysis Division at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17:10~17:30	Q&A	
17:30~17:40	Closing Remarks	Yun-hi Won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at University of Seoul Directo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개회사

김 영 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한독약품 김영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재단이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로 아름다운재단이 창립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기부문화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 역시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기빙코리아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를 지수로서 평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11년부터 기부와 자원봉사가 사회통계에서 나눔통계 항목으로 채택되어 한국 기부지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통계 개발에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간의 기빙코리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기빙코리아 2012〉은 기부현실에 대한 일반 조사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부지수 조사를 통해 우리의 기부문화 현실진단뿐 아니라 한국인만의 깊은 문화적 바탕과 개개인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심층분석을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아시아의 비교 가능한 기부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빙코리아만의 개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합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올해에는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2011년 개인기부지수 발표와 함께 '한국 기부자 심층분석' 을 통해 기부참여도, 평균 기부금과 기부참여방법 외에 한국 기부참여자의 특징과 성향을 심도 깊게 읽어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기부행태연구의 방법과 조사로 찾아내는 합의점을 통해 기빙코리아의 개선점을 찾고,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검토를 통해 국제비교지수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국내외에서 와 주신 연사분들과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미 있는 연구를 해 주신 연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설문조사를 지원해 주신 (주)한국리서치,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예 종 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예종석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에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년 8월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우리의 기부현실을 진단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부조사인 기빙코리아 인덱스를 발표해 왔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표준화된 인덱스로 생산해 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의 헌신과 많은 후원자들의 이해, 그리고 한국 기부문화 활성화에 열정을 가진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10번째 〈기빙코리아〉에서 지난 10년간의 기빙코리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 기부문화의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정부 사회통계에 나눔통계가 포함되어 국가규모의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빙코리아〉는 '기빙인덱스'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한국 '나눔통계' 의 시작점으로서 씨앗을 심었다면, 앞으로 기부조사와 연구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주신 미국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의 Amir D. Hayat님, 한국 통계개발원의 윤연옥 동향분석실 실장님, 패널 토론의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원윤희 소장님과 박태규 교수님, 행사사회를 맡아주신 박성연 부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실태조사를 지원해 주신 (주)한국리서치,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강철희, 노현희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회와 연구위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기부문화 현실의 기록과 진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참가자 여러분이 지식을 현실의 변화로 바꾸어 주실 주인공입니다. "나눔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주인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CONTENTS

개회사 05
환영사 07

1부 11
GIVING INDEX : 한국 개인기부지수
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한국 기부자 성향 심층분석

1. 한국인의 나눔-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결과 발표 13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39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부 67
기부문화발전의 첫걸음, 국제비교지수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1. 미국의 기부행태(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연구방법과 사례발표 69
Amir D. Hayat(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2.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91
윤연옥(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

부록
부록1. 2011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115
부록2. 2011 Giving Index 설문지(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05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나눔문화1%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SESSION 1

GIVING INDEX : 한국 개인기부지수

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한국 기부자 성향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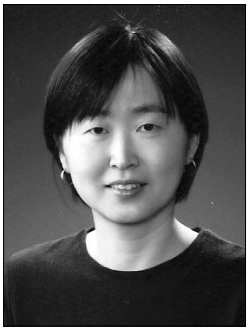
1. 한국인의 나눔-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결과 발표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 한국인의 나눔
- 2011년도 한국 개인기부지수 결과 발표

연구자 |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노연희 Yeon-hee Rho / E-mail: yxr3@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부교수로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직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참여,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조직몰입간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관리 및 조직의 기부자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2011)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영리 조직관리, 자원동원, 다문화주의,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이 있다.

한국인의 나눔: Giving Index 2011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Introduction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 연구배경

한국인의 나눔행동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2011년도에 행해진
한국인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을
탐색해 보고자 함: Who gives what, how much,
why, how, and where?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
무엇에 대해 얼마나
참여하는가?

한국인의 나눔의 동기,
방법, 대상 분석:
왜, 어떻게, 어디에
참여하는가?

한국인 나눔의
중단과 지속 에
대한 분석:
왜 기부를
중단하는가?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1,029명
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0%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2. 6. 21 ~ 7. 2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시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연지경도 자원봉사 활동 형태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 실태	기부 참여 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기부처 연지경도 기부 형태 기부의 내적동기 기부의 외적요인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관련 경험	기부중단/변경 여부 기부지속여부 기부대상조직에 대한 인식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단체/사실/기존 기부 시 고려사항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 기부 의향 유산 기부 희망 비율 유산 기부 희망 형태 유산 기부 장애 요인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 교육 경험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SUMMARY: 순수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경향

구 분	경향
순수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지속적 증가 • 자원봉사 시간 및 정기적 참여는 이전과 유사 • 활동처: 자선단체가 주된 대상이지만, 비공식적 유형 역시 중요 • 인지경로: 가족이나 지인, 개인적 모임 등 개인적 관계망 중요
순수기부활동	• 기부 참여, 기부금액, 정기적 참여 수준은 지속적 증가추세 • 기부처: 자선단체가 주된 대상 • 인지 경로: 대중매체, 기관의 홍보가 중요 비공식적 개인적 관계망 역시 중요 • 기부방식: 자동이체 방식 지속적 증가

II-1. 자원봉사 참여여부

• **Summary**

*-**26.5%** 가 일반자원봉사에 참여 (**2007**년**15.8%**, **2009**년 **23.9%** 로 지속적 증가추세)*

*-종교자원봉사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31.5%**가 참여*

(단위 : %)

II-2. 자원봉사 활동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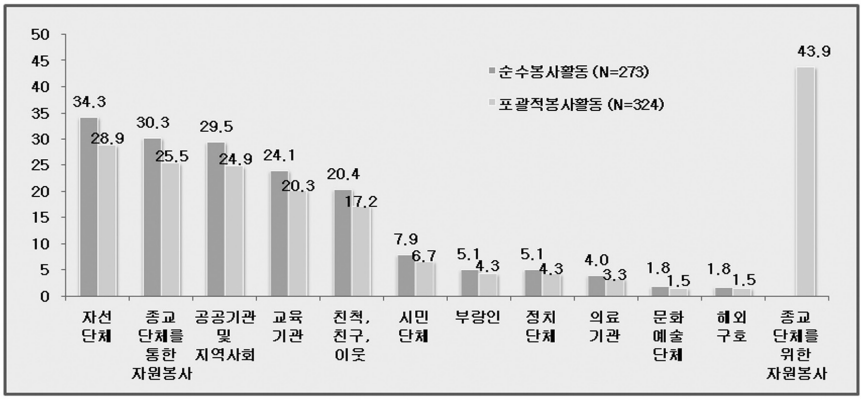
• **Summary**

-참여자중 자선단체를 통한 자원봉사가 매우 높은 비중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비공식적 자원봉사(친척, 친구, 이웃, 부랑인 대상**25.5%**) 의 비중도 주목할만한 규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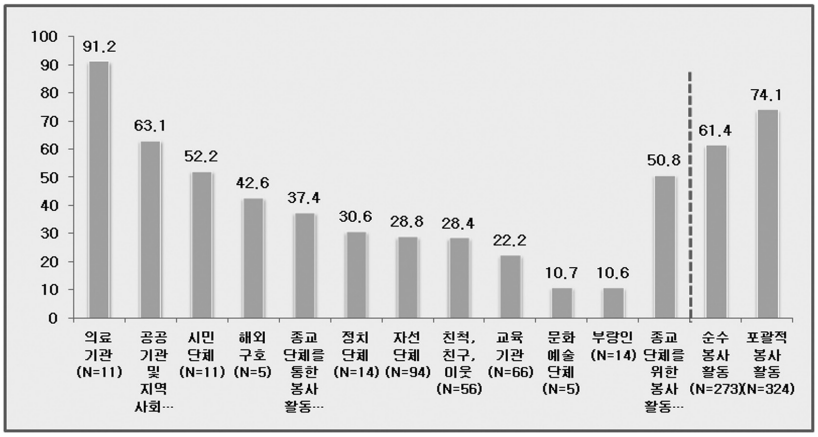
II-3. 자원봉사 시간

• **Summary**

*-참여자 중 평균시간은 일반자원봉사의 경우 연간**61.4**시간 (**2009**년**61.9**시간과 유사)*

-참여자 중 일부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전체 평균이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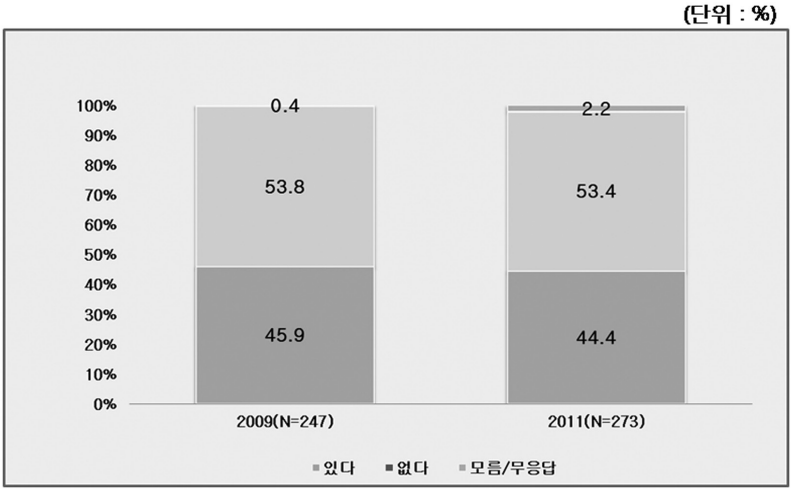


II-4.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 **Summary**

*- 정기적 자원봉사의 경험은**44.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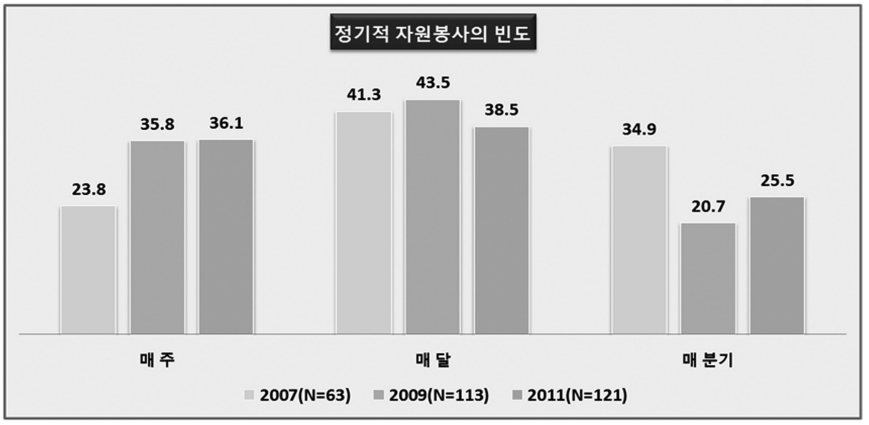


II-5.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 **Summary**

-2007년, 2009년 과 비교할 때 매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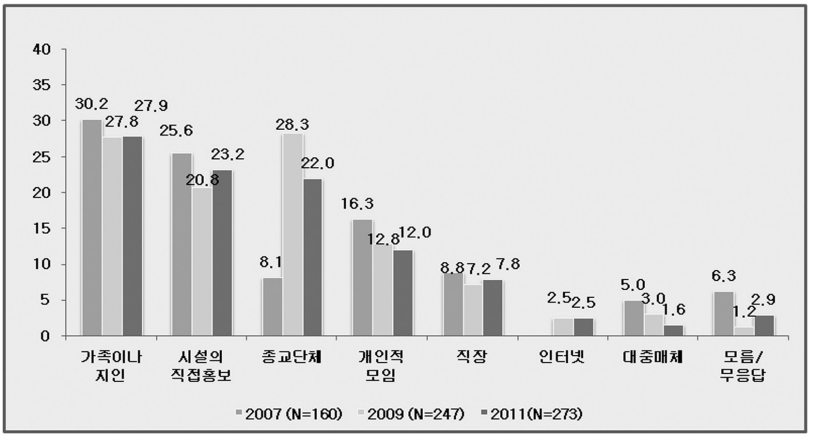
II-6.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 **Summary**

-자원봉사의 활동처 인식에서 세 경로가 주목됨: 종교단체, 직접홍보, 지인

- 가족이나 지인, 개인적 모임 등(39.9%)로 개인적 관계망이 중요성을 지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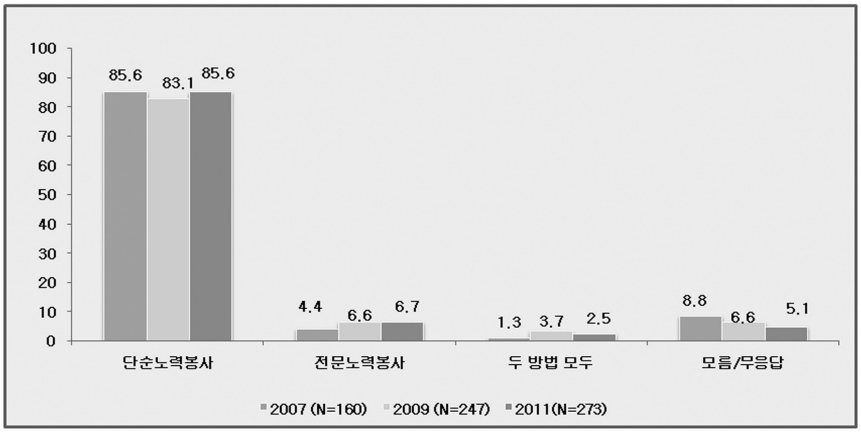


II-7. 자원봉사 활동 방법

• **Summary**

- *단순노력봉사가 여전히 **85%** 이상의 수준임*
-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 기회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

(단위 : %)



III-1. 기부 참여 여부

• **Summary**

- ***57.5%** 가 순수한 자선적기부 참여 **(2009년 55.7%)***
-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형 기부, 즉 경조사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 **91.2%** 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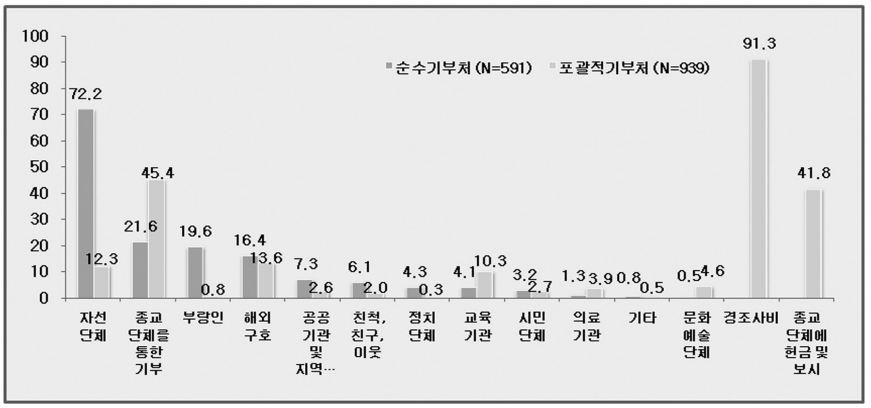
(단위 : %)

III-2. 기부처

• **Summary**

- *참여자 중 자선단체에의 기부가 가장 높은* **72.2%***를 차지; 정치, 교육, 시민단체, 의료기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기부는* **5%** *이하*
- *경조사를 통해 상호부조에 참여하는 경우는* **91.3%**
- *비영리 조직 또는 단체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약* **47%** *정도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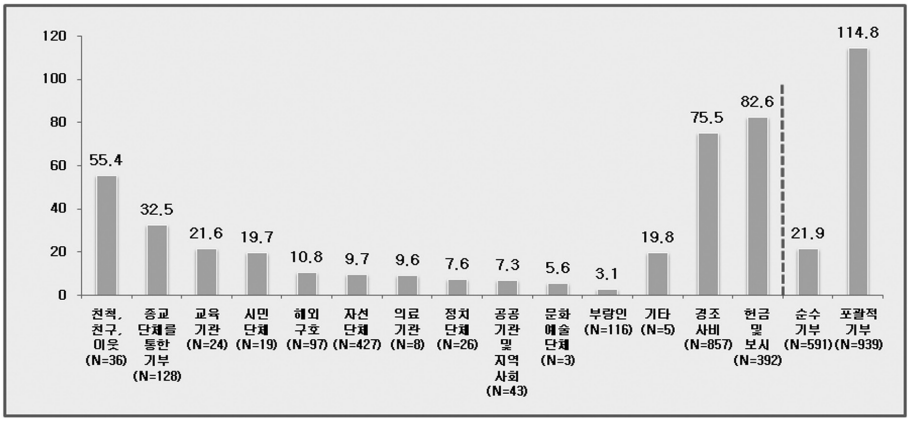


III-3. 기부금액

• **Summary**

-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선적 순수기부의 연간 평균은* **21.9** *만원, 경조사비는* **75.5** *만원,* **종교적 기부는 32.5** *만원의 규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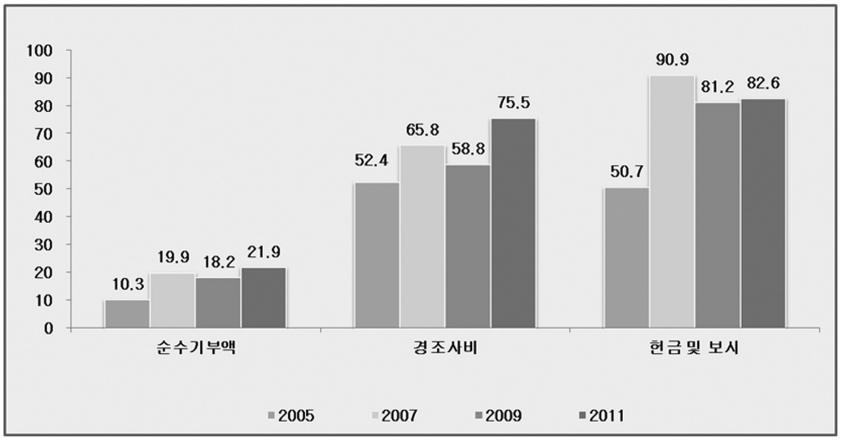


III-4. 기부금액의 변화추세

• **Summary**

- *순수기부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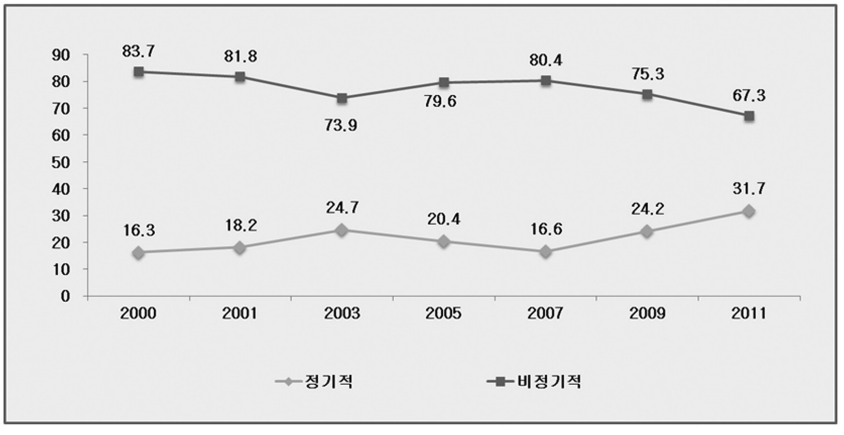


III-5. 정기기부 참여 여부

• **Summary**

- ***2011****년 정기적 기부참여는 약****31.7%****로 순수기부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비정기적(또는 일시적) 기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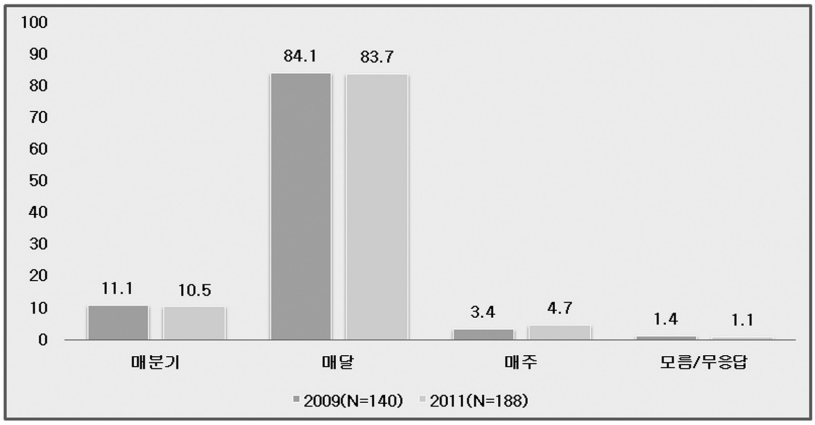


III-6.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 **Summary**

-정기적 참여자중 참여 빈도는 매달 기부가 83.7%로 가장 높은 비율(2009년과 유사한 경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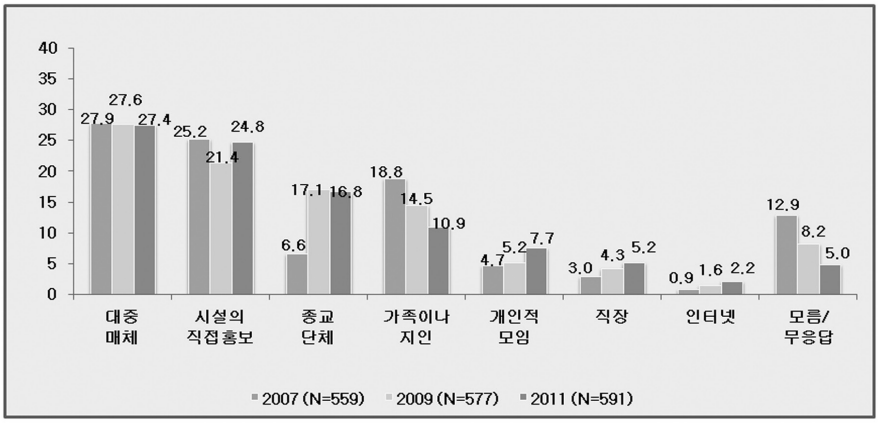
III-7. 기부처 인지 경로

• **Summary**

-기부의 대상에 대한 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의 기여 및 시설의 직접홍보가 돋보임

-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가족, 지인, 종교단체 및 직장 등 개인적 관계망이 기부처 인지경로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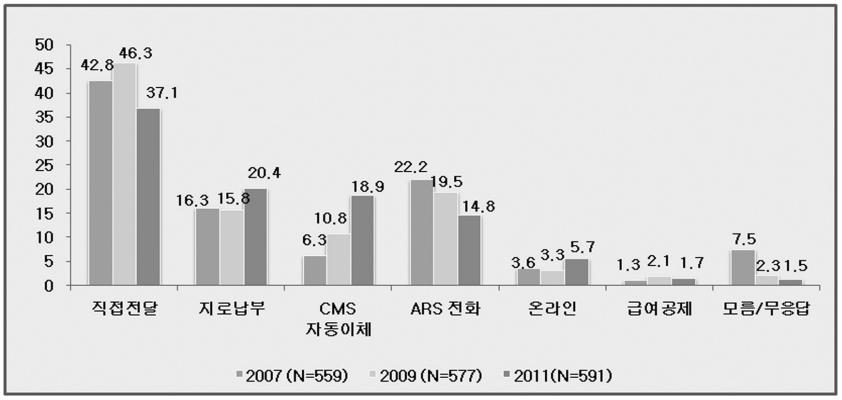


III-8. 기부 방법

• **Summary**

- 기부방법에 있어 직접전달이 여전히 주도적이지만, **CMS** 자동이체 및 급여공제가 증가하고있음
- 기부방식을 기부자가 직접적 행동을필요로 하는경우와 자동이체방식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역시 직접행동방식이 압도적으로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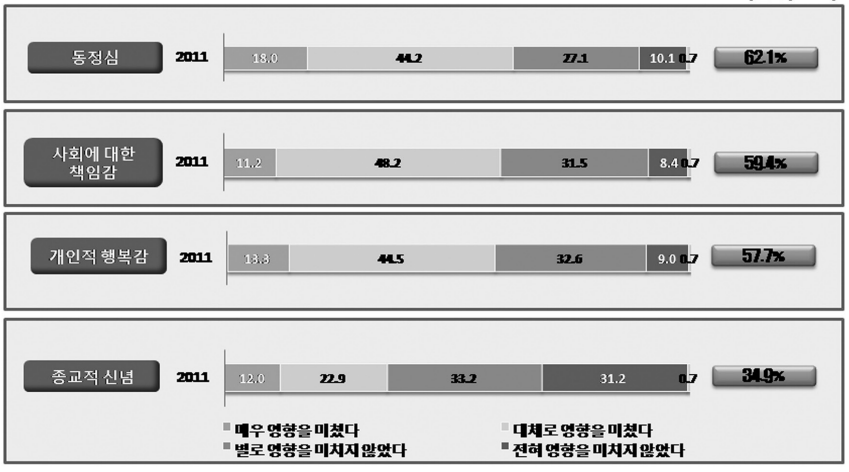


III-9. 기부의 내적 동기

• **Summary**

- 내적 기부동기의 순서는 동정심이 가장 높아 주로 '불쌍하다' '힘들겠다' '안되었다' 등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나눔임
- **2009** 년 **(54.8%)** 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다소 증가하였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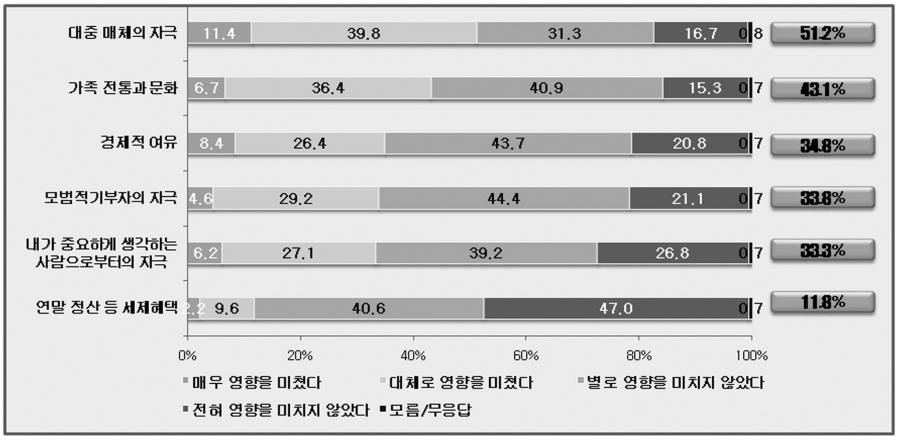
III-10. 기부의 외적 요인

• **Summary**

-외적 기부동기의 순서는 대중매체의 자극, 가족의 전통, 경제적 여유, 타인의 나눔행동에 의한 자극,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극의 순임

-세제혜택의 동기는 매우 미약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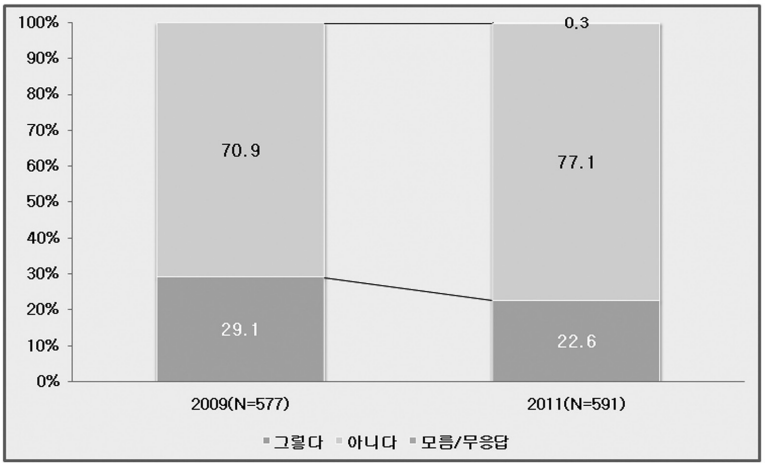


III-11.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 **Summary**

- 기부액이나 기부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경우가 **22.6%***로*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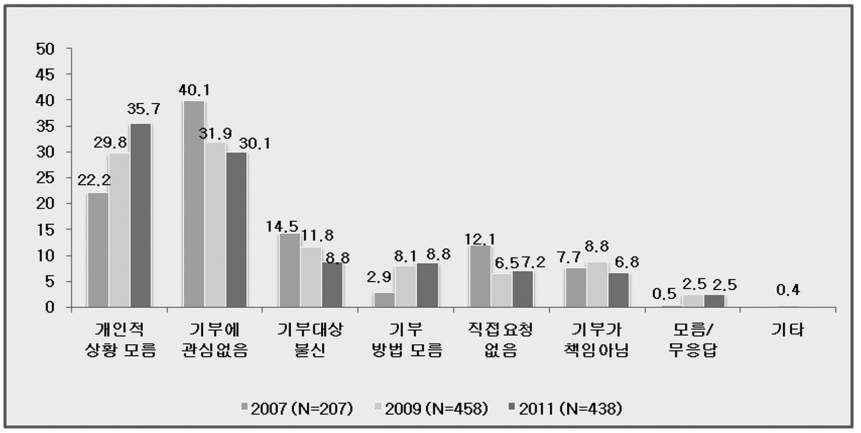


III-12.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 **Summary**

-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와 '개인적 상황'이 주를 이룸*
- *특히 기부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의 감소는 앞으로 기부가 확대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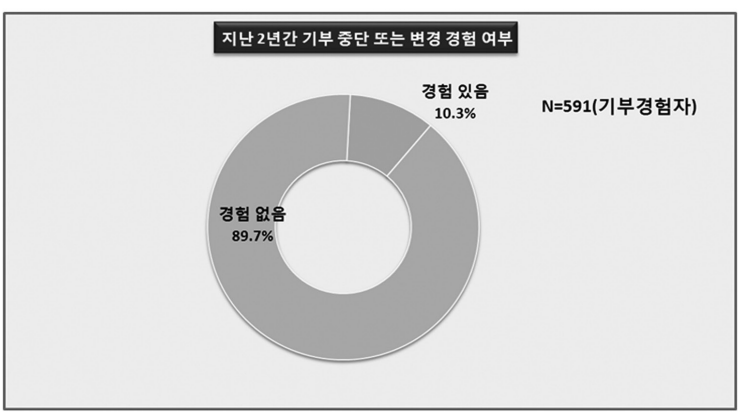


IV-1. 정기적 기부 중단 및 변경 경험: 단체/조직 기부자

• **Summary**

-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체나 조직에 대한 정기기부를 중단하거나, 기부처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 *정도임(기간의 차이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는* **5.9%**

(단위 : %)



IV-2. 정기적 기부 중단 및 변경자: 단체/조직에 대한 인식

• **Summary**

- *기부중단 또는 변경경험자는 대체로 기부와 기부대상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은데, 이는 기부 또는 기부조직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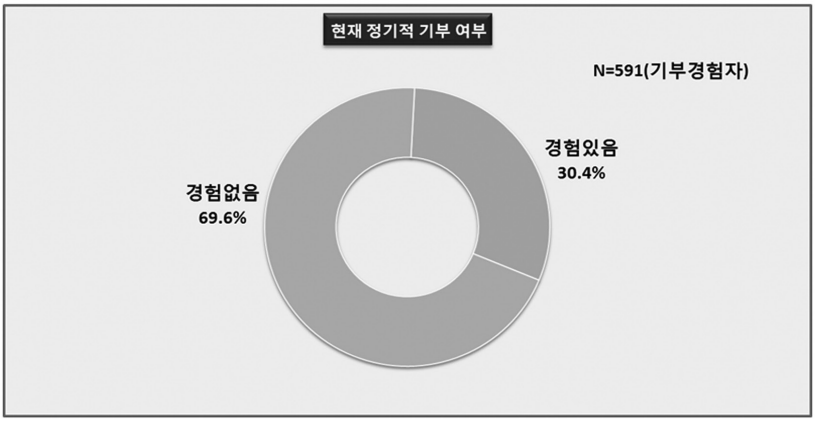
인식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계
기부가 경제적 힘듦	19.3	22.9	45.2	12.5	100.0
적절한 기부액 요청	24.3	17.9	45.2	12.5	100.0
기부에 대한 고마움 표시	**50.4**	24.9	12.2	12.5	100.0
문의에 성의있는 응답	42.3	34.4	10.7	12.5	100.0
연락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음	11.9	26.9	48.7	12.5	100.0
기부금 사용내역 알려줌	40.4	16.1	31.0	12.5	100.0
기부사실을 인식하게 해줌	36.0	26.3	25.2	12.5	100.0
나의 기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	4.8	28.0	**54.7**	12.5	100.0
기부에 대한 행복감	47.6	31.3	8.6	12.5	100.0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	50.0	25.4	12.0	12.5	100.0
기부의 세제혜택 및 각종혜택	21.0	24.5	42.0	12.5	100.0
기부가 다른사람 및 사회에 도움	**50.7**	**24.8**	11.9	12.5	100.0
사회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활동함	41.1	34.3	12.0	12.5	100.0

IV-3. 정기적 기부 지속 여부: 단체/조직 기부자

• **Summary**

- *현재 단체나 조직에 대해 정기적 기부를 지속하고있는 사람은 전체 기부경험자중 **30.4%**임*
- *전체 응답자 중**17.5%***

(단위 : %)



IV-4. 정기적 기부 지속자: 단체/조직에 대한 인식

• **Summary**

- *기부지속자의 경우 대체로 기부나 기부대상조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기부금 사용에 대해 신뢰 그리고 기부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다만 기부액의 적절한 요청이나 경제적 혜택 등에 있어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낮음*

(단위 : %)

인식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기부가 경제적 힘듦	6.2	16.9	76.9	0.0	100.0
적절한 기부액 요청	21.6	22.1	55.3	1.1	100.0
기부에 대한 고마움 표시	59.9	24.4	14.6	1.1	100.0
문의에 성의있는 응답	53.0	30.7	15.8	0.6	100.0
연락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음	11.1	19.7	68.6	0.6	100.0
기부금 사용내역 알려줌	50.2	25.9	23.4	0.6	100.0
기부사실을 인식하게 해줌	53.8	25.4	20.2	0.6	100.0
나의 기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	12.6	21.2	65.6	0.6	100.0
기부에 대한 행복감	**69.6**	23.1	6.8	0.6	100.0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	**73.7**	18.6	6.7	1.0	100.0
기부의 세제혜택 및 각종혜택	28.5	28.6	42.3	0.6	100.0
기부가 다른사람 및 사회에 도움	65.3	24.0	10.1	0.6	100.0
사회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활동함	67.1	24.4	7.9	0.6	100.0

IV-5. 정기적 기부 지속자: 단체/조직 기부자의 기부 특성

• **Summary**

- *기부중단/변경자와 기부지속자 모두 기부대상조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정기기부자의 기부처 인지에 있어서 개인적 관계망의 중요성, 자동이체와 같은 주요 기부방식 및 주요한 기부동기로서 동정심을 고려하면, 기부 그 자체 및 기부대상 조직의 관리 활동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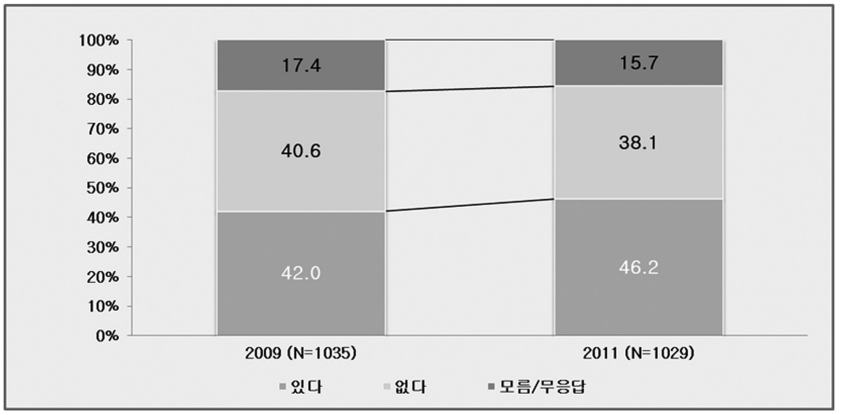
	기부처 인지경로				기부방법		
	자발적 정보 수집	개인적 관계망	기부처 활동	계	직접 전달 방식	자동 이체 방식	계
정기적 기부	24.3	**57.9**	17.8	100.0	34.6	**65.4**	100.0
비정기적 기부	**38.8**	27.9	33.3	100.0	**91.4**	8.6	100.0
전체	34.1	37.7	28.2	100.0	73.2	26.8	100.0

V-1. 기부의향

• **Summary**

- *향후 **1**년 내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46.2%**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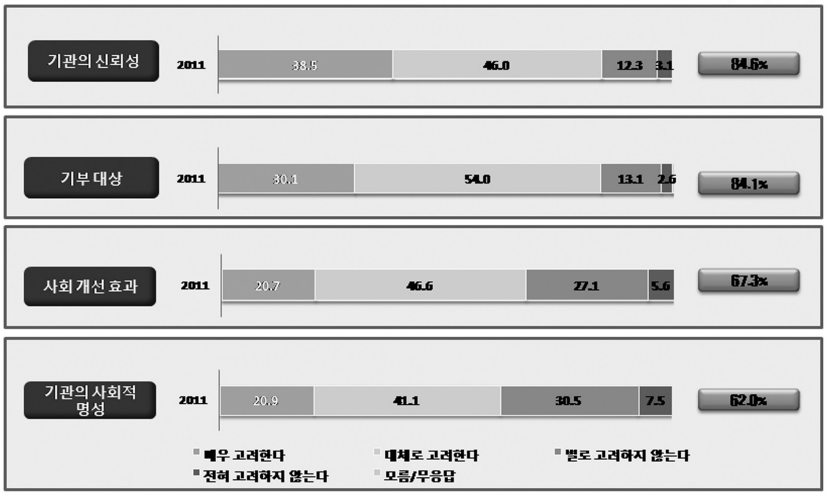


V-2. 기부 결정시 고려사항

• **Summary**

-기부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것 중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것은 누가 최종 기부대상인지 그리고 매개하는 기관이 신뢰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V-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Summary**

- *단체나 시설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동시에 기부액의 선택 가능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기부처가 되는 비영리조직이나 단체의 기부전략 수립시 기부자의 특성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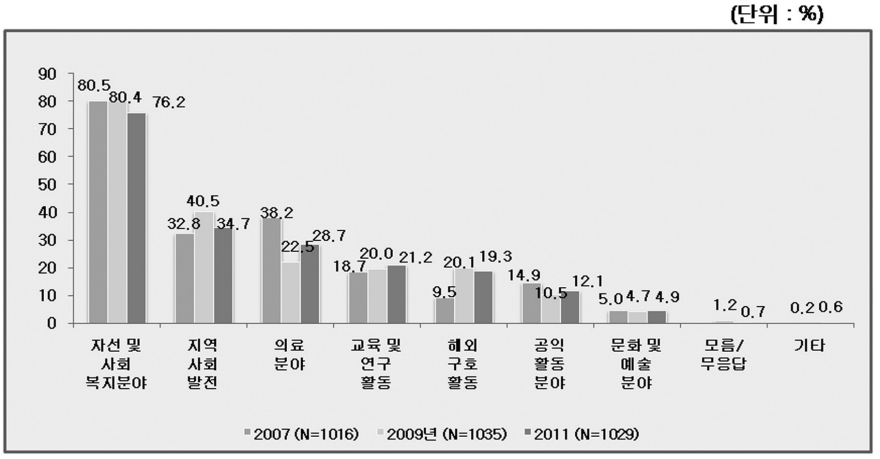
(단위 : %)

V-4. 기부금품 사용 희망 분야

• **Summary**

-기부의 사용희망 분야에서는 자선 및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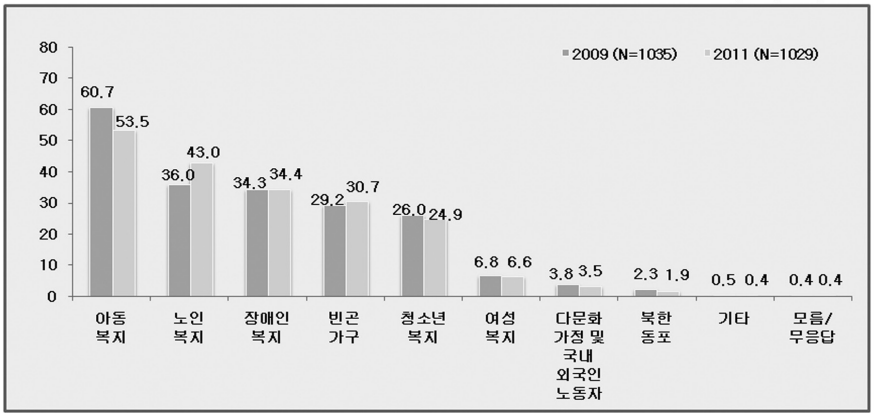


V-5. 기부금품 사용 희망 대상

• **Summary**

-기부의 대상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구는 아동이고, 그 다음이 노인과 장애인 및 빈곤가구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동포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편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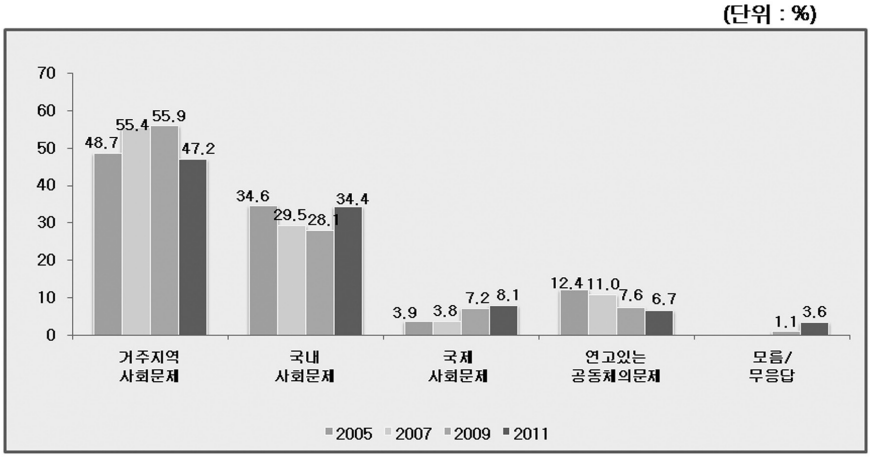


V-6. 기부금품 사용 희망 단위

• **Summary**

-대상이 누구든 어디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선호되는 단위는 본인의 직접적인 준거집단이 되는 거주 지역사회임
-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내 및 국제사회문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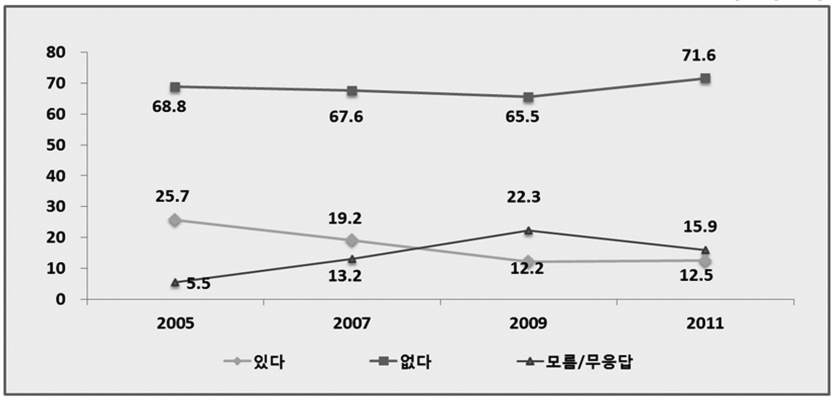


VI-1. 유산기부의향

• **Summary**

- *유산기부의 의향은* ***12.5%****로* ***2009****년과 유사함*
- *그러나 유산기부 의향이 없다는 비율* ***(71.6%)****의 증가경향은 유산기부에 대해 모르는 사람 수의 감소 경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유산기부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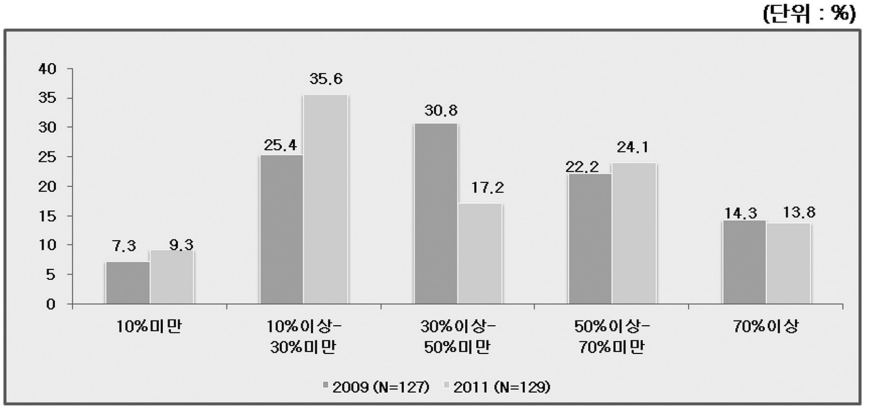


VI-2. 유산기부희망 비율

• **Summary**

- *유산기부의 비중을 전 재산 중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지를 보면,* ***고려하는 이들 중에서의 분포는 10%*** *이상* ***30%*** *미만 정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음*
- *희망비율이* ***2009****년에 비해 그 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은 유산기부의향이 없다는 비율의 증가와 동시에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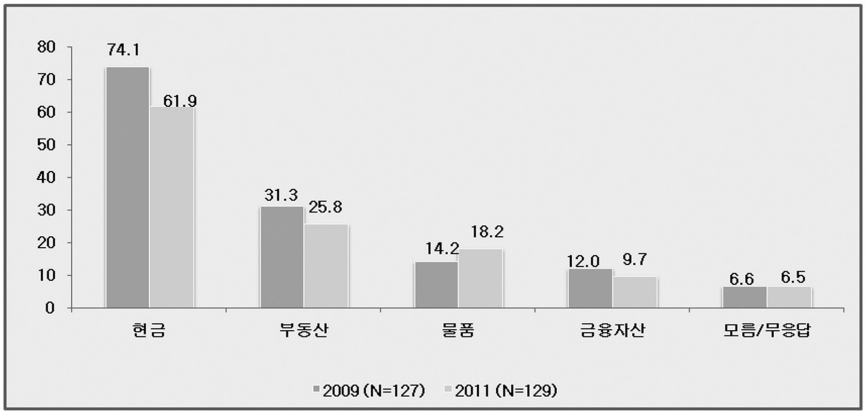


VI-3. 유산기부 희망 형태

• **Summary**

-유산기부의 희망형태와 관련해서 대다수는 현금과 부동산임. 그러나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그러나 기타의 물품(소장품) 에 대한 고려도 증가하는 양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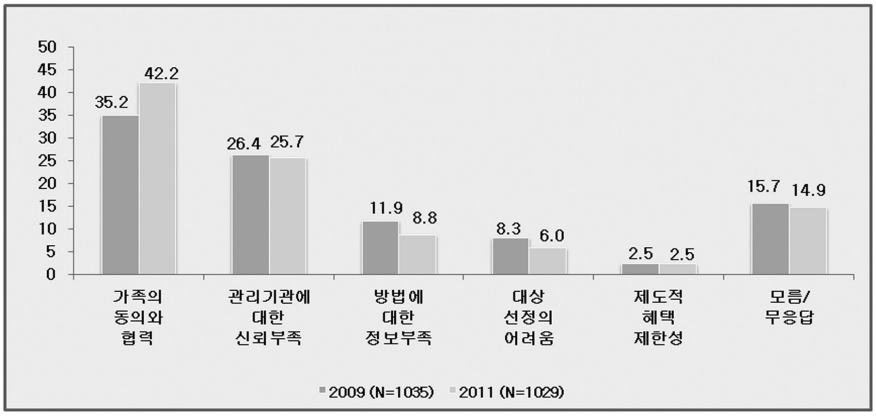


VI-4. 유산기부 장애 요인

• **Summary**

-유산기부 고려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가족임
-그 다음이 과연 나의 유산을 신뢰있게 관리해줄 것인 지와 방법에 대한 무지 및 대상선정에서의 어려움: 기부처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이 사회적으로 필요함
-제도적 혜택의 내용과 규모는 매우 비율이 낮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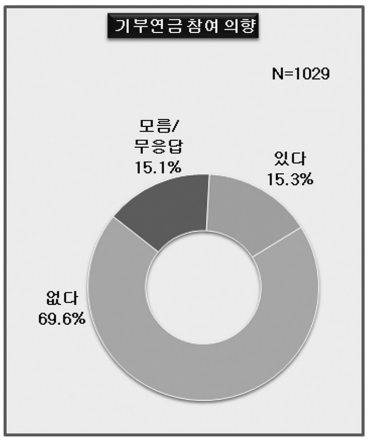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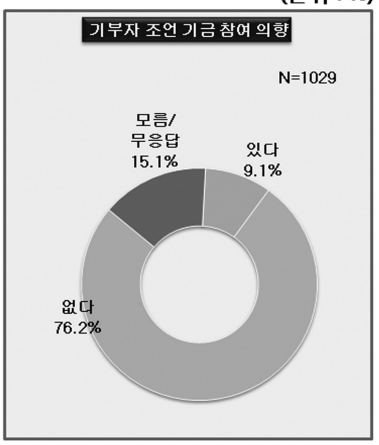
VI-5. 기부연금 참여 의향

• **Summary**

- *연금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향은 기부연금의 경우는* ***15.3%*** *그리고 기부자 조언기금은* ***9.1%****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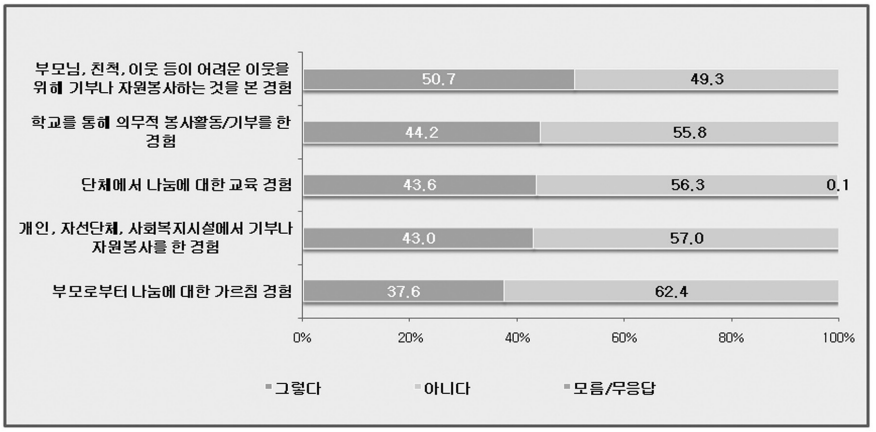


VII-1.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 나눔교육 경험

• **Summary**

-한국사회에서 나눔의 가르침은 다양한 곳에서 전개되고 있어 나눔 교육의 경험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나눔 교육은 광범위하게 필요한 상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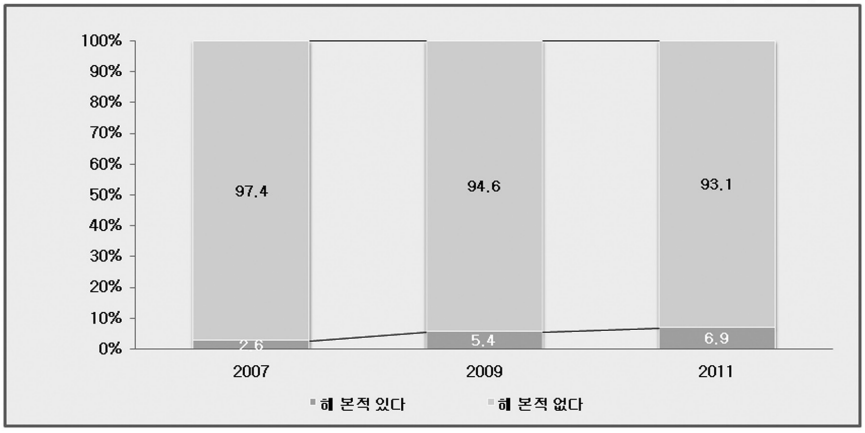


VII-2.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 **Summary**

-인터넷을 통한 기부는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나 점차 증가하는 양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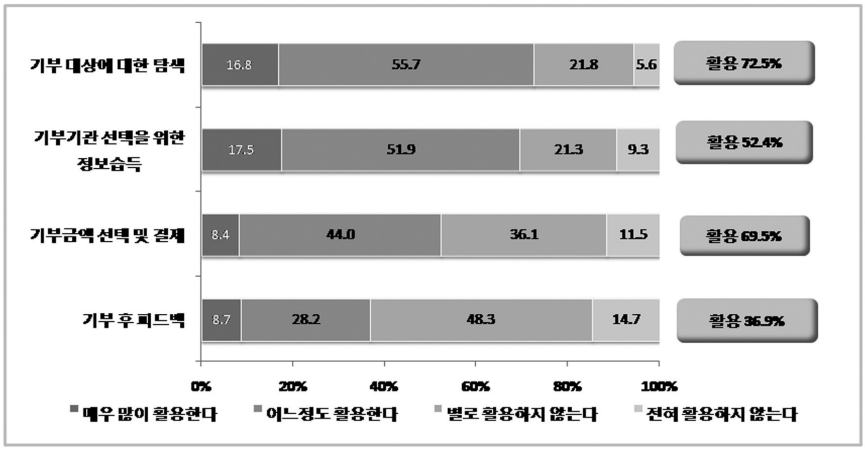


VII-3. 기부시 인터넷 활용도

• **Summary**

- *기부대상에 대한 자료의 탐색을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이후 기부를 하는 상황에서 기부액의 선택 및 결제 등 편의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기부후의 기부대상에 대한 피드백등에 대한 적극적 활동 등에서는 활용수준이 비교적 낮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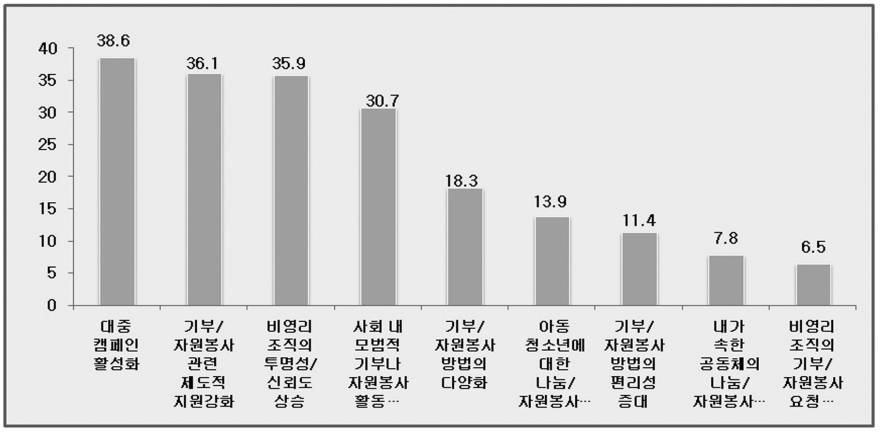
VII-4. 기부문화 활성화를위해 필요한 것

• **Summary**

-한국사회에서 나눔이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기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이와 함께 기부의 주된 대상이 되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지도층에 의한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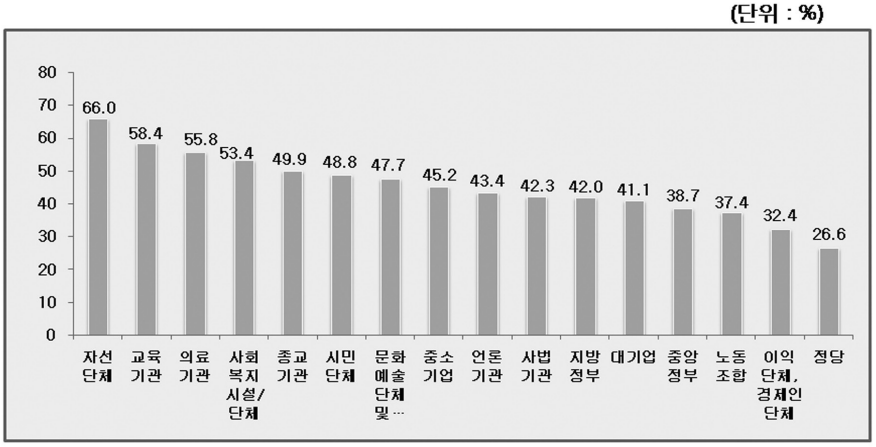
VII-5. 한국사회의 구성기관에 대한 신뢰도

• **Summary**

- 나눔은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전형적으로 비영리조직으로 인식되는 자선단체임

-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기관은 주로 대기업, 정부, 노동조합, 이익단체 및 정당 등으로 사회적으로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조직들임

(단위 : %)



VIII. 결론 및 논의: 2011년 한국인의 나눔행동의 양상

•나눔의 폭과 질

- 한국인의 나눔의 참여 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의 경우 기부의 규모 확대 및 정기적 행동의 증가를 고려할 때, 나눔의 질 역시 제고되고 있음

•기부와 자원봉사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보완적일 수도 있으나 선택적인 차원에서도 기능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기부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순수자선기부가 일반자원봉사보다는 보다 보편적임; 즉 기부의 선택이 보다 보편적인 상황

•다양한 형태의 기부

-순수자선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 중 참여의 폭에서는 경조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이 순수자선기부와 종교적 기부임

-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종교적 기부, 경조사, 순수자선기부의 순서임

-순수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인의 상대적 기부수준과 기부의 정기성 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종교와 나눔

-한국인의 나눔행동에서 종교기관이 기부대상으로서 동시에 기부를 하게 되는 중요한 한 통로로 활용됨

•기부의 중단과 지속

- 정기적 기부참여자 중 기부중단 또는 변경자 그리고 기부지속자 모두 기부대상조직(단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
- 기부의 중단이나 기부처 변경 요인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은 기부전략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음

VIII. 결론 및 논의

•동정심에 기반한 공공부조형 나눔의 우세

-기부의 동기로서 동정심이 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고 나눔의 대상 선택과 관련해서도 역시 공공부조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눔 대상이 선택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나눔 다양성에서의 제한성

- 나의 직접적 준거집단이 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이 여전히 주도적이며, 좀 더 광범위한 국내 또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눔의 대상, 방식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유산기부 또는 기부연금에 대한 관심

- 유산기부의 의향이나 그 희망 비율 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부연금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은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기부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가장 큰 어려움인 가족의 반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숙을 이끌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한국사회 나눔의 특성과 과제

- 나눔행위가 주로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동정심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행위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회나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대규모 모금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별 비영리조직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눔이 주요한 가치와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나눔 교육 및 나눔을 위한 체계화된 **infra-system**의 구축이 필요함

2.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연구자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강철희 Chul-hee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철희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기부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2010년 미국비영리학회 이사로 아시아인 최초로 선출되었다. 기부문화관련 다양한 연구와 해외학술대회 다수 참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2부터 현재까지 개인기부지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비영리기관 온라인 기부 증액자의 기부 증액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2012년 10월 17일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목차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III. 기부와 자원봉사의 결정모형 추정
IV. 요약 및 결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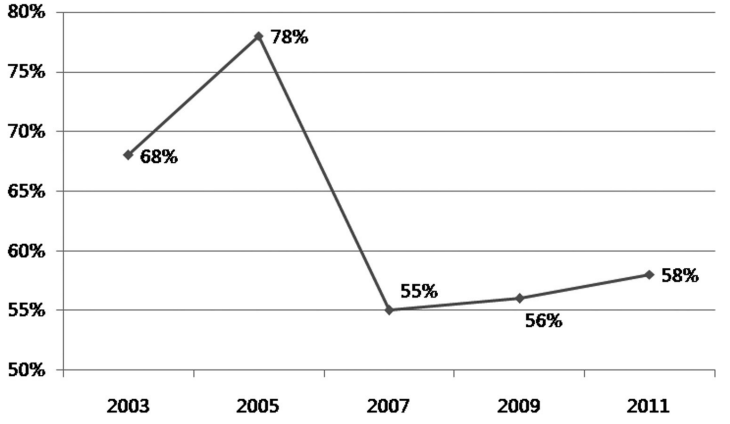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평균 기부금액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의 연도별 변화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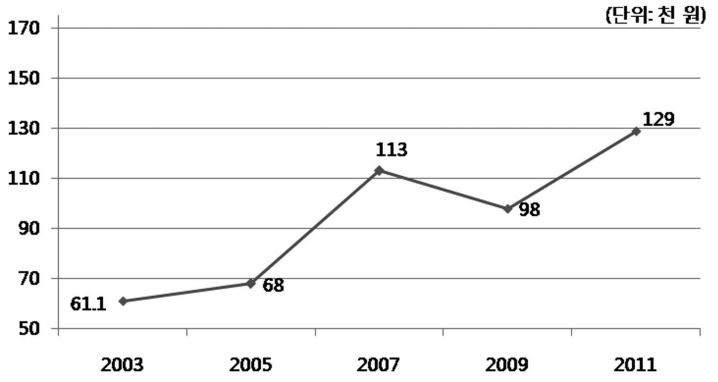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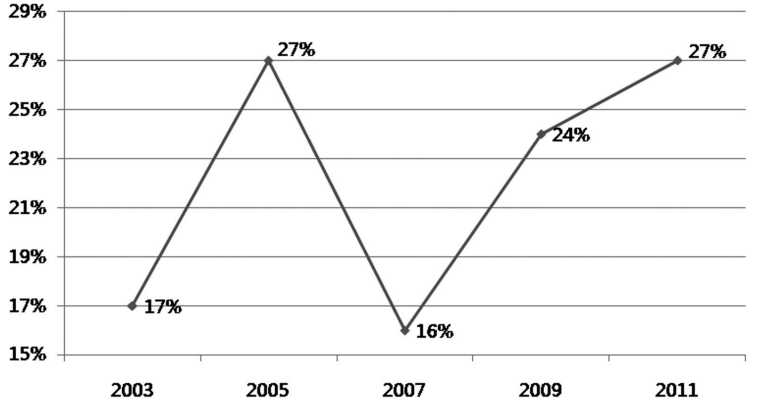
- 한국인의 평균기부 금액(secular giving)의 연도별 변화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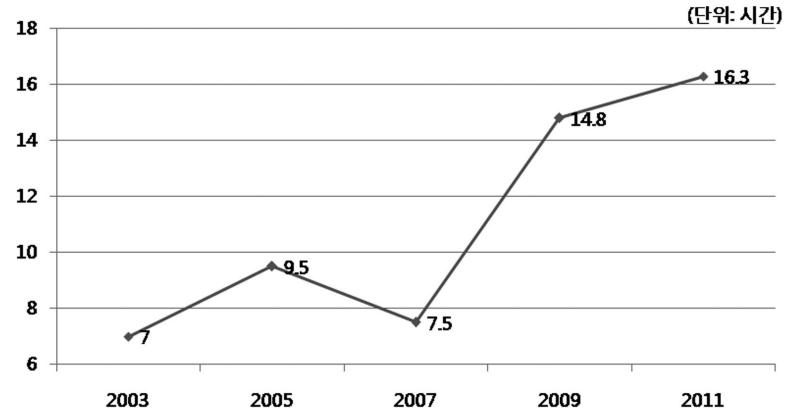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7

한국인의 평균 자원봉사 (secular volunteering) 시간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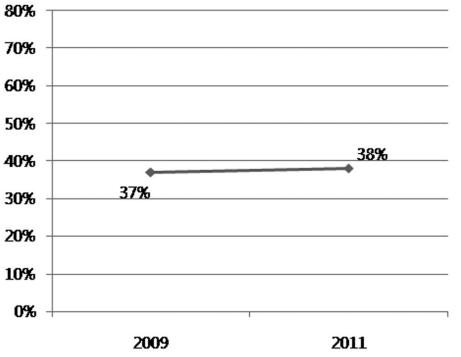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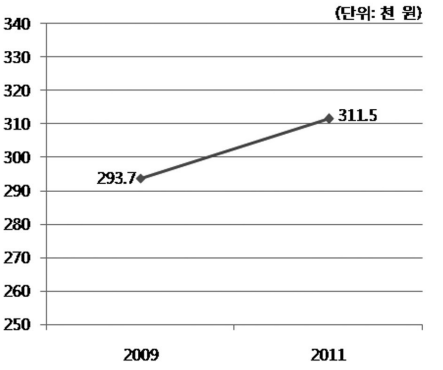
8

한국인의 종교적 기부 참여율 및 평균 기부 금액의 연도별 변화

종교적 기부 참여율



평균 종교적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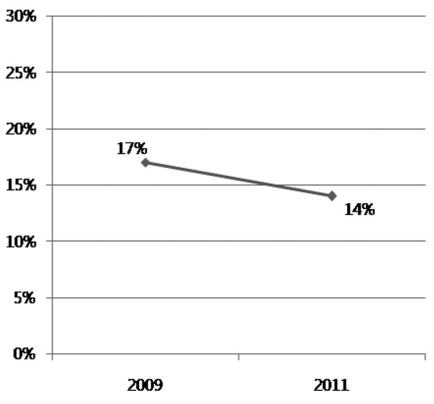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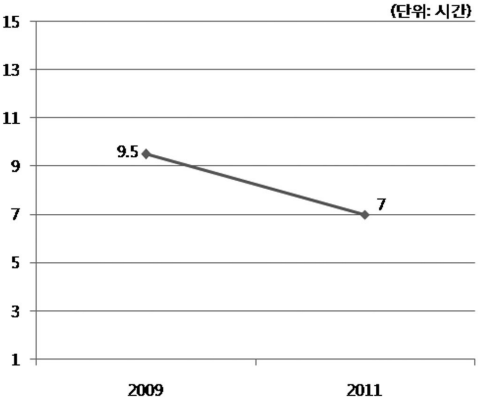
9

한국인의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율 및 평균 시간의 연도별 변화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율



평균 종교적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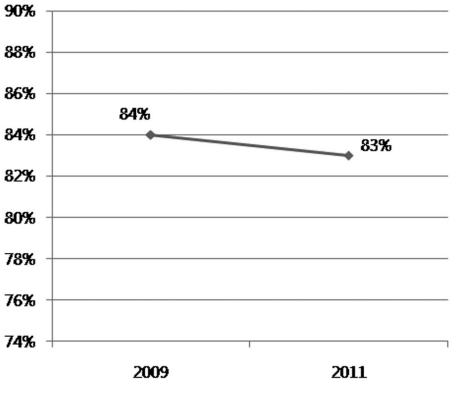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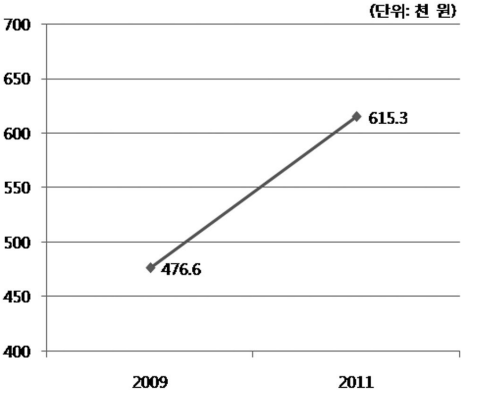
10

한국인의 경조사비 참여율 및 평균 경조사비 금액의 연도별 변화

경조사비 참여율



평균 경조사비 금액



11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누가 이웃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가?

- 소득수준별
-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 종교별
- 직업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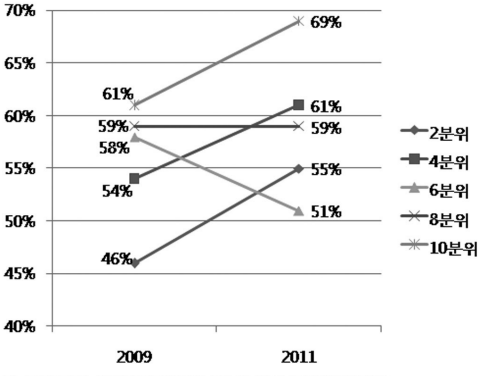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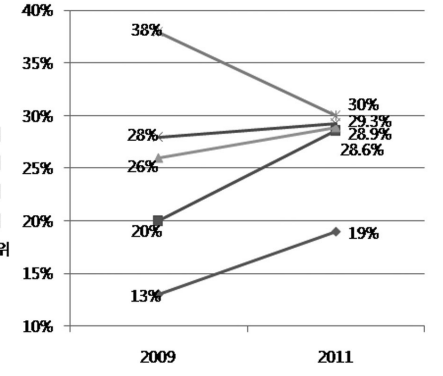
소득수준[1]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율에서 소득수준 6분위의 기부 참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기부참여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기부참여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도 역시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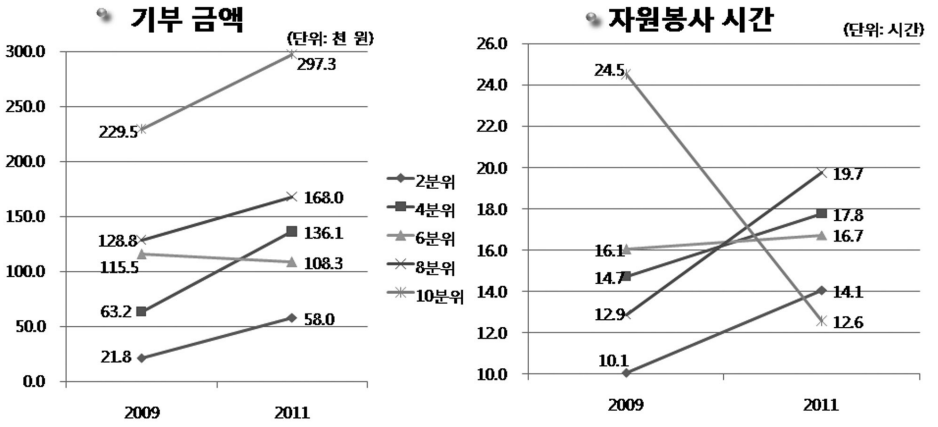
1) 국가통계포털(가구소비실태조사-월소득10분위계층)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13

소득수준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시간 분석

-기부 금액에서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기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고, 상위 10분위의 기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금액에서 소득수준 6분위는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소득수준에서는 기부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자원봉사 시간 감소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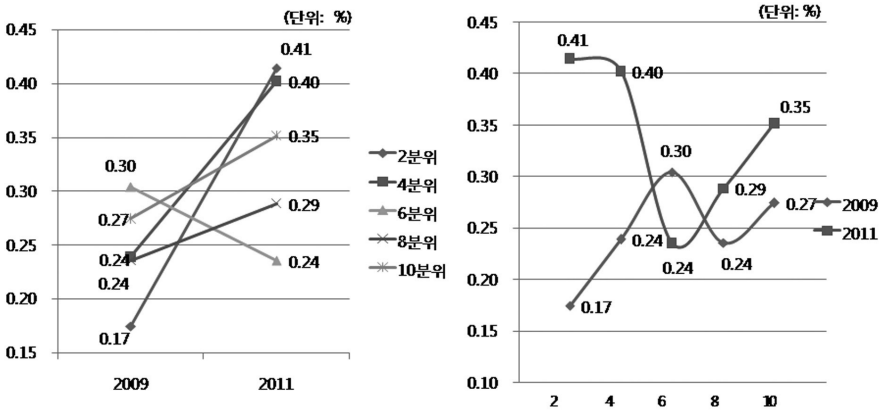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14

소득수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소득 대비 기부비율을 분석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소득수준 하위 2분위와 4분위의 기부노력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래서 U자형의 모습이 관찰됨.
-2009년 기부노력이 가장 높았던 6분위의 경우 2011년 가장 낮은 기부노력을 보였고, 나머지 소득수준들은 모두 기부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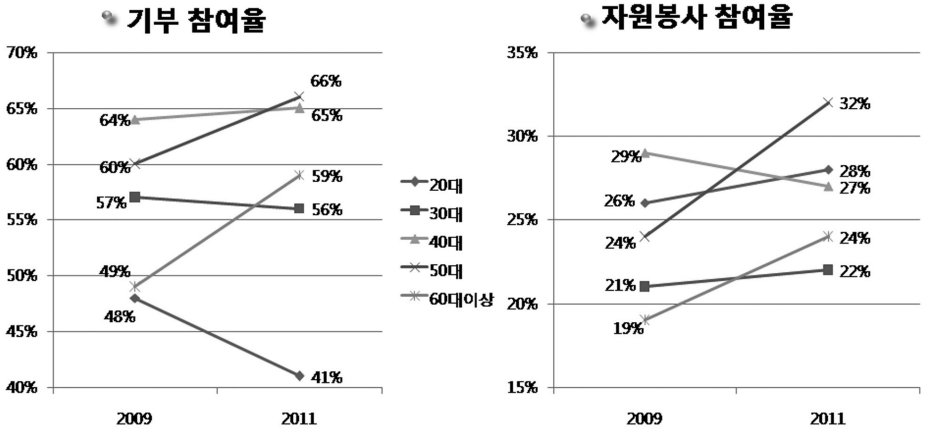


15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연령대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에서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와 50대의 기부 참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는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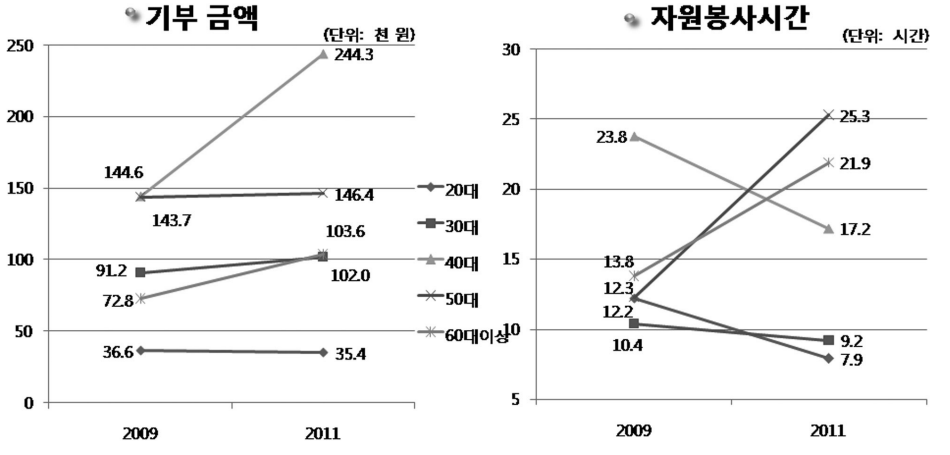


16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연령대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시간분석

-기부금액은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의 기부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5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부금액이 가장 높았던 40대의 감소폭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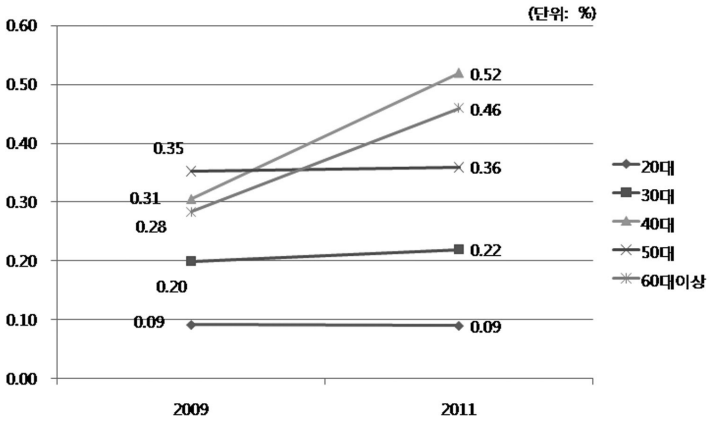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17

연령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에도 20대의 기부노력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40대와 60대 이상 그리고 50대의 기부노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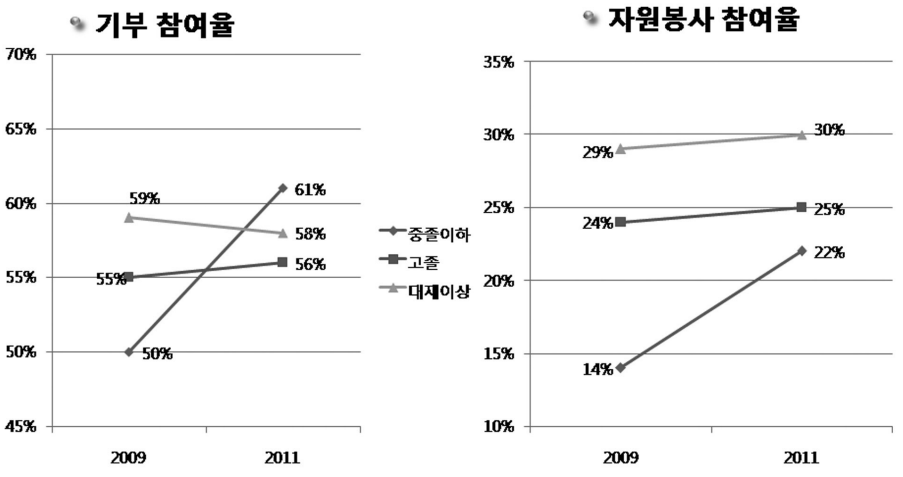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18

교육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율에서는 중졸이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대재이상,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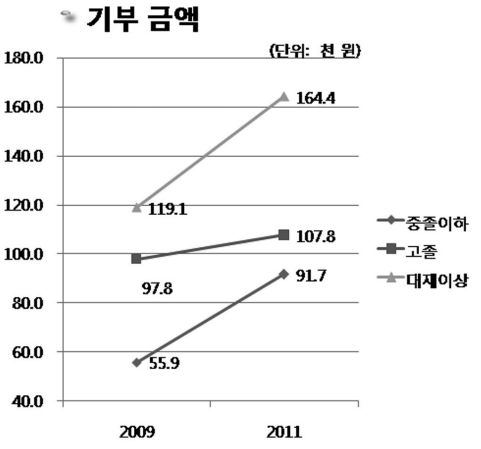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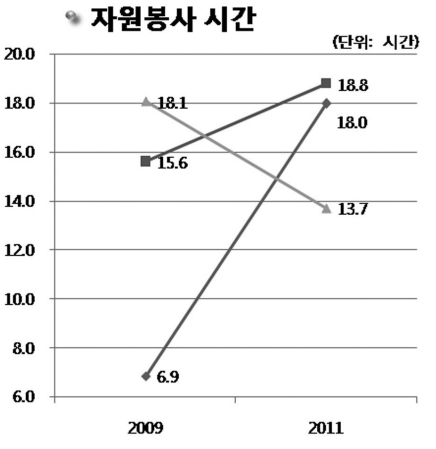
19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수준 별 기부 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 분석

-기부금액은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에서 중졸이하의 증가와 대졸이상의 시간 저하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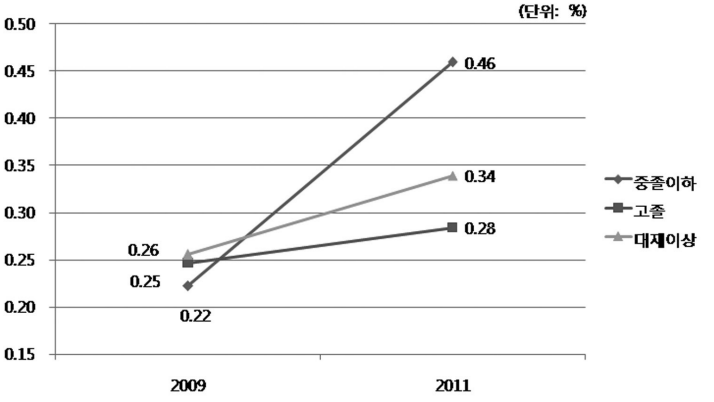


20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수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 기부금액이 가장 낮았던 중졸이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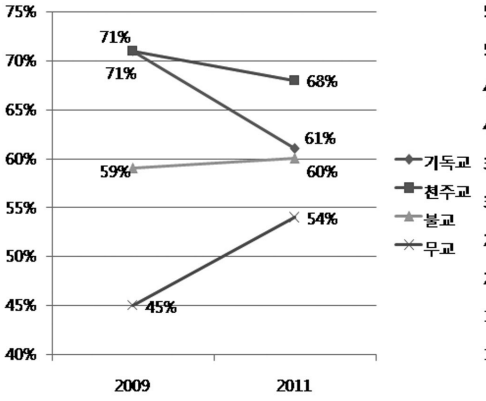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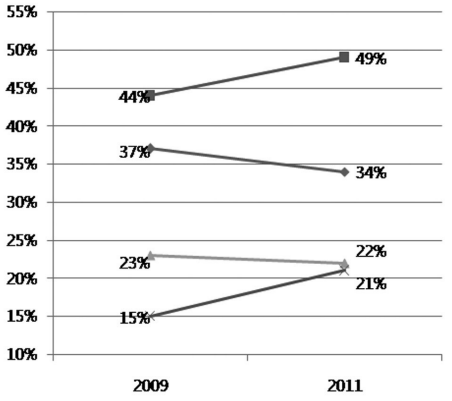
종교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시민의 기부 참여가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도 역시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 순으로 일관적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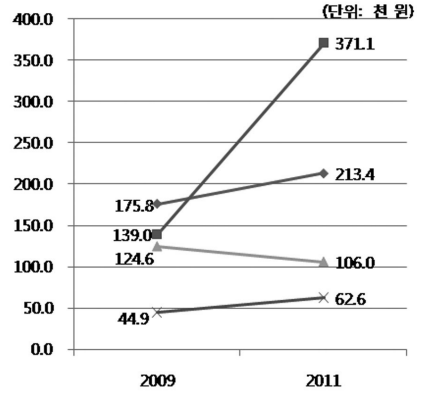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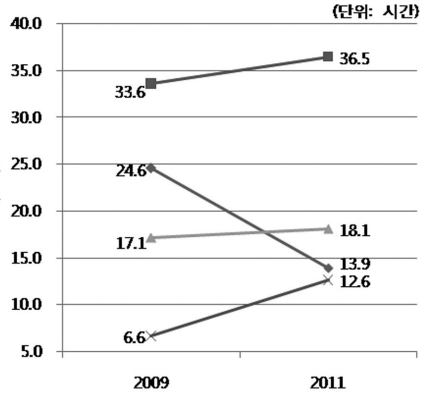
종교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분석

-기부금액은 천주교가 가장 높고,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불교, 무교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천주교의 자원봉사 시간이 일관적으로 가장 높고, 무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금액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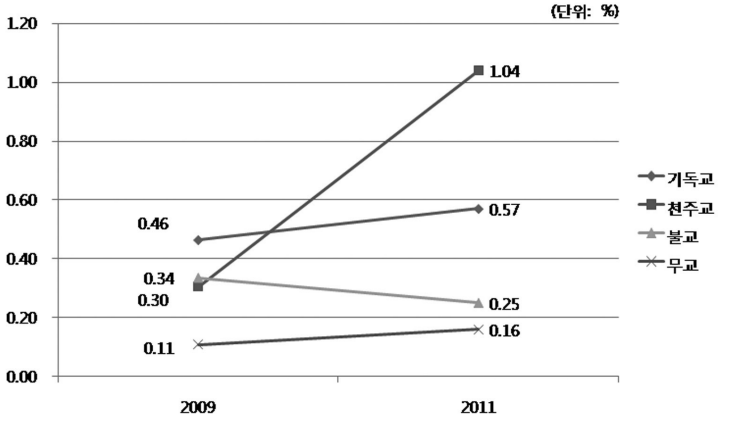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23

종교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은 기부금액과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가장 높고, 그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남. 불교와 무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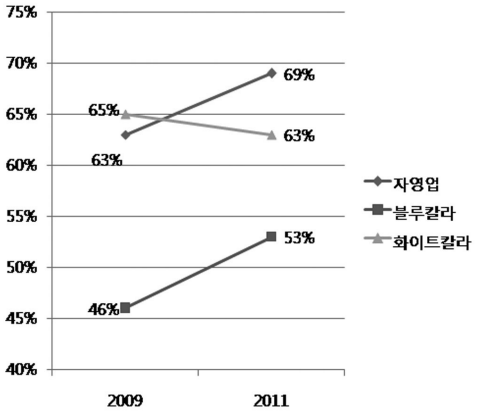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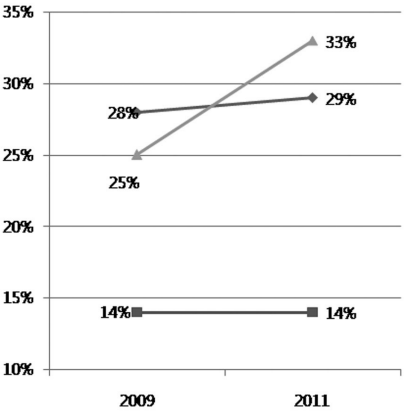
직업군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 시민의 기부 참여가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도 기부 참여율과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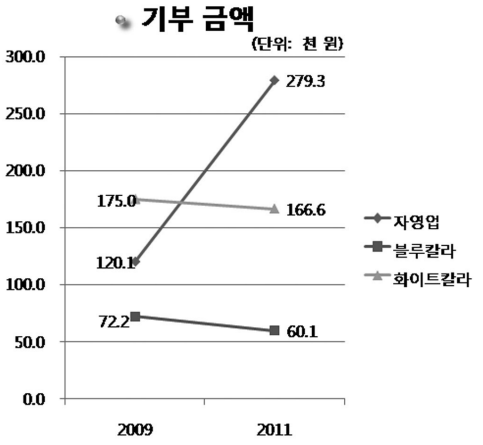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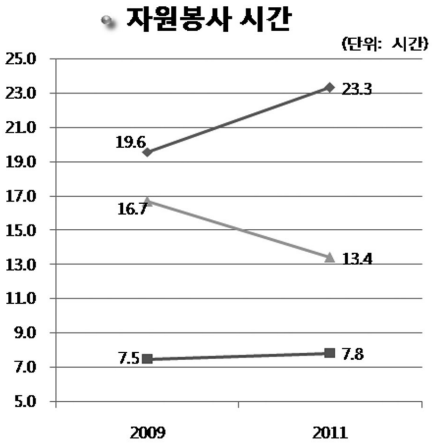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25

직업군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 분석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 시민의 기부금액이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자영업,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순으로 일관되게 나타남. 즉 자영업의 자원봉사 시간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블루칼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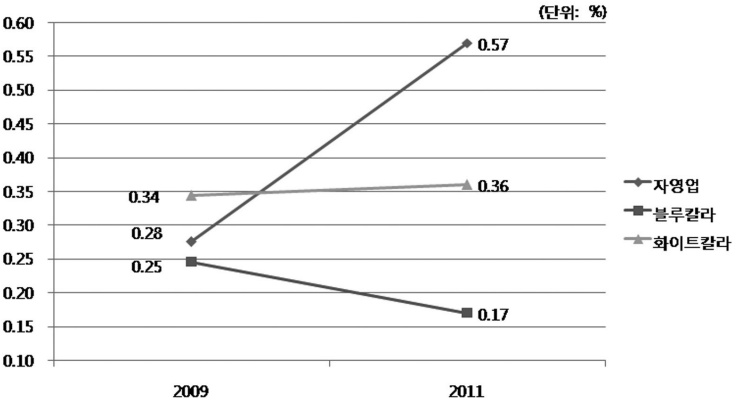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26

직업군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 역시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을 갖는 시민의 기부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화이트칼라 직업의 경우 기부노력 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블루칼라의 경우 많이 낮아짐.



27

Ⅲ.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 기부 및 자원봉사 결정요인 추정
  - Giving Korea 2010과 비교
-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 Brooks 연구와 비교
-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 – Brooks 연구와 비교
- 종교성 및 이념성향 조합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 Brooks 연구와 비교
- 기부 및 자원봉사 결정요인 종합 모형 추정

28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기부참여율	연간 Secular giving 참여 여부
자원봉사참여율	연간 Secular volunteering 참여 여부
기부금액	연간 Secular giving 총 금액(현금+현물. 단위 : 천원)
자원봉사시간	연간 Secular volunteering 총 시간(단위 : 시간)

참여율 예측값 공식

$$Pr(y_i = 1) = \Phi(x_i \beta)$$

금액 또는 시간 예측값 공식

$$E(y_i \mid x_i, y_i > 0) = \left(x_i\beta + \delta \frac{\Phi(X_i\beta/\delta)}{\Phi(X_i\beta/\delta)} \right)$$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29

비교 자료 설명

❖ 사회계층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분석(2010)
- 연구자: 민인식 교수, 강철희 교수
- 내용: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probit, tobit)
  소득,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 직업군별 분석
- Data Source: Giving Korea 2010

❖WHO REALLY CARES(2006)
- 연구자: Arthur C. Brooks (전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회장)
- 내용: 종교성, 이념성향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probit, tobit)
- Data Source: The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2000)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30

기부참여율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기부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O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O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		
중소도시_동			-	O
대도시			-	O
직업군 (ref. 무직)	-	O		
농·임·어업			+	O
자영업			+	O
판매·영업·서비스직			+	O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O
주부			+	O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O		
기독교			+	×
천주교			+	O
불교			+	×
기타			+	×

기부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O	+	O
성별 (남=1, 여=0)	-	×	-	O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O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연령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결혼상태, 거주지, 성별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
  - 연간가구소득, 교육수준
  - 이는 우리 사회의 기부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31

기부금액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기부금액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O	+	O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O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O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O
직업군 (ref. 무직)	+	O		
농·임·어업			+	×
자영업			+	O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O
주부			+	×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O		
기독교			+	O
천주교			+	O
불교			+	×
기타			+	×

기부금액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O	+	O
성별 (남=1, 여=0)	+	×	-	O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O		
고졸			+	×
대재이상			+	O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직업, 종교, 연령, 교육수준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결혼상태, 성별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 (p<.1)
  - 없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32

자원봉사 참여율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자원봉사 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O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O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O		
농·임·어업			+	O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O
주부			+	O
학생			+	O
종교 (ref. 종교없음)	+	O		
기독교			+	O
천주교			+	O
불교			+	×
기타			+	O

자원봉사 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O	+	O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O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O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연령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가구원수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교육수준
  - 이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자원봉사시간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자원봉사시간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O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O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O		
농·임·어업			+	O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O
주부			+	×
학생			+	O
종교 (ref. 종교없음)	+	O		
기독교			+	O
천주교			+	O
불교			+	×
기타			+	×

자원봉사시간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O	+	O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O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O		
고졸			+	O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교육수준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가구원수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연령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세속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비해 기부 참여율, 기부 금액, 기부 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남(미국, 한국 모두)
- 특히 한국의 경우 기부 금액과 기부 노력은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세속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 비해 5~6배 정도 높음
- 이런 결과는 종교적 성향이 사람들의 나눔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성향[3]	세속적 성향[4]	종교적 성향[3]	세속적 성향[4]
연간 기부참여율 (secular)	71%	61%	76.7%	51.8%
연간 기부금액 (secular)	$532	$467	₩316,697	₩62,689
연간 기부노력 (secular)	-	-	0.89%	0.15%
연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lar)	60%	39%	44.8%	21.0%
연간 자원봉사시간 (secular)	-	-	28.1시간	13.5시간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2)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4)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35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Giving Korea 2012)

-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Secular 기부와 관련해서 종교성의 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이 일관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결과는 시민 중 종교성의 정도가 나눔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자원봉사시간의 경우, 중립적인 경우와 세속적인 경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Giving Korea(2012)		
	종교적 성향[1]	중립적 성향[2]	세속적 성향[3]
연간 기부참여율 (secular)	76.7%	54.8%	51.8%
연간 기부금액 (secular)	₩316,697	₩132,227	₩62,689
연간 기부노력 (secular)	0.89%	0.31%	0.16%
연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lar)	44.8%	24.5%	21.0%
연간 자원봉사시간 (secular)	28.05시간	13.24시간	13.49시간

1)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2)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36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기부참여율(Brooks, 2006과의 비교)

기부참여율	SCCBS(2000)	Giving Korea(2012)	
	Coef.(Secu+Relig)	Coef.(Secu+Relig)	Coef.(Secular)
종교적[1]	0.384**	0.746**	.640**
세속적[1]	-0.656**	-0.787**	-.010
성별[2]	-0.053	-0.238*	-.121
결혼상태[3]	0.103**	0.375**	.352**
가구원수	0.0018	-.093*	-.068*
연령	0.0074**	.011*	.009*
연간가구소득	0.0108**	.214*	.214*
고졸[4]	0.447**	-.058	.009
대졸[4]	0.788**	.134	.196
대학원재 이상[4]	0.929**	.134	.057
백인[5]	0.285**	-	-
흑인[5]	0.14**	-	-
보수[6]	0.024	-.020	-.208*
진보[6]	0.059	.111	.073
Constant	-0.493**	-1.151	-2.037**

* *p<.01 *p<.05
1) ref. 중도적 성향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ref. 흑인 외 유색인종 6) ref. 중도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적 성향은 기부참여율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 세속적 성향은 기부참여율에 부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이념성향 자체만으로는 포괄적 기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Secular 기부

- 한국의 경우, secular 기부참여에 있어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 그리고 보수적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기부금액(Brooks, 2006과의 비교)

기부금액	SCCBS(2000)	Giving Korea(2012)	
	Coef.(Secu+Relig)	Coef.(Secu+Relig)	Coef.(Secular)
종교적[1]	1,130.4**	1038.044**	332.769**
세속적[1]	-761.311**	-677.500**	-71.871
성별[2]	192.621**	27.104	-68.275
결혼상태[3]	168.617**	472.464**	165.614**
가구원수	21.6851	-42.766	-18.632
연령	15.8724**	6.796	5.076*
연간가구소득	26.3097**	277.800**	143.780**
고졸[4]	554.594**	13.829	75.249
대졸[4]	991.475**	294.556*	165.845*
대학원재 이상[4]	1,313.74**	346.306	165.738
백인[5]	442.544**	-	-
흑인[5]	513.696**	-	-
보수[6]	271.631**	-28.714	-88.518
진보[6]	127.631**	-44.163	28.3549
Constant	-2,506.22*	-2562.341**	-1631.68**

* *p<.01 *p<.05
1) ref. 중도적 성향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ref. 흑인 외 유색인종 6) ref. 중도

-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종교적 성향은 기부금액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속적 성향은 기부금액에 부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에서 이념성향의 경우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에 비해서는 기부금액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한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 모두 기부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 Secular 기부
- 한국의 Secular 기부금액에 있어 종교적 성향은 이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Secular 기부 영향력 종합(Giving Korea 2012)

	기부참여율(secu)	기부금액(secu)	기부노력(secu)
종교성(연속)[1]	0.169***	113.184***	0.343***
성별[2]	-0.107	-61.612	-0.216
결혼상태[3]	0.323***	156.219***	0.271
가구원수	-0.062	-16.499	-0.042
연령	0.008**	4.790**	0.012*
연간가구소득	0.200**	137.089***	0.025
고졸[4]	-0.004	71.485	0.103
대졸[4]	0.190	160.918*	0.389
대학원재 이상[4]	0.075	184.184	0.203
이념성향(연속)[5]	0.043*	16.230	0.029
종교성×이념성향	0.027*	9.536	0.013
_cons	-2.408***	-1879.625***	-2.172*

*p<.1 **p<.05 *** p<.01
1) 값이 클수록 종교적 성향이 강함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값이 클수록 보다 진보적임

- Secular 기부에 대한 분석
- 종교성과 이념성향, 그리고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상호작용이 기부참여율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이는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보다 진보적일수록 기부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냄. 아울러서 종교적 성향과 이념의 결합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냄
- 그러나, 기부금액과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종교성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부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역시 종교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진보[2)]	세속적 보수[3)]	세속적 진보[4)]
표본에서의 %	19.1%	6.4%	7.3%	10.5%
	7.0%(72)	5.1%(52)	16.6%(170)	15.4%(152)
기부참여율 (Secu+Relig)	91%	91%	63%	72%
	95.8%	98.1%	57.3%	53.8%
기부금액 (Secu+Relig)	$2,367	$2,123	$661	$741
	₩1,260,476	₩1,129,912	₩327,356	₩429,334
기부참여율 (Secu)	71%	72%	55%	69%
	70.8%	84.9%	53.8%	50.6%
기부금액 (Secu)	-	-	-	-
	₩215,310	₩337,829	₩49,611	₩78,389
기부노력 (Secu)	-	-	-	-
	0.66%	0.72%	0.13%	0.16%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수적인 사람
2)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보적인 사람
3)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보수적인 사람
4)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진보적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의 경우 포괄적 기부에 있어 종교적 보수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고, 금액도 가장 높음
- 한국의 경우 포괄적 기부에 있어 종교적 진보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금액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음

❖ **Secular 기부**

- 미국은 Secular 기부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가 유사한 참여율을 보임
- 한국은 Secular 기부에 있어 종교적 진보가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 가장 높은 기부 금액, 가장 높은 기부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Giving Korea 2012)

❖ **한국의 Secular 기부 관련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결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종교적 진보의 기부참여율, 종교적 중도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높음
- 반면 중립적 보수의 기부참여율, 세속적 보수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기부행동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보수보다는 중도와 진보가 기부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남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중도[2)]	종교적 진보[3)]	중립적 보수[4)]	중립적 중도[5)]	중립적 진보[6)]	세속적 보수[7)]	세속적 중도[8)]	세속적 진보[9)]
표본에서의 %	7.0%(72)	7.5%(78)	5.1%(53)	8.7%(90)	9.6%(99)	5.9%(61)	16.6%(171)	24.1%(248)	15.4%(158)
기부참여율 (Secu)	70.8%	76.6%	84.9%	42.2%	62.2%	61.7%	53.8%	51.2%	50.6%
기부금액 (Secu)	₩215,310	₩396,887	₩337,829	₩141,342	₩103,343	₩165,799	₩49,611	₩61,693	₩78,389
기부노력 (Secu)	0.66%	1.23%	0.72%	0.40%	0.22%	0.31%	0.13%	0.18%	0.16%

1)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2)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3)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4)종교단체의 활동에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5)종교단체의 활동에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6)종교단체의 활동에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7)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8)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9)종교단체의 활동에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진보[2)]	세속적 보수[3)]	세속적 진보[4)]
표본에서의 %	19.1%	6.4%	7.3%	10.5%
	7.0%(72)	5.1%(52)	16.6%(170)	15.4%(152)
자원봉사 참여율 (Secu+Relig)	67%	67%	37%	52%
	56.9%	56.6%	17.5%	21.5%
자원봉사시간 (Secu+Relig)	-	-	-	-
	54.13시간	54.09시간	10.15시간	14.09시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	60%	63%	31%	47%
	40.3%	43.4%	17.5%	20.9%
자원봉사시간 (Secu)	-	-	-	-
	26.67시간	28.27시간	10.09시간	13.94시간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수적인 사람
2)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보적인 사람
3)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보수적인 사람
4)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진보적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 Secular + Religious 자원봉사
- 미국은 포괄적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의 참여율이 유사하게 가장 높음. 세속적 진보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나, 세속적 보수의 경우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한국 역시 포괄적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의 참여율과 시간이 유사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Secular 자원봉사
- 미국은 Secular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냄
- 한국 역시 Secular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은 참여율과 시간을 보임
- 즉 두 나라 모두에서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유사한 수준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Giving Korea 2012)

❖ 한국의 Secular 자원봉사 관련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결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종교적 중도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음
- 아울러 세속적 보수의 자원봉사 참여율, 중립적 진보의 순으로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자원봉사행동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자원봉사시간에 있어서는 세속과 중립의 경우에 유사함이 관찰됨
- 보수와 중도 및 진보만을 고려하면, 일관적인 패턴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중도[2)]	종교적 진보[3)]	중립적 보수[4)]	중립적 중도[5)]	중립적 진보[6)]	세속적 보수[7)]	세속적 중도[8)]	세속적 진보[9)]
표본에서의 %	7.0%(72)	7.5%(78)	5.1%(53)	8.7%(90)	9.6%(99)	5.9%(61)	16.6%(171)	24.1%(248)	15.4%(158)
자원봉사 참여율 (Secu)	40.3%	50.0%	43.4%	23.3%	22.2%	29.5%	17.5%	23.4%	20.9%
자원봉사시간 (Secu)	26.67시간	29.19시간	28.27시간	18.90시간	10.85시간	8.75시간	10.09시간	15.55시간	13.94시간

1)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2)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4)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5-6점인 사람
9)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점수가 7-10점인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기부참여와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 결정요인 추정(Full Model)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기부참여에 정적 영향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에 정적 영향
- 직업, 종교,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나눔교육, 사회적 신뢰(비영리집단), 자원봉사 여부도 영향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종교적 보수[1]	0.620**	274.009**	0.899**
종교적 중도[1]	0.314**	208.055***	0.679***
종교적 진보[1]	0.421***	151.484***	0.365**
중립적 보수[1]	-0.031	22.427	0.085
중립적 중도[1]	0.104**	34.176	0.105
중립적 진보[1]	0.079*	32.017	0.089
세속적 중도[1]	0.002	1.378	0.002
세속적 진보[1]	0.009	3.990	0.010
농·염·어업[2]	0.378	55.472	0.391
자영업[2]	0.554**	350.741***	1.065***
판매·영업·서비스직[2]	0.429*	147.513	0.705*
생산·기능·노무직[2]	0.296	107.319	0.438
사무·관리·전문직[2]	0.470**	158.507	0.689*
주부[2]	0.241	129.717	0.614
학생[2]	-0.274	-163.182	-0.424
기독교[3]	-0.550***	-139.679	-0.450
천주교[3]	-0.377	-1.957	0.028
불교[3]	-0.351*	-180.238*	-0.624*
기타 종교[3]	-0.171	-141.032	-0.450
연간가구소득(log)	0.154	91.453*	-0.116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가구원수	-0.079*	-19.215	-0.066
연령	0.010*	6.007**	0.014
성별[4]	-0.107	-63.776	-0.146
결혼상태[5]	0.300**	116.218*	0.106
고졸[6]	-0.060	18.198	-0.031
대재 이상[6]	-0.008	109.441	0.133
중소도시_동[7]	-0.342**	-106.330	-0.196
대도시[7]	-0.315**	-126.723**	-0.315
나눔교육_사회교육	-0.114	58.213	0.156
나눔교육_부모교육	0.017	-52.685	-0.170
나눔교육_실천관철	0.196*	54.307	0.304*
나눔교육_지발실천	0.653***	178.063***	0.446***
나눔교육_역무실천	0.006	21.565	-0.018
나눔대상거리수용도	0.054	42.040**	0.063
사회적신뢰_배영리집단	0.363***	108.481*	0.299
사회적신뢰_이익집단	-0.082	-44.730	-0.053
사회적신뢰_영리정부언론	-0.011	-28.245	0.015
자원봉사 여부[8]	0.616***	305.173***	0.956***
_cons	-2.754***	1681.914***	-1.857

*p<.1 **p<.05 ***p<.01.
4) 남=1 여=0 5) 유배우=1 무배우=0 6) ref. 중소도시 읍면
7) ref. 중졸이하 8) 자원봉사 참여=1, 자원봉사 미참여=0

*p<.1 **p<.05 ***p<.01. 1) ref. 세속적 보수 2) ref. 무직 3) ref. 종교활동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자원봉사 참여율 및 시간 결정요인 추정(Full Model)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에 정적 영향
- 직업, 종교, 가구원수, 연령, 교육수준, 나눔교육, 사회적 신뢰(영리·정부·언론), 기부여부도 영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종교적 보수[1]	0.515*	43.116
종교적 중도[1]	0.247*	20.858
종교적 진보[1]	0.191*	19.407
중립적 보수[1]	0.065	5.893
중립적 중도[1]	0.002	-2.605
중립적 진보[1]	0.048	2.717
세속적 중도[1]	0.015	0.606
세속적 진보[1]	0.012	2.219
농·염·어업[2]	0.934***	102.424**
자영업[2]	0.526*	57.409*
판매·영업·서비스직[2]	0.224	18.208
생산·기능·노무직[2]	0.064	6.457
사무·관리·전문직[2]	0.725**	69.318**
주부[2]	0.533*	56.633*
학생[2]	1.454***	155.584***
기독교[3]	0.040	-0.926
천주교[3]	0.569**	60.372**
불교[3]	-0.197	-12.354
기타 종교[3]	0.668	50.943
연간가구소득(log)	-0.034	2.127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가구원수	0.115**	12.449**
연령	0.011*	1.970***
성별[4]	0.086	-4.683
결혼상태[5]	0.024	-0.176
고졸[6]	0.304*	50.817**
대재 이상[6]	0.158	26.695
중소도시_동[7]	-0.212	-11.149
대도시[7]	-0.172	7.142
나눔교육_사회교육	0.010	-8.109
나눔교육_부모교육	0.132	31.961**
나눔교육_실천관철	-0.230*	-28.528**
나눔교육_지발실천	0.469***	52.521***
나눔교육_역무실천	0.128	7.873
나눔대상거리수용도	-0.049	-9.702*
사회적신뢰_배영리집단	0.066	14.344
사회적신뢰_이익집단	-0.006	-2.120
사회적신뢰_영리정부언론	0.189*	22.924*
기부여부[8]	0.610***	68.206***
_cons	-3.249***	-481.326***

*p<.1 **p<.05 ***p<.01.
4) 남=1 여=0 5) 유배우=1 무배우=0 6) ref. 중소도시 읍면
7) ref. 중졸이하 8) 자원봉사 참여=1, 자원봉사 미참여=0

Ⅳ. 요약 및 결론

Ⅳ.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2011년 현재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은 2009년에 비해 상승하였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그러나, **기부에 있어 중간층인 소득수준 6분위의 하락세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최상층인 10분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소득수준 하위층인 2분위와 4분위의 상승, 6분위의 하락과 10분위의 상승으로 **U자형의 모습**이 관찰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은 40대와 50대가 높고, 기부노력은 40대와 60대가 높음
  - 자원봉사 참여율은 20대와 50대가, 자원봉사 시간은 50대와 60대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별 기부와 자원봉사는 일관적인지 않은 결과가 관찰됨
  - **기부참여율과 기부노력에 있어 중졸이하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대재이상이 높음
  -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재이상이, 시간에 있어서는 고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은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기부참여율에 있어 천주교와 기독교는 하락세, 불교와 무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모두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자영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47

- 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 현재 나눔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첫째, 2009년과 비교하여 기부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사라져 우리사회의 **나눔에의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가구소득**은 **기부금액**에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연령**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2009년과 비교하여 기부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등 우리사회 **나눔에의 참여가 보편화되는 경향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교육수준**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금액과 자원봉사 시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종교**는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 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국민의 적극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직업**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부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화이트칼라, 학생의** 적극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48

- Brooks의 연구(2006, 미국 SCCBS 2000 data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종교성과 이념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첫째,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세속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비해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시간**이 모두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종교적 성향이 나눔행동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기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나눔 행동에 보다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음
  - 둘째,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종교성이 포괄적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념성향**의 경우 **미국**에서는 **포괄적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가졌으나, 한국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 **한국의 Secular 기부참여율**에는 **종교성과 이념성향이, 기부금액**에는 **종교성**이 유의한 영향을 가졌음
    - 한국의 Secular 기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이념성향이 보다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종교적 성향과 진보적 이념성향이 결합될 때, 즉 이 둘이 **동시에 강화될수록**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49

- 셋째, 종교성 및 이념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가 유사한 참여율을 보이나, **한국은 종교적 진보**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종교적 중도**가 가장 높은 **기부금액과 기부노력**을 행하고 있음
  - 종교성에 있어 중립적 성향을, 이념성향에 있어 중도적 성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Secular 기부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진보의 기부참여율, 종교적 중도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보수보다는 **중도와 진보**가 기부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관찰됨
- 넷째, 종교성 및 이념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종교적 진보가, 한국은 종교적 중도**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종교성에 있어 중립적 성향을, 이념성향에 있어 중도적 성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Secular 자원봉사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중도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이나, 이념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50

- Brooks의 연구모형과 다른 요인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한국 국민들의 나눔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전반적으로 (세속적 보수에 비해)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중립적 중도/진보)인 경우, **자영업**/서비스직/**화이트칼라**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시골지역인 경우, 지인의 나눔을 관찰한 경우,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비영리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부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한편, 불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덜 적극적임)
  - 전반적으로 (세속적 보수에 비해)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인 경우, 농림어업/**자영업/화이트칼라**/주부/학생인 경우, 천주교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인 경우,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영리·정부·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51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기독교/천주교를 갖는 국민, 자영업/화이트칼라인 국민**이 이웃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나눔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중간소득계층의 기부행동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의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시민** 역시 이웃을 위한 **나눔에서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관찰됨
  -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나눔 참여에 대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이 미약해 지는 양상인데, 이는 **우리사회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의 참여가 이런 특성들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즉 나눔의 보편화가 확산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 Brooks의 연구(2006)결과와 비교해 볼 때,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성과 이념성향이 나눔 행동과 연관성**을 보이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종교적 보수 및 종교적 진보가, 한국에서는 종교적 중도 및 종교적 진보**가 나눔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음이 관찰됨. 종교성이 사회를 위한 나눔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됨
- 종합적인 모형 추정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인 경우, 자영업/화이트칼라인 경우, 높은 연령,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다른 형태의 나눔에 참여하는 경우 나눔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됨
- 이웃의 돌봄은 한국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길 바람

52

감사합니다.

SESSION 2

기부문화발전의 첫걸음, 국제비교지수로서의 Giving Index 발전방안

1. 미국의 기부행태(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연구방법과 사례발표
Amir D. Hayat(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2.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윤연옥(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 미국의 기부행태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연구방법과 사례발표

발표자 | **Amir D.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Amir D.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통계학자

Amir D. Hayat는 인디애나 대학 기부문화연구소의 통계학자로 미시간대학에서 수입역동성(Income Dynamics)과 자선(Philanthropy)에 관한 패널연구의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경험과 함께 인디애나대학과 퍼듀대학의 학제간 연구팀의 멤버로 활약하였다. Amir D. Hayat는 인디애나 대학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자선 및 경제를 주제로 양적연구 및 조사설계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선적 기부의 차이점' 이라는 주제로 연구논문(공동연구)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디애나 대학 기부문화연구소의 여성자선학회와 함께 다양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기빙 USA에서 기부참여연구를 진행하였다. Amir D. Hayat는 경제학과 응용통계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 PURDUE UNIVERSITY • INDIANAPOLIS

미국의 기부행태 연구방법과 사례발표: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중심으로

Amir D. Hayat, MS., MA.
통계학자 (공동연구자)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Una O. Osili, Ph.D.
연구소장(공동연구자)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October 17, 2012

1

기부문화연구센터 소개

- **미션:**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 **기본정신:** 연구는 실제에 영향을 미치고 , 실제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 **5가지 핵심 프로그램 :**
  - 연구
  - 학위 과정
  - 모금학교 (TFRS)
  - 홍보
  - 기부문화 개선: 여성 자선 학회(WPI), 레이크 신앙과 기부 학회(LIFG)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 PURDUE UNIVERSITY • INDIANAPOLIS

2

기부문화연구센터의 연구 활동

- **주요 연구**
  -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 연구 (COPPS)**
  - Giving USA
  - 고액 기부자 리스트 (The Million Dollar List)
  - 고액 기부 연구
  - 재난 기부
  - 여성과 기부문화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 PURDUE UNIVERSITY • INDIANAPOLIS

3

패널 연구소개

- 횡단 연구 : 단일 시점에서 특정 집단들을 대상으로 조사
- 패널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 집단의 변화 관찰, 패널 연구에도 몇몇 특정 시기에 대한 횡단 연구 동반
- 패널 연구의 장점
  -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자선적 행동과의 연결성 관찰
  - 패널 회귀분석 방법 : 성별 차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 없이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고정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4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연구 (COPPS)

- 미시간대학교의 소득 역동 패널 연구(PSID)와 공동 연구 진행
- 소득 역동 패널 연구(PSID) : 세계 최장기, 최고 규모의 패널 연구
  - 격년으로 진행되는 면접조사
  - 1968년 5,000명의 미국인 가구들을 대상 추적 조사로 시작
  - 2011년 현재 9,000명 이상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진행
- 계보 패널 (Genealogical panel)
  -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 새로운 가구가 자동적으로 발생.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구는 형성된 이후 조사
- 기부 관련 질문은 2001년에 처음 추가

5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연구 (COPPS)

- COPPS 는 1997년/ 1999년 이민 가구 표본이 추가됨과 더불어, 더욱더 미국 인구조사와 유사
- 설문항목 : 소득, 부, 건강, 가계 지출, 가족 역동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들 에 관한 상세한 질문들로 구성
- PSID 전체 조사의 주요 보충 자료
  - *아동 발달* 1997, 2002, 2007
  -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2005년부터 현재까지
- 막대한 조사 비용: 최초 COPPS 조사 비용 최대 1백만달러 소요
- 현재 COPPS 조사 비용 : 7십만달러 (분석비용 제외)

6

COPPS/PSID: 연구 진보

- 소득 역동 (Income dynamics)
- 빈곤 역동 (Poverty dynamics)
- 세대간 연구
- 생애 초기의 사건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 사회경제적 불평등
-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
- 아동 발달
- 정부 프로그램 참여
- 부, 저축
- 은퇴, 노화
- 건강 불평등
- 결혼, 출산력, 이주
- 가족 구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자선 기부 (*COPPS*)

7

COPPS를 통한 기부문화 연구의 강점

- 연간 역동 (Year-to-year dynamics)
- 원거리 역동 (Long-range dynamics)
  - 먼 과거의 사건이 현재 기부에 미치는 영향
  - 세대간 역동 (Generation-to-generation dynamics)
- 조세 정책 분석
  - 다양한 기부 대상(목적): 기본적 욕구, 종교 등
  - 광범위한 취지: 부, 연령
  - 비공제 항목들(Non-itemizers) 도 포함 (항목화 역동; dynamics in itemizing)

8

기타 주요 패널 연구: GINPS

- "네덜란드의 기부에 대한 패널 연구(GINPS)" -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자선 연구센터 (The Center for Philanthropic Studies at VU University Amsterdam)
- 200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 1300명 이상의 네덜란드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패널 연구
- 설문항목 : 자선 기부, 자원봉사, 인구통계학적 정보, 자선 행위에 대한 태도, 공감, 이타심 및 공감적 관심에 대한 심리적 구성을 측정하는 질문 포함
- 많은 질문들이 COPPS의 질문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Geven In Nederland. The Center on Philanthropic Studies at VU University Amsterdam. Available http://www.giving.nl/

9

조사에 제시된 기부 대상

COPPS: 11개 기부 대상

- 종교
- 종합 자선단체 (United Way, 천주교 자선단체)
- 기본적 필요 (음식/피난처)
- 건강 보건
- 교육
-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
- 예술/문화
- 이웃/공동체
- 환경
- 국제 구호/ 세계 평화
- 기타/ 개방형 기부

GINPS: 11개 기부 대상

- 종교
- 건강 보건
- 국제 구호 및 인권 단체
- 환경 보호
- 자연 보호
- 동물의 권리
- 교육 및 연구
- 문화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공공 이익 및 사회적 혜택
- 기타

Geven In Nederland. The Center on Philanthropic Studies at VU University Amsterdam. Available http://www.giving.nl/

10

조사에 제시된 자원봉사활동 대상

COPPS (7가지 범주)

- 자녀의 학교 / 청소년 단체
- 종교 단체를 통한 활동
- 노인 지원
- 환자 지원
- 빈곤자 (기본적 욕구) 원조
-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 (정치적 지지활동 포함)
- 기타 (개방형)

GINPS (18가지 범주)

- 스포츠,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문화와 예술, 지역사회사업, 지역주민 생활조직
- 환경 보호, 자연 보존, 동물 복지, 정치, 노동조합
- 난민 지원, 종교, 소수민족 지원 단체
- 레크리에이션, 개발 원조, 기타

Geven In Nederland. The Center on Philanthropic Studies at VU University Amsterdam. Available http:// www.giving.nl/

11

국가별 기부문화 비교 패널 연구

-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 조사 시 질문이 유사한 경우 결과도 역시 유사
- COPPS와 GINPS의 질문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 두 조사는 유사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안(자료)로 사용
- 두 데이터 중 하나를 활용한 학문적 연구는 종종 다른 나라의 패널 연구 결과 도출
  - Wu, K., & Brown, M.S. (2008) 2002년 경기 침체기 동안, 교육에 대한 자선 기부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of Educational Advancement 9* (4): 196-219.
    - COPPS의 데이터 이용, 결과는 GINPS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유사
- 중국도 자국의 기부문화 연구를 위해 COPPS 질문지 사용에 대한 상당한 관심 표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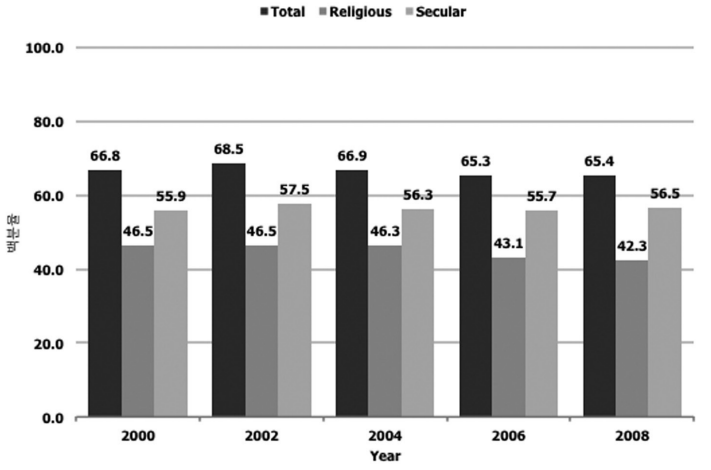
COPPS: 조사에 제시된 주요 기부관련 질문_예제 (2011)

- "2011년 한 해 동안,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 중 누구라도 25달러 이상의 현금, 자산, 혹은 재산이나 물품을 종교 단체 혹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였습니까?"
  -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11개의 기부 대상 중 어느 곳에 기부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부 했는 지에 대해 응답
- "이제 귀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비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기관을 통하여 행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관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까?
  -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7개의 자원봉사활동 대상 중 어느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는 지에 대해 응답

13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 연구: 연도별 기부자 동향

2000년-2008년까지 연도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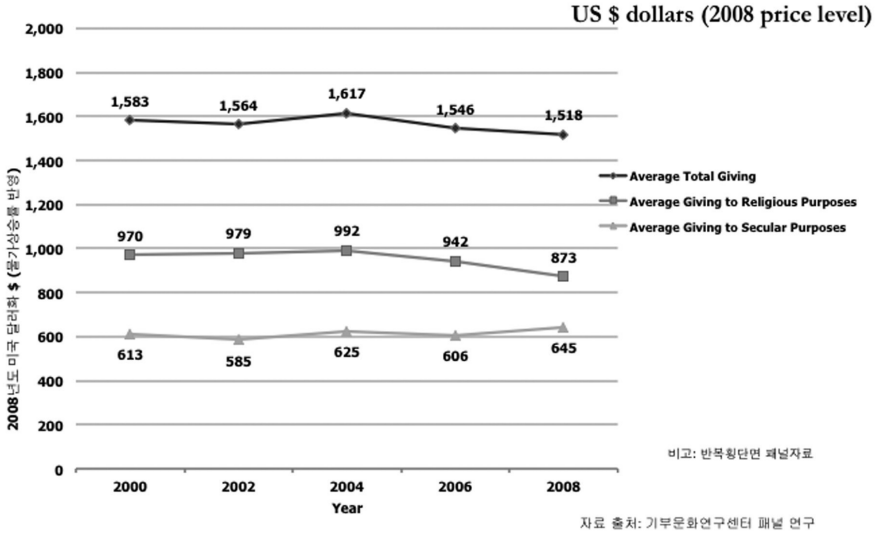


비고: 반목횡단면 패널자료

자료 출처: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 연구

15

2000년-2008년 연도별 기부금액



비고: 반목횡단면 패널자료

자료 출처: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 연구

16

기부자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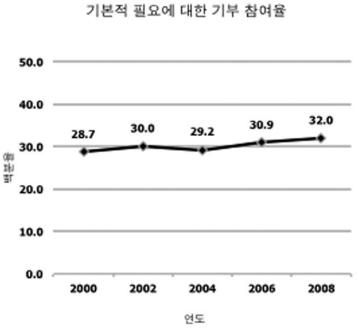
평균 소득과 부에 따른 기부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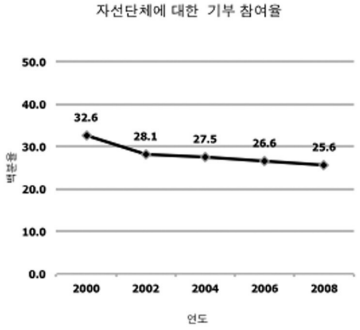
기부자 유형 (평균)	지속적인 (3년)	반복적인 (2년)	비정기적인 (1년)	비기부자
소득	$89,441	$71,155	$43,205	$29,229
부 (주택담보 제외)	$344,188	$217,031	$116,625	$43,111

자료 출처: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 연구

17

기부 대상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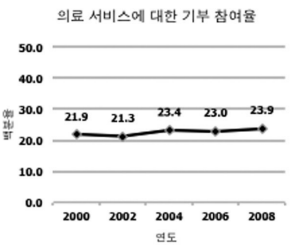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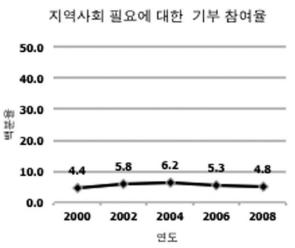


비고: 반목횡단면 패널자료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기부 대상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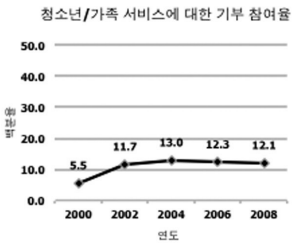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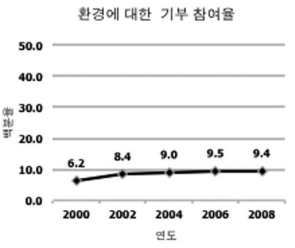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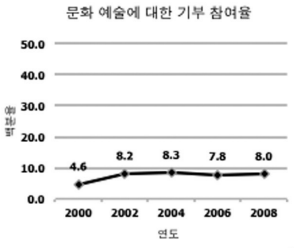
비고: 반목횡단면 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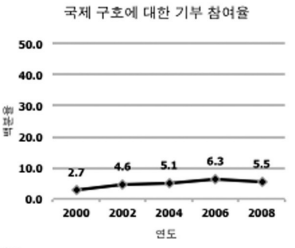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기부 대상별 기부 참여율









비고: 반목횡단면 패널자료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COPPS를 이용한 최근 연구 예비조사 결과

미국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에서 자선적 기부에 대한 성별 차이

- 연구자:
  - Eleanor Brown (포모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Debra Mesch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교수, 여성자선학회 연구소장)
  - Amir D. Hayat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미국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에서 자선적 기부에 대한 성별 차이

- 미국에서는, 노년 여성들이 "백레이디신드롬(Bag Lady Syndrome; 역자주: 백레이디는 여성 노숙인을 가리키며,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시장 바구니에 넣고 유랑)"을 앓고 있어 비슷한 상황의 남성들보다 자선활동에 인색해지고 있다는 의견 제시

- 연구 계획:
  - 성별과 인종/민족, 연령 그리고 연금 자산에 따른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노년층의 자선 기부 조사

23

데이터

- PSID 및 기부문화연구센터 패널조사 (COPPS)
- 남성 및 여성 한부모 가구
  - 2003 (n= 1,669)
  - 2005 (n= 1,523)
  - 2007 (n= 1,571)
- 베이비부머 세대 및 이전 세대
  - 1964년 출생자 또는 이전 출생자
- 백인, 흑인, 중남미계 미국인

24

종속 변수

- 기부 가능성
  -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 기부 총액
  - 토빅 회귀분석 (Tobit regression)

25

독립 변수

- 성별, 연령, 인종/민족에 따른 기대 수명
- 소득
  - 세대주의 근로 소득
  - 세대주의 근로 소득 외 소득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소득
- 연금 자산
- 교육
- 가구당 자녀수
- 고용 상태
- 세대주의 건강
- 주거 지역
- 결혼 여부

26

기대 수명에 따른 연금 자산

- 2007년 기준, 65세의 기대 수명 잔여 연수:
  - 중남미계 미국인
    - 남자 19.2; 여자 21.9
  - 백인 (중남미계 아닌)
    - 남자 17.2; 여자 19.8
  - 흑인 (중남미계 아닌)
    - 남자 15.1; 여자 18.5

27

예비조사 결과: 자선 기부의 가능성

- 자선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통제한 후:
  - 여성의 자선 기부 가능성이, 남성의 자선 기부 가능성에 비해, 2005년에는 50%, 2007년에는 81% 더 크게 나타남. 2003년에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일수록 고학력자보다 덜 기부하는 것
  - 건강 상태가 좋고 세대주의 총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선 기부할 가능성 높아짐

28

예비조사 결과: 자선 기부 금액

- 자선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통제한 후 :
  -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05년에는 61%, 2007년에는 66% 더 많은 금액 기부
  - 배우자와의 사별은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낮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학력이 높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 상태가 좋고 총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29

어린이의 기부와 지역사회

- 연구 질문
  - 어린이의 자선적 행동에 공동체/지역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연구자
  - Una Osili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교수, 연구소장)
  - Cagla Okten (빌켄트대학교 교수)
  - Amir D. Hayat (인디애나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30

어린이의 기부와 지역사회

- *PSID/COPPS: 아동 발달 보충 자료* 2002, 2007
- 기부관련 질문
  - 종속 변수:
    - "작년 한 해 동안 -단돈 몇 백 원이라도- 교회나 유대교 회당, 또는 귀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선 단체에 귀하가 가진 돈의 일부를 기부하였습니까?" (예/아니오)
      - 8세 이상
  - 어린이들은 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질문 받음
- 부모를 위한 기부관련 질문
  - "귀하는 자녀와 –단돈 몇 백 원이라도- 교회나 유대교 회당, 또는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예/아니오)

31

공동체/지역사회 변수

- 카운티 (County)
  - 미국의 각 주 내 지리학적/행정적 분할 구역
  - 인디애나 주에는 92개의 카운티가 있음
- 지역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
  - 어린이가 거주하는 카운티 내의 빈곤율
  - 어린이가 거주하는 카운티 내의 1인당 신고된 범죄수
  - 어린이가 거주하는 카운티 내의 비(非) 백인 비율

32

기타 독립 변수

- 부모가 자녀에게 자선 기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지 여부
- 부모가 기부하는지에 대한 여부
- 가족들이 모두 무사한 지 여부
- 여성이 세대주인 지 여부
- 학업 기간 도중 가족의 이사 여부
- 가족의 소득, 어린이의 소득, 어린이의 저축예금 (자연대수로 표시된)
- 어린이의 읽기 및 수학 점수
- 부모의 "온정"에 대한 심리학적 척도

33

예비 조사 샘플의 자선활동

- 아이들의 **71%** 가 기부참여
- 부모의 **72%**가 자녀와 기부에 대해 이야기
- 부모의 **68%**가 기부참여

34

예비조사주요 결과: 어린이의 자선 기부 가능성

- "고정 효과" 모형
  - 2002년과 2007년에 87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진행
- 어린이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지역사회 변수 포함)을 통제한 이후:
  - 자녀에게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모를 둔 경우 어린이가 기부할 확률이 0.12 더 높게 나타남

35

요약

감사합니다!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 PURDUE UNIVERSITY • INDIANAPOLIS

Amir D. Hayat, MS., MA.
Statistician
adhayat@iupui.edu
317-278-8962

Una O. Osili, Ph.D.
Director of Research
uosili@iupui.edu
317-278-8908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www.philanthropy.iupui.edu

37

2.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발표자 | **윤연옥**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

윤연옥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

통계개발원은 2006년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로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통계개발원은 원장 아래 3개실(연구기획실, 조사연구실, 동향분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환경 및 정책 현안 통계 개선·개발, 조사기법 등 통계작성 방법 연구를 통한 통계 개선, 인구·사회의 동향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개발원은 통계청 뿐 아니라 타 통계작성기관의 요청 과제를 수용하여 우리나라 국가통계 연구 및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연옥실장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통계학박사를 수여한 후 통계청에 입사하여 표본, 행정자료 활용 등 각종 통계분야에서 약 2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향분석실에서 나눔, 삶의 질, 노동, 인구, 통계조사표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나눔통계 현황

2012. 10. 17.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윤연옥 실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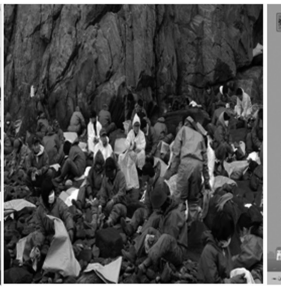
나눔의 개념 및 분석틀
국내 나눔통계 현황
해외 나눔통계 현황
제언

나눔이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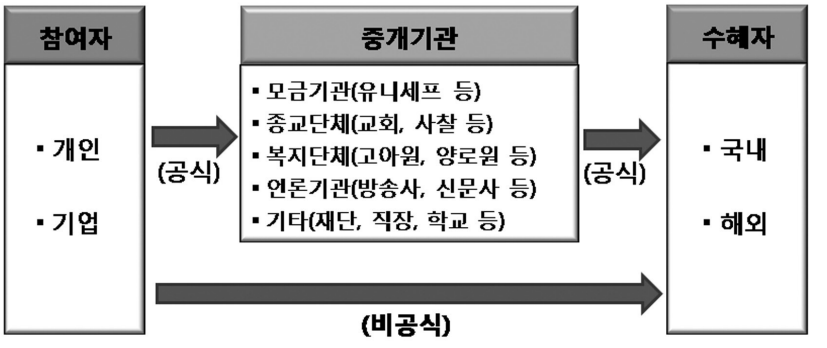
Payton & Moody(2008), 『Understanding philanthropy』



3/39

나눔의 개념적 분석틀

- 구성: 참여자, 중개기관, 수혜자
- 내용: 기부[현금, 물품 등], 자원봉사[시간, 노동력 등] 등
- 방법: 공식[formal], 비공식[Informal]



4/39

나눔통계 작성

❑ 대상과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구분

대상	• 참여자: 개인, 기업 • 중개기관
자료 수집	• 행정(등록) 자료 • 설문조사 자료

5/39

6/39

국내 나눔통계 현황

❑ 참여자 대상 나눔통계 현황

영역	작성 기관	자료 수집	통계(조사)명
기부	국세청	행정 자료	▪『국세통계연보』
기부, 자원 봉사	통계청	설문 조사	▪ 사회조사
	아름다운 재단		▪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Giving Index)
	한국자원봉사문화		▪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
자원 봉사	보건복지부	행정 자료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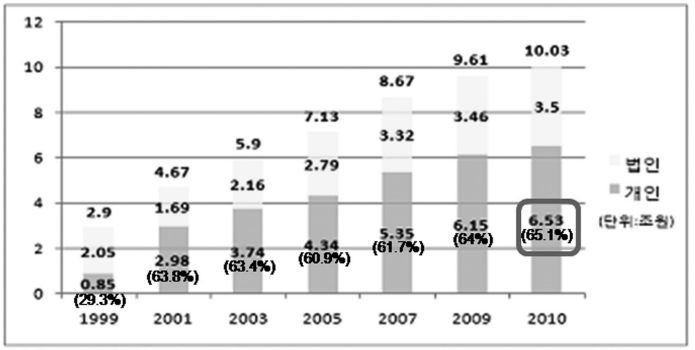
※ 기타: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통계청), 한국복지패널조사(보건사회연구원),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아름다운 재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39

국내: 기부통계

❑ 행정[등록]자료 기반 기부통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 2010년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6.53조원(65.1%)임

<그림>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 연도)

8/39

국내: 기부통계

❑ 설문조사 기반 기부통계

	사회조사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작성	통계청	아름다운 재단	한국자원봉사문화
대상	약 38,000명(13세 이상)	1,035명(19세 이상)	1,500명(20세 이상)
주기	2년	2년	3년
방법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기부 참여율	**('11년) 36.4%**	**('10년) 55.7%** [92.2%][1)]	**('11년) 48.9%** [63.9%][2)]

주 1)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보시)을 포함한 포괄기부 참여율 (↔순수기부)

2) 종교적 헌금(시주)을 포함한 기부 참여율 (↔자선기부)

9/39

국내: 기부통계

❑ 사회조사

– 나눔문화(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항목 수 증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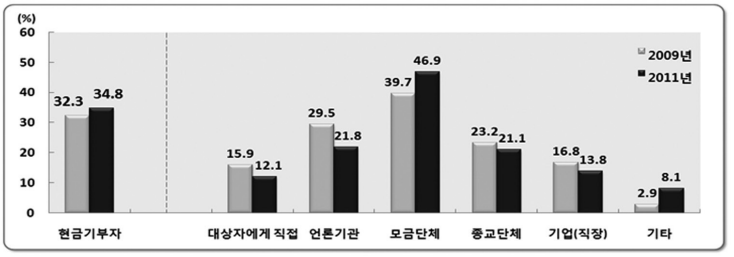
구분		항목명
기부 (11개)	기존	기부여부
	신규	현금기부, 현금정기기부, 물품기부, 물품정기기부 기부이유, 기부희망분야, 기부대상 인지경로 향후 기부의사, 유산기부의사, 기부문화 확산
자원 봉사 (5개)	기존	자원봉사활동여부,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신규	정기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10/39

국내: 기부통계

□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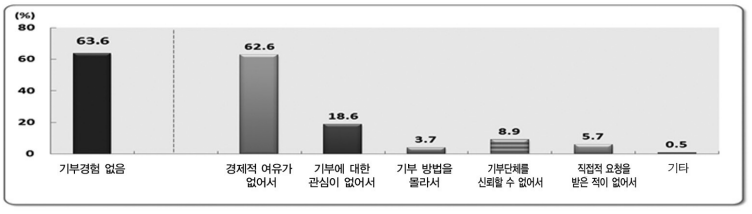
- 현금기부율: 11년 34.8% (09년 32.3% 보다 증가)
- 기부경로는 주로 모금단체를 많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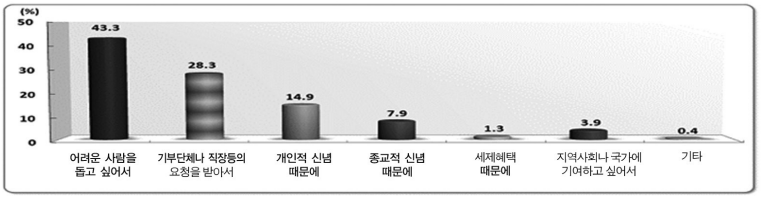
11/39

국내: 기부통계

- 기부경험(사회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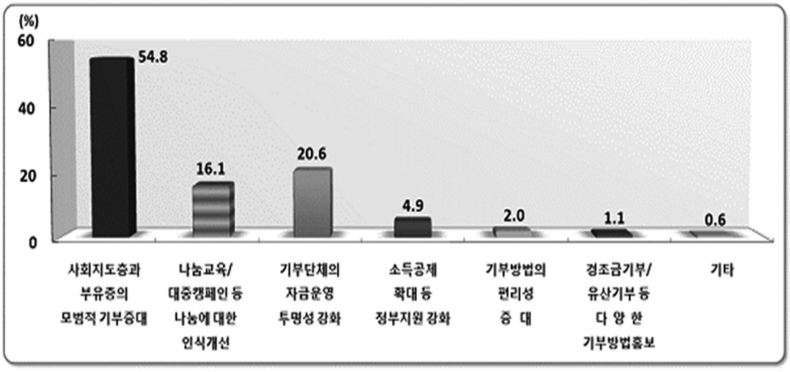
- 기부하는 이유(사회조사 2011)



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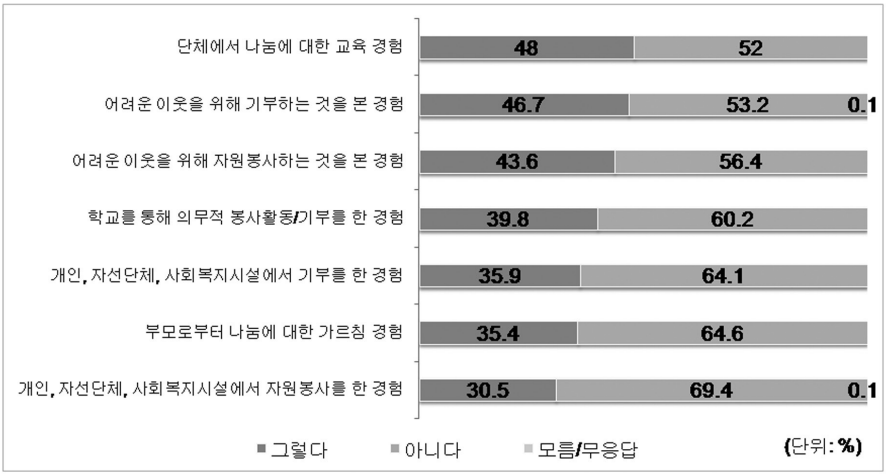
국내: 기부통계

– 기부문화 확산(사회조사 2011)



국내: 기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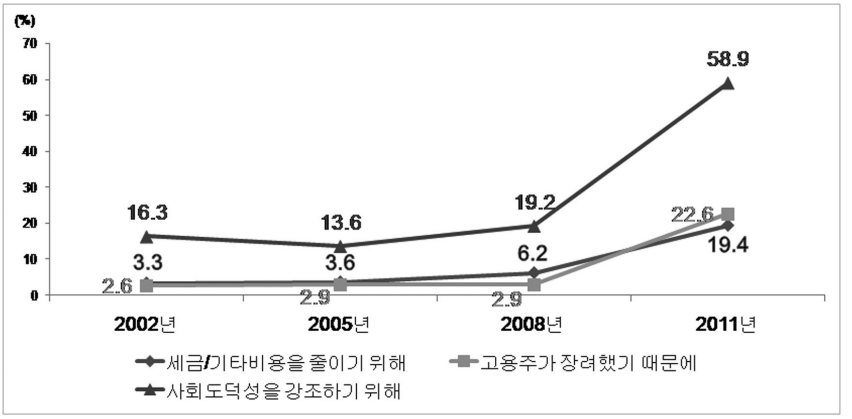
❑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2010) 결과
– 나눔 교육 경험



국내: 기부통계

❑ 전국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2011) 결과

– 기부참여의 개인적 동기 변화 추이(2011, 2008, 2005, 2002년)



15/39

국내 나눔통계 현황

❑ 참여자 대상 나눔 통계 현황

영역	작성 기관	자료 수집	통계(조사)명
기부	국세청	행정 자료	▪『국세통계연보』
기부,자원봉사	통계청	설문 조사	▪ 사회조사
	아름다운 재단		▪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Giving Index)
	한국자원봉사문화		▪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
자원봉사	보건복지부	행정 자료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센터 현황

※ 기타: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통계청), 한국복지패널조사(보건사회연구원),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아름다운 재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39

국내: 자원봉사통계

❑ 행정(등록)자료 기반 통계 비교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자원봉사센터 현황
소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기	1년	
방법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DB)에 등록된 자원봉사실적 집계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조사 및 1365포털시스템의 자료 집계
결과 ('11년)	등록 자원봉사자 수: **4,921천명** 활동 자원봉사자 수 - 연간 1회 이상: **1,531천명** - 매월 1회 이상: **25천명**	등록 자원봉사자 수: **7,035천명** 활동 자원봉사자 수 - 연간 1회 이상: **1,743천명** - 매월 1회 이상: **323천명**
제공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자원봉사센터 현황」

17/39

국내: 자원봉사통계

❑ 설문조사 기반 통계 비교

	사회조사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작성	통계청	아름다운 재단	한국자원봉사문화
대상	약 38,000명(13세 이상)	1,035명(19세 이상)	1,500명(20세 이상)
주기	2년	2년	3년
방법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자원봉사 참여율	**('11년) 19.8%**	**('10년) 23.9%** [31.5%][1)]	**('11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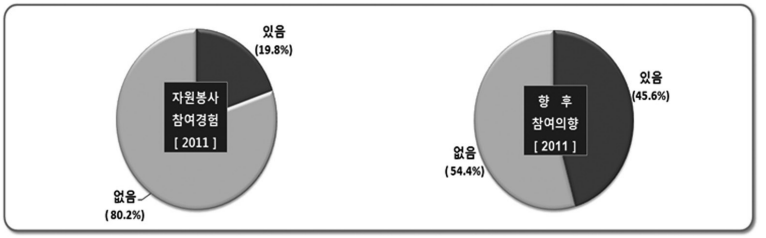
주 1) 종교단체 내의 활동(주일학교 교사, 법사 등)을 포함한 포괄자원봉사 참여율 (↔순수자원봉사)

18/39

국내: 자원봉사통계

□ 사회조사(2011)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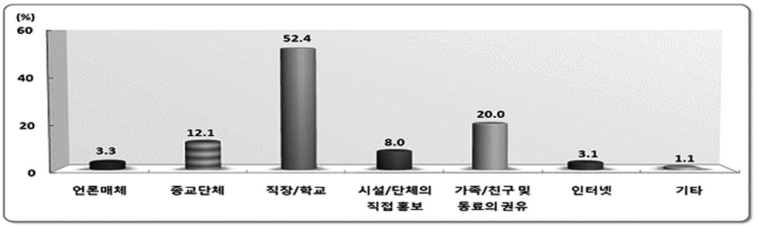
–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참여의향(향후 2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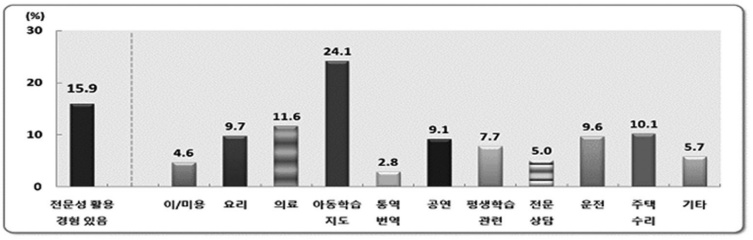
19/39

국내: 자원봉사통계

–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사회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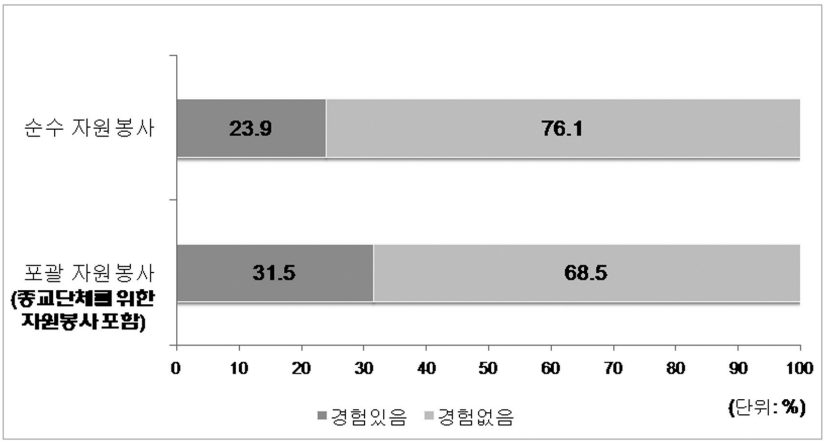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사회조사, 2011)



20/39

국내: 자원봉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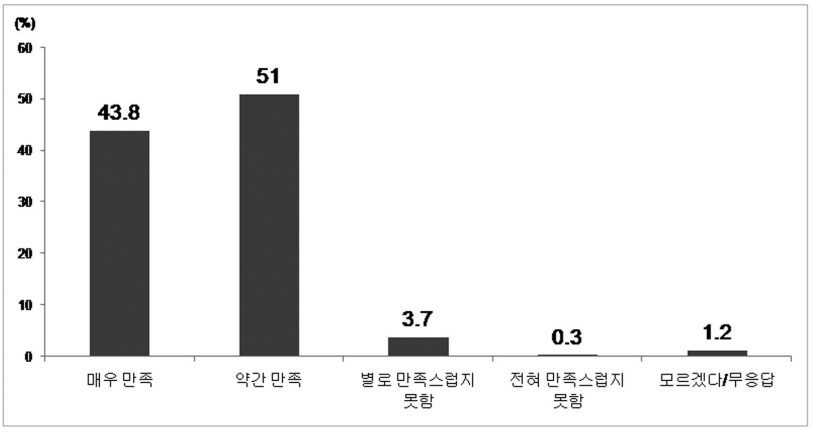
❑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2010) 결과
– 자원봉사 참여율



21/39

국내: 자원봉사통계

❑ 전국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2011) 결과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22/39

해외: 기부통계

□ 기부통계 비교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보고서	Giving USA	Giving UK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Giving Australia
활용 조사	국세청 자료, Foundation Center 자료, COPPS(PSID 부가조사)	Omnibus Survey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 Participating	Individual and Household Survey
조사/ 작성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	ONS/ CAF, NCVO	Statistics Canada/ Imagine Canada, Statistics Canada	CACOM/ ACOSS
대상	-	3,364명(16세 이상)	약 20,000명(15세 이상)	6,209명(18세 이상)
주기	1년		3년	(2005)
기부 참여율	-	('11년) 58%	('10년) 84%	('05년) 87%

24/39

미국: 기부통계

- Giving USA
  - [행정자료] 국세청의 기부금 공제 자료,
    [설문조사] Foundation Center*의 자료, COPPS(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의 결과를 활용

* 재단의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재단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며,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current outlook」를 매년 작성하여 재단의 기부액 추정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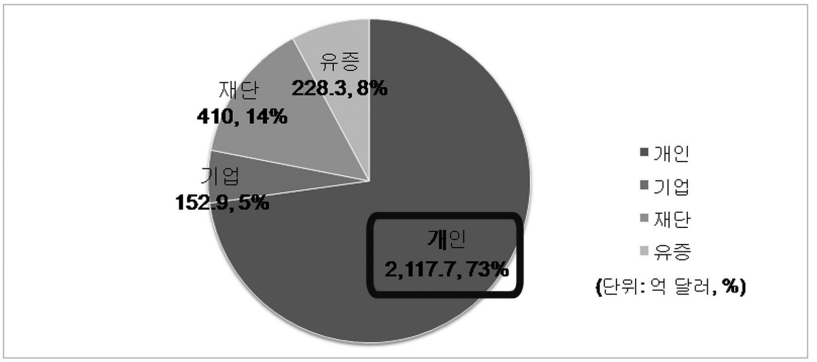
**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단위의 기부에 대한 조사로, 미시건대학 사회조사연구소에서 1968년부터 동일한 8,000 가구를 대상으로한 패널조사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부가조사로써 실시함

- 조사/작성 :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Center on Philanthropy)
- 주기: 1년

미국: 기부통계

- 총 기부금액: ('10년) 2,908.9억 달러
  -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은 2%를 차지함

<그림> 기부자별 기부금액



출처: Giving USA(2011)

영국: 기부통계

- Giving UK
  - 통계조사: Omnibus Survey(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작성: 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전국민간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자선단체의 역량증진과 기부활성화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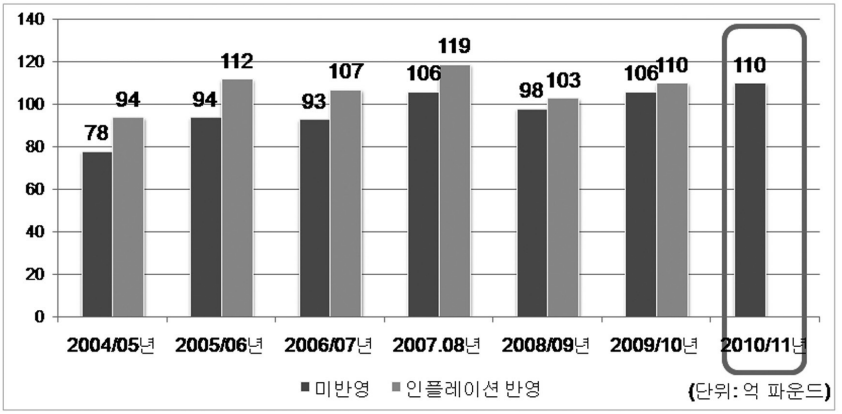
- 대상/주기: 3,364명(16세 이상) / 1년
- 기부참여율: ('11년) 58% (단, 회상기간이 지난 4주)

27/39

영국: 기부통계

- 총 기부금액: ('10년) 110억 파운드

<표> 총 기부금액



출처: Giving UK (2011)

28/39

캐나다: 기부통계

-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 통계조사: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 Participating (Statistics Canada)
- 작성 : Imagine Canada*, Statistics Canada
  * 자선 및 비영리단체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
- 대상/주기: 약 20,000명(15세 이상) / 3년

캐나다: 기부통계

- 기부자 수, 기부참여율, 총 기부금액
  - ('10년) 23,789천명, 84%, 10,609,533천 달러

<표> 기부자 수, 기부참여율, 총 기부금액

(단위: 천명, %, 천 달러)

	2007	2010
총 인구 수	27069	28,285
기부자 수	27,069	23,789
기부참여율	84	84
총 기부금액	10,429,330	10,609,533

출처: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Table Report(2010)

호주: 기부통계

❑ Giving Australia
– 통계조사: Individual and Household Survey
(시드니기술대학교, 호주 지역사회 단체 및 관리센터(CACOM))

❑ 작성 :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

* 정부 부처인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여러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작성

❑ 대상/주기: 6,209명(18세 이상) / 2005년

❑ 기부참여율, 총 기부금액: ('05년) 87%, 77억 달러

31/39

해외: 자원봉사통계

❑ 자원봉사 통계 비교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보고서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Survey: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Voluntary Work, Australia
활용자료	Current Population Survey 부가조사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 Participating	General Social Survey
조사/작성	상무부, 센서스국/노동부, 노동통계국	NatCen[1]/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Statistics Canada/Imagine Canada, Statistics Canad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대상	약60,000가구(16세 이상)	8,768명(16세 이상)	약20,000명(15세 이상)	13,375가구(18세 이상)
주기	1년	2년	3년	4년
자원봉사 참여율	('11년) 26.8%	('08/09년) 41%	('10년) 47%	('06년) 34%

주 1) 사회조사 전문 비영리기관(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32/39

국제 비교통계

❑ World Giving Index
– 통계조사: Worldview World Poll(갤럽)

❑ 작성: 영국, 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 대상/주기: 153개국, 약1,000명(15세 이상) / 1년

❑ 조사항목(3개)

1. 기부: "지난 한 달 동안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2. 자원봉사: "지난 한 달 동안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3. 개인적 도움: "지난 한 달 동안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국제 비교통계

❑ 한국 전체 순위: ('10년) 81위에서 ('11년) 57위로 상승
– ('10년) 기부참여율: 27%/ 자원봉사참여율: 22%
– ('11년) 기부참여율: 34%/ 자원봉사참여율: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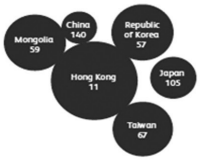


Table 6: World Giving Index ranking, percentage scores and percentage change for the countries in Eastern Asia, 2011

	2011 World Giving Index ranking	2011 World Giving Index % score	% giving money	% volunteering time	% helping a stranger	2010 World Giving Index ranking	% point score change
Hong Kong	11	49	73	16	59	18	5
Republic of Korea	57	35	34	27	44	81	6
Mongolia	59	35	36	28	40	67	3
Taiwan	67	34	39	19	44	72	3
Japan	105	26	24	28	26	119	4
China	140	20	14	4	41	147	5

출처 : World Giving Index(2011)

국제 비교통계

❑ World Giving Index 상위 10개국

2011 World Giving Index ranking	Country	2011 World Giving Index % score	2010 World Giving Index ranking	2010 World Giving Index % score
1	United States of America	60	5	55
2	Ireland	59	3	56
3	Australia	58	1	57
4	New Zealand	57	1	57
5	United Kingdom	57	8	53
6	Netherlands	54	7	54
7	Canada	54	3	56
8	Sri Lanka	51	8	53
9	Thailand	51	25	42
1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50	11	50

출처 : World Giving Index(2011)

35/39

36/39

제 언

❑ 최근 나눔의 경제사회적 차원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 증대

❑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나눔통계 개선/개발

▶ 참여자(개인, 기업) 뿐만 아니라 나눔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인 중개기관 대상의 나눔통계 작성 필요

- 중개단체 상당수가 집행실적(모금액, 사용내용)을 비공개

▶ 나눔통계에 대한 기준, 포괄범위 정비

- 종교적 나눔, 학생봉사활동, 비공식도움 등에 대한 포괄범위 정비

▶ 나눔 총량 추계의 신뢰성 제고

- 기부총량과 자원봉사총량에 대한 통계의 신뢰성 의문

➡ 정부와 민간기관의 공동 노력 필요

37/39

제 언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필요

-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 유도
-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 (특히 청소년기 나눔교육 확대)
- 기부받는 단체(중개기관)의 재정 및 운영 등의 투명성 강화
- 나눔을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38/39

감사합니다 !!

SESSION 3

부 록

2011 Giving Index of Korea 조사결과보고서

2011Giving Index of Korea 설문지

부 록1

2011 Giving Index of Korea
조사결과보고서

제 1 장. 조사개요 119
1. 조사설계 121
2. 조사내용 122
3. 응답자 구성 123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25

제 3 장. 조사결과 139

Ⅰ. 자원봉사 실태 141
1. 자원봉사 참여 여부 141
2. 자원봉사 활동처 143
3. 자원봉사 시간 145
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147
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및 활동 방법 149
6.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151

Ⅱ. 기부 실태 153
1. 기부 참여 여부 153
2. 기부처 155
3. 기부금액 157
4.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159
5. 기부처 인지경로 및 기부 방법 162
6. 기부의 내적요인 164
7. 기부의 외적요인 166
8.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168
9.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170

Ⅲ. 기부 관련 경험 ····· 172
1.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 172
2. 중단 또는 변경 기관에 대한 인식 ····· 174
3. 현재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 176
4. 현재 정기적 기부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인식 ····· 177

Ⅳ. 기부 의향 및 계획 ····· 179
1.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 179
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 181
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183
4.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대상 단위 ····· 185

Ⅴ.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 189
1. 유산 기부 의향 ····· 189
2. 유산 기부 희망 비율 및 형태 ····· 191
3. 유산 기부 장애 요인 ····· 193
4. 기부 연금 및 기부자 조언 기금 참여 의향 ····· 194

Ⅵ.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 196
1. 나눔 교육 경험 ····· 196

Ⅶ. 기부와 인터넷 활용 ····· 199
1.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및 활용도 ····· 199

Ⅷ.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대한 인식 ····· 202
1.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202

Ⅸ.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 204
1.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 204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설계
2. 조사내용
3. 응답자 구성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 본 수	1,029명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0%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2. 6. 21 - 7. 2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2.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시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자원봉사 활동 방법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 실태	기부 참여 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기부처 인지경로 기부 방법 기부의 내적요인 기부의 외적요인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 기부 의향 유산 기부 희망 비율 유산 기부 희망 형태 유산 기부 장애 요인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 교육 경험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3. 응답자 구성

Base=전체 ▣ 전 체 ▣		사례수(명) (1029)	비율(%) 100.0
성별	남자	(508)	49.4
	여자	(521)	50.6
연령	19세 – 29세	(191)	18.6
	30세 – 39세	(211)	20.5
	40세 – 49세	(226)	22.0
	50세 – 59세	(192)	18.7
	60세 이상	(209)	20.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88)	18.3
	고등학교 졸업	(384)	37.3
	전문대 재 이상	(447)	43.4
	모름 / 무응답	(10)	1.0
직업	농 / 임 / 어업	(31)	3.0
	자영업	(140)	13.6
	판매 / 영업 / 서비스	(122)	11.9
	생산 / 기능 / 노무직	(162)	15.8
	사무 / 관리 / 전문직	(207)	20.1
	주부	(219)	21.3
	학생	(78)	7.6
	무직 / 퇴직 / 기타	(68)	6.6
	모름 / 무응답	(1)	0.1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	(394)	38.3
	100 – 199만원	(241)	23.5
	200 – 299만원	(181)	17.6
	300 – 399만원	(114)	11.1
	400만원 이상	(87)	8.5
	모름 / 무응답	(11)	1.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6)	5.5
	100 – 199만원	(87)	8.5
	200 – 299만원	(167)	16.2
	300 – 399만원	(272)	26.4
	400 – 499만원	(189)	18.4
	500만원 이상	(236)	22.9
	모름 / 무응답	(21)	2.0
거주지 규모	대도시	(473)	46.0
	중소도시 동부	(372)	36.2
	중소도시 읍 면부	(184)	17.9
권역	서울	(212)	20.6
	인천 / 경기	(294)	28.6
	대전 / 충청	(104)	10.1
	광주 / 전라	(106)	10.3
	대구 / 경북	(108)	10.5
	부산 / 울산 / 경남	(163)	15.8
	강원/ 제주	(42)	4.1
가구원 수	1명	(79)	7.7
	2명	(173)	16.8
	3명	(222)	21.6
	4명	(429)	41.7
	5명 이상	(126)	12.2
혼인상태	미혼	(245)	23.9
	기혼/ 이혼/ 사별	(779)	75.7
	모름 / 무응답	(5)	0.5
종교여부	종교있음	(518)	50.4
	종교없음	(498)	48.4
	모름 / 무응답	(13)	1.3
행복도	불행한편	(180)	17.5
	행복한편	(849)	82.5
이념성향	진보	(271)	26.4
	중도	(424)	41.3
	보수	(333)	32.4

제 2장. 조사결과 요약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 자원봉사 실태

▣ 순수 자원봉사 경험 있다, 26.5%,
포괄적 자원봉사 경험 있다, 31.5%

⊙ 순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26.5%,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31.5%임.

• 순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0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34.3%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30.3%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29.5%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30.3%)',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29.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2007년에는 '자선단체', 2009년에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011년에는 '자선단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순수 자원봉사 참여 평균 시간, 61.4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평균 시간, 74.1시간
국민 1인당 자원봉사시간은 16.3시간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61.4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74.1시간임.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16.3시간임.

• 순수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1.5시간 증가함.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있다, 44.4%**

정기적 자원 봉사 빈도, 매 달, 83.7%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44.4%이며, 자원봉사 빈도에 대해 '매달' 이라는 응답이 83.7%로 가장 높음.

• 2011년 정기적 봉사 참여 비율과 정기적 자원봉사 빈도는 전반적으로 2009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가족이나 지인, 27.9%**

자원봉사 활동 방법, 단순노력봉사, 85.6%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로 '가족이나 지인' 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고, 활동 방법의 경우 '단순노력봉사' 라는 응답이 85.6%로 높음.

•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가족 및 지인' 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시설의 직접 홍보' 라는 응답이 2.4%P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를 통해' 라는 응답은 6.3%P 하락함.

•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한 응답은 2007, 2009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47.8%

⊙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고, '자원 봉사에 관심이 없어서(22.3%)',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0.5%)',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7.6%)',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2%)', '대상자 및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4.0%)' 의 순으로 응답함.

•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시간 등 자신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자원 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전반적으로 2009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적 상황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16.5%P 증가함.

2. 기부 실태

▣ **순수 기부 참여 경험 있다, 57.5%**

포괄적 기부 참여 경험 있다, 91.2%

⊙ 순수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57.5%,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하는 헌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91.2%임.

• 순수 기부 참여비율은 2009년 비해 1.8%P 증가하였으며, 경조사비 기부 헌금 및 보시 등 종교기부 비율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기부처,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72.2%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1.6%
부랑인, 노숙자를 위한 기부, 19.6%

⊙순수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 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21.6%)',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9.6%)' 순으로 응답함.

• 2007, 2009, 2011년 3개년 간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은 2009년 대비 5.2%P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3.2%P, ' 부랑인을 위한 기부' 9.6%P 감소함.

▣ 순수 기부자 평균 기부액 21만 9천원
포괄적 기부자 평균 기부액 114만 8천원
국민 1인당 순수기부액 12만 4천원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1만9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14만8천원임. 국민 1인당 순수기부액은 12만 4천원임.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09년 대비 3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민1인당 순수기부액은 2만5천원 증가함.

▣ 정기적 기부 경험 있다, 31.7%
정기적 기부 빈도, 매 달, 83.7%

⊙순수 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31.7%이며, 정기적 기부 빈도의 경우 '매달' 이라는 응답이 83.7%임.

• 2011년 정기적 기부 경험은 2009년에 비해 7.5%P 증가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정기적 기부 빈도는 2009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기부처 인지 경로,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 매체, 27.4%
기부 방법, 직접 전달, 37.1%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고, 기부 방법의 경우,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37.1%로 높음.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09년과 비슷한 추세인 가운데,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라는 응답이 3.4%P 증가한 반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라는 응답은 3.6%P 감소함.
- 기부 방법에 대한 결과를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9년에 비해 'CMS 자동이체' 라는 응답이 8.1%P 증가한 반면,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9.2%P 감소함.

▣ 기부 내적 동기, 동정심, 62.1%,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로 '동정심' 의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59.4%)' , '개인적 행복감(57.7%)' , '종교적 신념(34.9%)'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동정심' 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10.8%P 감소하였으며, ' 개인적 행복감 ' 이 ' 영향을 미쳤다' 는 응답은 7.7%P, '종교적 신념' 이 '영향을 미쳤다' 는 응답은 1.9%P 감소함. 반면,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 '영향을 미쳤다' 는 응답은 4.6%P 증가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부 외적 동기, 대중 매체의 자극, 요청, 51.2%,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으로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 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43.1%)' , '경제적 여유(34.9%)' , '모범기부자에 의한 자극(33.8%)'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33.3%)' ,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11.8%)'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제적 여유' 라는 응답은 10.4%P,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 이라는 응답은 8.3%P 감소함.

▣ 기부액 확대 계획 있다, 22.6%

기부처 확대 계획 있다, 16.4%

⊙ 2011년에 기부를 한 응답자에게 기부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 는 응답이 22.6%, 기부처 확대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 는 응답이 16.4%임.

-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5%P 감소하

였으며,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3%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기부 확대 계획 의향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5.7%

⊙ 2011년 기부 무경험자들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0.1%)',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8%)',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7.2%)',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6.8%)' 의 순으로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5.9%P 증가한 반면,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3.0%P 감소함.

3. 기부 관련 경험

▣ 지난 2년간 기부 중단 경험 있다, 5.6%
지난 2년간 기부 변경 경험 있다, 2.4%

⊙ 지난 2년간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5.6%, 기부를 하던 시설/단체/기관을 변경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2.4%임.

▣ 중단 또는 변경 기관에 대한 인식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50.7%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50.4%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50.0%

⊙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중단 기관과 변경 전 기관에 대해 물은 결과,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고,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50.4%)',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50.0%)' 의 순으로 응답함.

• 중단 또는 변경 유경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중단 또는 변경 전 기관에 대해 '나의 기부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그 단체가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

다',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다, 17.5%

⊙ 현재 시설/단체/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예'라는 응답은 17.5%이며, '아니오'라는 응답이 82.5%임.

• 일반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현재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음.

▣ 현재 정기적 기부 기관에 대한 인식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73.7%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69.6%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67.1%

⊙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고,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69.6%)',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67.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그 기관에 대해 기부금 사용 방식에 대한 신뢰성, 기부하는 동안의 행복감, 단체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방식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4. 기부 의향 및 계획

▣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있다, 46.2%

⊙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6.2%로,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있다'는 응답은 4.2%P 증가함.

▣ 기부 결정시 고려 사항, 기관의 신뢰성, 84.6%

⊙ 기부 결정 시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고, '기부 대상(84.1%)', '사회 개선효과(67.3%)', '기관 사회적 명성(62.0%)'의 순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일반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기부 결정 시 기관의 신뢰성과 기부 대상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기관에 신뢰성' 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5.7%P, '기관의 사회적 명성' 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9.5%P 증가함. 반면, '기부 대상' 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5%P 감소하여 기부 대상보다는 기관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뢰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활동 내역 투명성, 84.9%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활동내역 투명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84.9%로 가장 높고, '기부액 선택 가능성(83.2%)' , '기관 전문성(76.7%)' , '방법의 용이성(71.6%)' , '혜택 및 예우(47.5%)' 의 순으로 응답함.

- 10명 중 8명 정도는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기부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9년과 2011년 모두 '활동내역 투명성' 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으며, 2011년 조사 결과는 2009년 응답 비율과 유사함.
- 2009년에 비해 '혜택 및 예우' 라는 응답이 7.0%P 증가하였으며, '기관 전문성' 6.1%P, '기부의 선택 가능성' 2.5%P 증가함. 반면, '방법의 용이성' 이라는 응답은 7.6%P 감소하여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혜택 및 예우, 기관 전문성, 기부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방법의 용이성은 감소하여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76.2%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발전 (34.7%)', '의료분야(28.7%)', '교육 및 연구활동(21.2%)' , '해외구호활동(19.3%)' , '공익활동분야(12.1%)' , '문화 및 예술 분야(4.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11년도 조사에서도 '자선 및 사회 복지 분야' 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그러나 200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2%P, '지역사회 발전' 이라는 응답이 5.8%P 감소한 반면, 의료분야라는 응답은 6.2%P 증가하여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아동복지, 53.5%

⊙ 기부금에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고, '노인복지(43.0%)', '장애인복지(34.4%)', '빈곤가구(30.7%)', '청소년복지

(24.9%)', '여성복지(6.6%)',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3.5%)', '북한동포(1.9%)', '기타(0.4%)' 의 순으로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나, '아동복지' 라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7.2%P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 라는 응답은 7.0%P 증가함.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47.2%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의 단위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음. 그 외 '국내의 사회문제(34.4%)', '국제 사회의 문제(8.1%)',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6.7%)' 의 순으로 응답함.

• 거주지역의 사회문제에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한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에 8.7%P 감소함. 반면 '국내 사회문제' 라는 응답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 6.3%P 증가함.

5.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 유산을 기부할 의향 있다, 12.5%

⊙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12.5%에 불과함.

• 2009년에 비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유사한 수준임.

▣ 유산 기부 희망 비율 평균, 35.8%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유산 기부 희망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 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고, '50%이상-70%미만(24.1%)', '30%이상-50%미만(17.2%)', '70%이상(13.8%)', '10%미만(9.3%)' 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할 의향이 있는 유산의 희망 비율의 평균은 35.8%임.

• 유산 기부 희망 비율 평균을 지난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2009년 36.7%, 20011년 35.8%로 유산 희망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음.

▣ 유산 기부 희망 물품, 현금, 61.9%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유산 기부 희망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금' 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부동산(25.8%)', '물품

(18.2%)', '금융자산(9.7%)' 의 순으로 응답함.

- 유산 기부 의향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현금 형태의 유산 기부를 희망하고 있음.
- 유산 기부 희망 형태의 경우, 2009년에 비해 '현금' 은 12.1%P, '부동산' 은 5.5%P 감소한 반면, ' 물품' 은 4.0%P 증가함. 전반적으로 ' 현금' 을 유산 기부로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20011년에 물품 기부를 희망하는 경향이 소폭 늘어남.

▣ 유산 기부 장애 요인, 가족의 동의와 협력, 42.2%

⊙ 유산 기부의 장애요인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산 기부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25.7%)', '유산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8.8%)', '유산 기부 대상 선정에서의 어려움(6.0%)', '정부의 제도적 혜택에 있어서 제한성(2.5%)' 의 순으로 응답함.

- 유산 기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과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음.
- 2009년 조사 결과 대비, '가족으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이라는 응답은 7.0%P 증가함.

▣ 기부 연금 참여 의향 있다, 15.3%

기부자 조언 기금 참여 의향 9.1%

⊙ 기부 연금 참여 의향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15.3%이며, 기부자 조언 기금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9.1%임.

6.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부나 자원봉사를 본 경험이 있다, 50.7%

⊙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에 대해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음. 그 외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44.2%)',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43.6%)',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43.0%)',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37.6%)', 등의 순으로 '그렇다' 는 응답이 높음.

⊙ 기부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중 캠페인 활성화' 라는 응답은 38.6%로 가장 높고,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36.1%)' ,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상승(35.9%)' , '사회 내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30.7%)' ,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다양화(18.3%)' 등의 순으로 응답함.

7. 기부와 인터넷 활용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적이 있다, 6.9%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활용해 본 경험에 대해, '해 본 적 있다' 는 응답은 6.9%에 불과함.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 시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1.5%P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인터넷 활용도,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76.1%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인터넷 활용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이라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음. 그 외 기부 대상에 대한 탐색(67.6%)' ,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55.8%)' , '기부 후 피드백(41.9%)' 의 순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음.

• 2009년에 비해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이라는 응답은 6.6%P, '기부 후 피드백 5.0%P,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3.4%P 증가한 반면, ' 기부 대상 탐색 ' 이라는 응답은 4.9%P 감소함. 기부를 하기 위해 대상을 선택하는 초기 단계보다 기관 선택이나 기부 금액 선택, 피드백 등 기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인식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대중캠페인 활성화, 38.6%
기부/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 36.1%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신뢰도 상승 35.9%

⊙ 기부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중 캠페인 활성화' 라는 응

답은 38.6%로 가장 높고,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36.1%)',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상승(35.9%)', '사회 내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30.7%)',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다양화(18.3%)' 등의 순으로 응답함.

9.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자선단체, 66.0점〉 교육기관 58.2점〉 의료기관 55.8점

⊙ 국민들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정도를 100점 환산 점수로 환산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66.0점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교육기관 58.2점, 의료기관 55.8점, 사회복지시설/단체 53.4점, 종교기관 49.9점, 시민단체 48.8점,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47.7점, 중소기업 45.2점, 언론기관 43.4점의 순임.

⊙ 2009년 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을 보임.

제 3장. 조 사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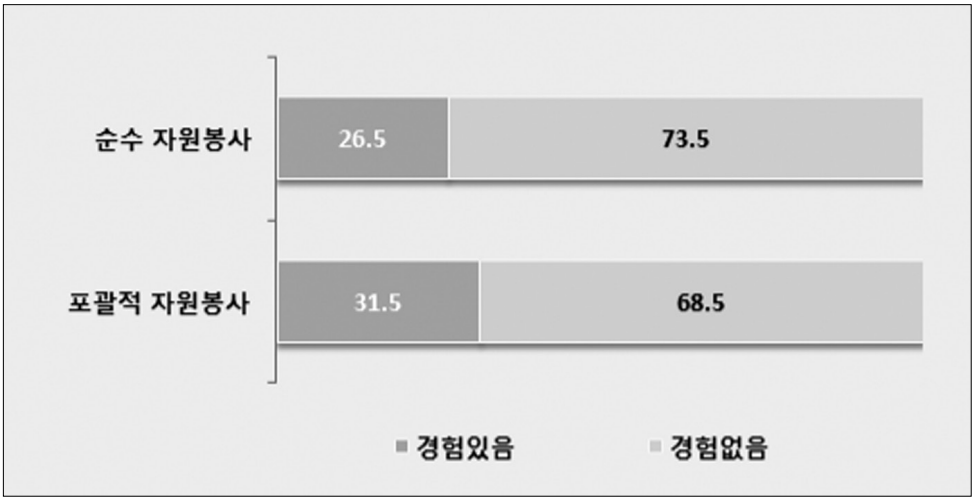
Ⅰ. 자원봉사 실태
Ⅱ. 기부 실태
Ⅲ. 기부 관련 경험
Ⅳ. 기부 의향 및 계획
Ⅴ.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Ⅵ.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Ⅶ. 기부와 인터넷 활용
Ⅷ.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Ⅸ.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Ⅰ. 자원봉사 실태

1. 자원봉사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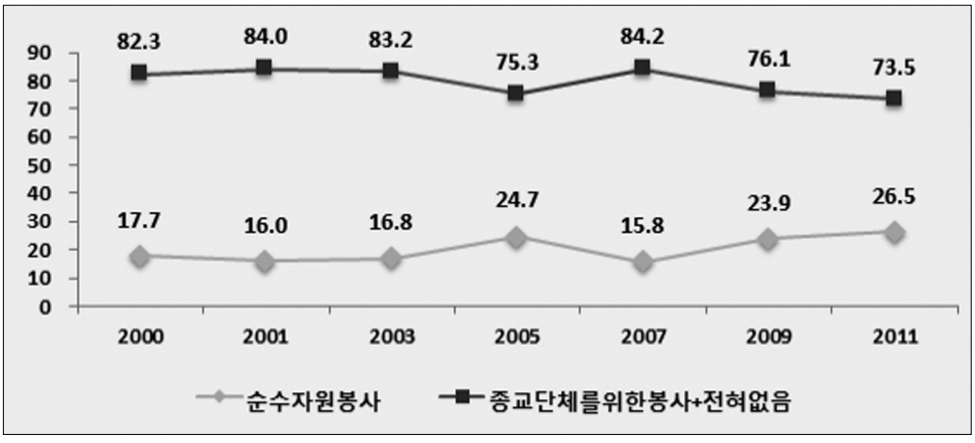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자원봉사'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1〉 자원봉사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2〉 순수 자원봉사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26.5%, '경험없음' 의 비율이 73.5%임.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31.5%. '경험없음' 의 비율이 68.5%임.

• 순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6%P 하락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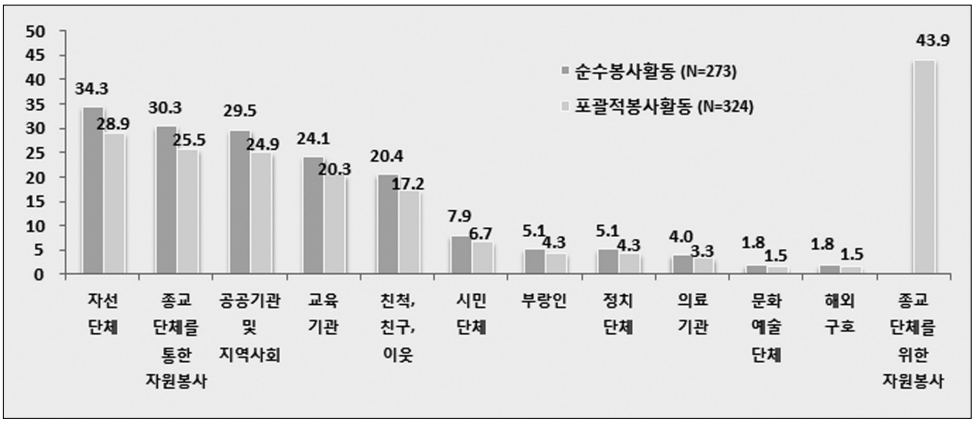
⊙ 순수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8.4%), △50-59세(31.8%), △학생(40.4%), △중소도시 읍면부(33.9%), △강원/제주(38.1%), △가구원수 5명 이상(39.0%), △기혼/이혼/사별(27.5%), △종교 있음(32.0%), △행복한 편(2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75.3%), △30-39세(78.3%), △중소도시 동부(75.2%) 및 대도시(75.0%), △광주/전라(84.6%), △가구원수 1명(82.2%), △미혼(76.3%), △종교 없음(79.1%), △불행한 편(80.7%), △보수(7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자원봉사 활동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자원봉사'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3〉 자원봉사 활동처

(단위 : %)

2011 (N=273)		2009 (N=247)		2007 (N=160)		2005 (N=247)		2003 (N=170)	
순수자원봉사처	비율	순수자원봉사처	비율	순수자원봉사처	비율	순수자원봉사처	비율	순수자원봉사처	비율
자선단체	34.3	종교단체를 통한	39.3	자선단체	36.9	사회복지시설	36.0	사회복지시설	47.9
종교단체를 통한	30.3	자선단체	32.8	공공기관	29.4	종교단체를 통한	21.9	지역사회	20.1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29.5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27.2	종교단체를 통한	12.5	재해/불우이웃	19.9	종교단체를 통한	13.3
교육기관	24.1	친척, 친구, 이웃	20.2	교육기관	10.6	지역사회	19.3	재해/불우이웃	13.3
친척, 친구, 이웃	20.4	교육기관	15.9	환경단체	9.4	모금/구호단체	15.5	지인	5.6
시민단체	7.9	시민단체	6.7	이웃	8.1	지인	15.1	교육기관	5.4
부랑인	5.1	부랑인	6.0			교육기관	7.3	정치단체	3.9
정치단체	5.1	정치단체	5.7						
의료기관	4.0	의료기관	4.5						
문화예술단체	1.8	해외구호	2.1						
해외구호	1.8	문화예술단체	1.2						
		기타	0.4						

〈표2〉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 변화 추이

전 체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자원봉사(30.3%)',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29.5%)',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24.1%)',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20.4%)',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7.9%)',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5.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5.1%)',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4.0%)',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1.8%)',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1.8%)' 순으로 응답함.

⊙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는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음.

-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로 2003년, 200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07년에는 '자선단체', 2009년에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2011년에는 '자선단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본 설문은 2003년, 2005년, 2007년의 설문에서 수정(문항 보기 변화)되어 직접 비교가 힘드나, 2009년도와 2011년도 설문은 동일하여 직접 비교가 가능함.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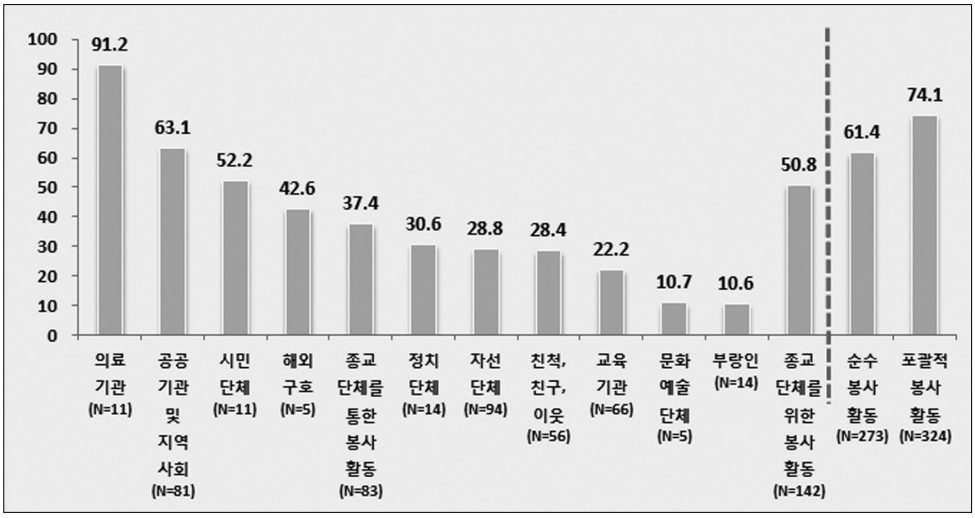
⊙ 순수자원봉사 활동처로 가장 높게 응답된 '자선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38.5%) 및 50-59세(37.1%), △중학교 졸업 이하(38.9%),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 △대전/충청(49.0%), △종교 없음(44.5%), △중도(3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 단체를 통한 자원 봉사'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4.5%), △60세 이상(39.8%), △자영업(39.8%),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40.7%), △중소도시 읍면부(36.0%), △인천/경기(41.0%), △가구원수 5명 이상(38.0%), △기혼/이혼/사별(31.3%), △종교 있음(46.2%), △행복한 편(3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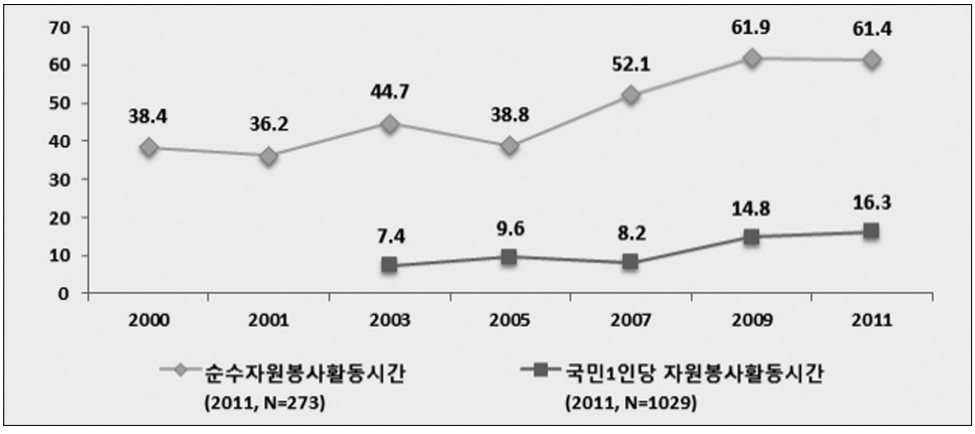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 를 한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4〉 자원봉사 시간 (N=273)

(단위 : %)



〈그림5〉 순수 자원봉사 시간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61.4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74.1시간임.

⊙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활동처를 기준으로 할 때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를 위한 시간이 91.2%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63.1시간)',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52.2시간)',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42.6시간)',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37.4시간)',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30.6시간)'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09년에 9.8시간 증가하였으나, 2011년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09년에 6.6시간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1.5시간 증가함.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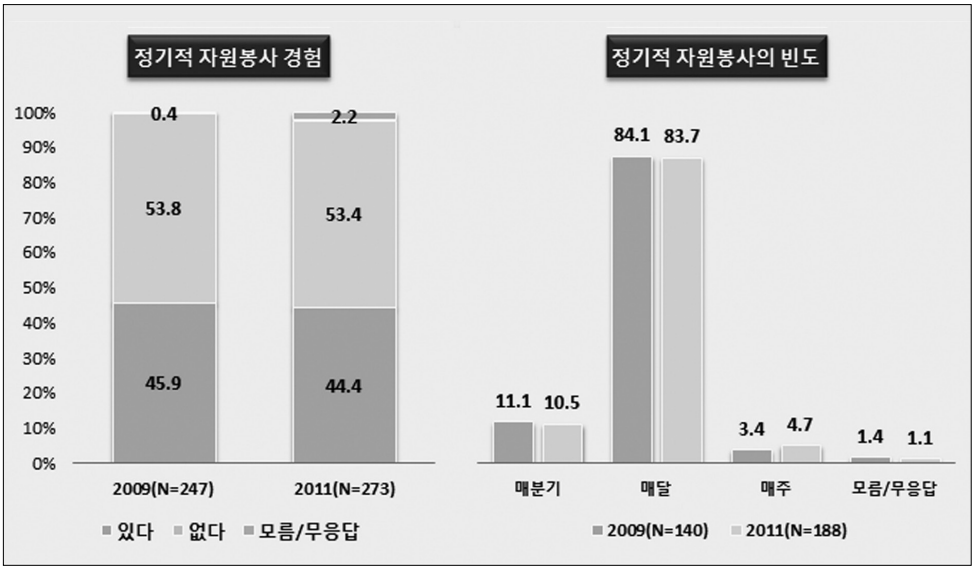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순수자원봉사 활동 평균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3.8시간), △자영업(81.2시간) 및 주부(79.4시간),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67.0시간), △서울(102.8시간), △기혼/이혼/사별(67.2시간), △보수(66.7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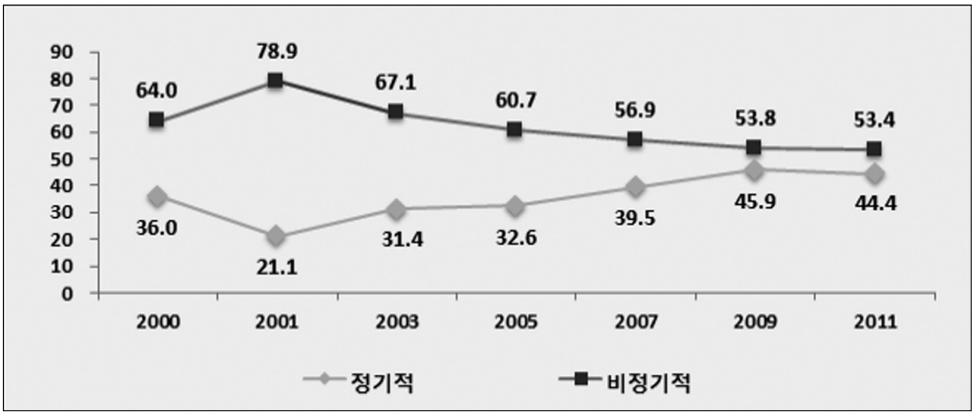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 를 한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6〉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7〉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4%, '없다'는 응답이 53.4%, '모름/무응답'이 2.2%임.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자원봉사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달'이라는 응답이 83.7%로 가장 높고, '매분기(10.5%)', '매주(4.7%)'의 순임.

•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정기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자 중 8명 정도는 매달 참여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정기적 봉사 참여 비율이 2007년 39.5%에서 2009년 45.9%로 6.4%P 증가하였고, 2011년은 44.4%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응답자 특성별 (1)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자(48.9%), △50-59세(59.7%), △고등학교 졸업(52.9%), △주부(51.1%),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56.6%), △대도시(52.0%), △서울(55.9%) 및 대전/충청(55.9%), △기혼/이혼/사별(48.1%), △종교 있음(52.6%), △진보(4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60.0%), △19-29세(69.1%), △학생(71.8%),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64.2%), △중소도시 동부(60.6%), △가구원수 3명(63.4%), △미혼(66.5%), △종교 없음(6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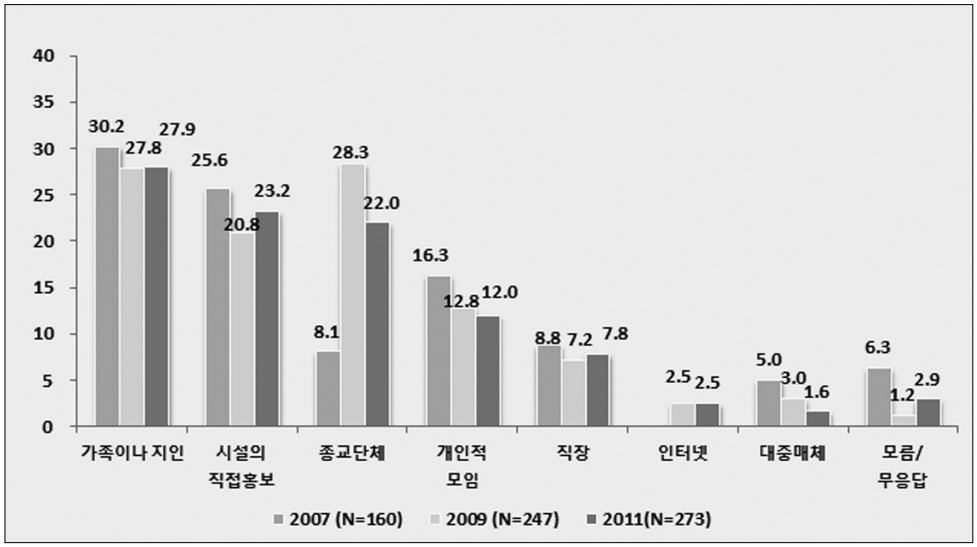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2)

⊙ 정기적 자원봉사 빈도가 '매 달'이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4.4%), △전문대재 이상(42.3%), △주부(45.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및 활동 방법

문]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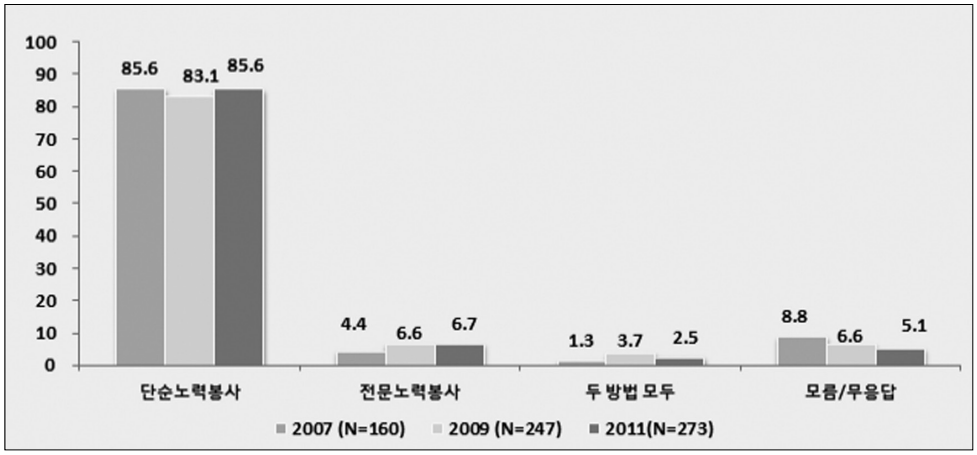
(단위 : %)



〈그림8〉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문]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셨습니까?

(단위 : %)



〈그림9〉 자원봉사 활동 방법

전 체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로 '가족이나 지인' 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고,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23.2%)', '종교단체를 통해(22.0%)', '그 외 개인적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12.0%)', '직장을 통해(7.8%)', '인터넷을 통해(2.5%)',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1.6%)' 순으로 응답함.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해 '단순노력봉사' 라는 응답이 85.6%로 가장 높고, '전문노력봉사(6.7%)', '두 방법 모두(2.5%)' 순임.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09년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시설의 직접 홍보' 라는 응답이 2.4%P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를 통해' 라는 응답은 6.3%P 감소함.

•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한 응답은 2007, 2009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응답자 특성별 (1)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35.3%), △자영업(37.7%),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32.5%), △대전/충청(41.3%), △종교 없음(34.2%), △불행한 편(37.3%), △진보(3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30.0%), △학생(31.9%), △응답자 소득 200-299만원(27.6%0), △가구원수 5명 이상(31.2%), △종교 없음(29.2%), △행복한 편(25.0%), △진보(27.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종교 단체를 통해'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7.2%), △대도시(25.8%), △인천/경기(32.2%), △기혼/이혼/사별(24.0%), △종교 있음(36.2%), △불행한 편(2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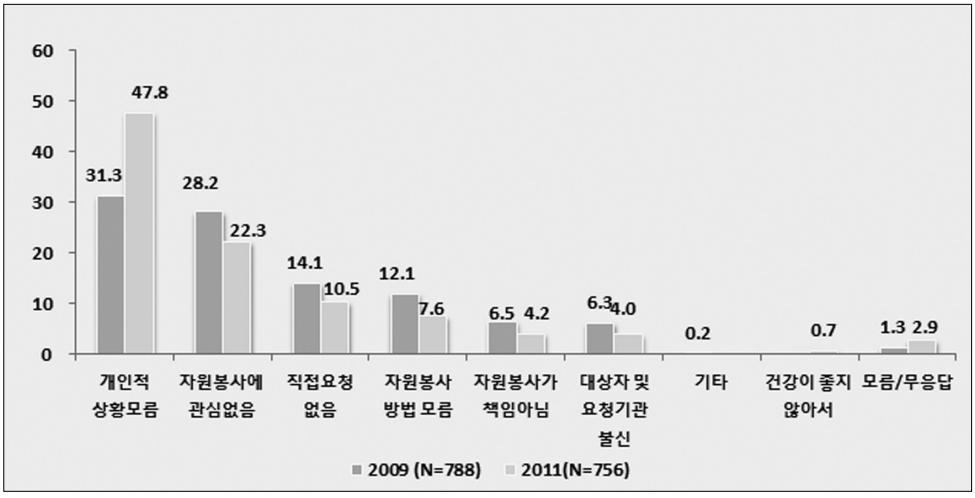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2)

⊙'특정 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단순 노력 봉사'라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89.7%),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93.5%), △대도시(87.6%), △대구/경북(97.5%), △미혼(89.9%), △종교 없음(9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문]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그림10〉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 2011년에는 2009년 보기인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자원봉사를 위한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는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로 변경함.

전 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고, '자원 봉사에 관심이 없어서(22.3%)',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0.5%)',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7.6%)',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2%)', '대상자 및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4.0%)' 의 순으로 응답함.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시간 등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자원 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전반적으로 2009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적 상황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16.5%P 증가하여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52.2%), △고등학교 졸업(51.3%), △판매/영업/서비스(55.6%), △기혼/이혼/사별(4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28.9%), △무직/퇴직/기타(37.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33.4%), △미혼(25.5%), △종교 없음(2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II. 기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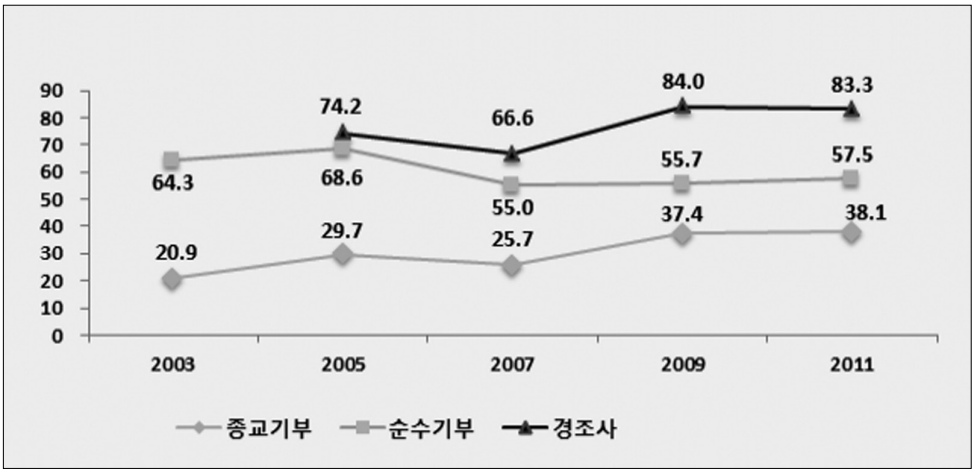
1. 기부 참여 여부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11〉 기부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12〉 기부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57.5%, '경험없음' 의 비율이 42.5%임.

⊙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하는 헌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 의 비율이 91.2%, '경험없음' 의 비율이 8.8%임.

• 순수 기부 참여비율은 2009년 55.7%에 비해 1.8%P 증가함.

• 경조사비 기부 헌금 및 보시 등 종교기부 비율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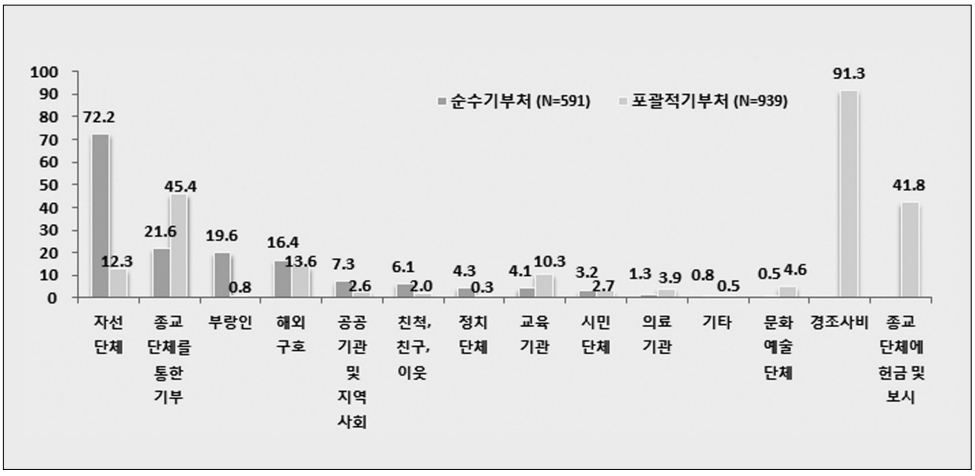
⊙ 순수기부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60.0%), △50-59세(65.9%) 및 40-49세(65.1%), △중학교 졸업 이하(61.5%), △기혼/이혼/사별(62.8%), △종교 있음(61.8%), △행복한 편(60.9%), △진보(59.9%) 및 중도(5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은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5.2%), △19-29세(59.3%), △고등학교 졸업(44.4%), △학생(65.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8.0%), △미혼(58.5%), △종교 없음(46.4%), △불행한 편(58.9%), △보수(4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기부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13〉 기부처

(단위 : %)

2011 (N=591)		2009 (N=577)		2007 (N=160)	
순수기부처	비율	순수기부처	비율	순수기부처	비율
자선단체	72.2	자선단체	67.0	자선단체	71.2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1.6	부랑인	29.2	부랑인	19.7
부랑인	19.6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4.8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16.5
해외구호	16.4	해외구호	15.3	가족 외 지인	9.5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7.3	친척, 친구, 이웃	9.7	해외구호	9.3
친척, 친구, 이웃	6.1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5.7	공공기관/지역사회	6.8
정치단체	4.3	정치단체	3.3		
교육기관	4.1	교육기관	3.2		
시민단체	3.2	시민단체	3.2		
의료기관	1.3	의료기관	0.7		
문화예술단체	0.5	문화예술단체	0.2		
기타	0.8				

〈표11〉 순수 기부처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 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21.6%)',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9.6%)',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6.4%)',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7.3%)',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6.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4.3%)',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4.1%)', '시민단체를 위한 기부(3.2%)', '의료기관을 위한 기부(1.3%)', '기타(0.8)', '문화 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0.5%)'의 순으로 응답함.

⊙ 포괄적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는 '경조사비' 라는 응답이 91.3%로 가장 높음.

• 2007, 2009, 2011년 3개년 간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라는 응답은 2009년 24.8%에 비해 3.2%P 감소하였으며, '부랑인을 위한 기부'라는 응답은 2009년 9.6%P 하락함.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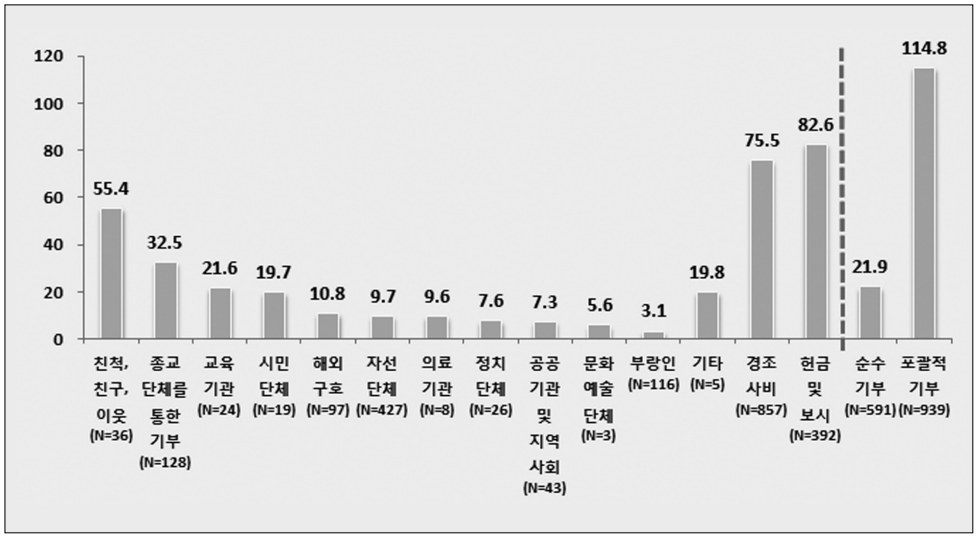
⊙ 순수기부 활동 기부처로 가장 높게 응답된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77.3%), △가구원수 2명(81.0%), △기혼/이혼/사별(75.0%), △종교 없음(74.1%), △불행한 편(75.5%), △중도(7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순수기부 활동 기부처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된 '종교 단체를 통한 기부' 라는 응답은 △여자(26.1%), △중학교 졸업 이하(25.4%), △자영업(31.2%),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29.2%), △인천/경기(33.4%), △가구원수 5명 이상(31.1%), △기혼/이혼/사별(22.5%), △종교 있음(36.8%), △행복한 편(2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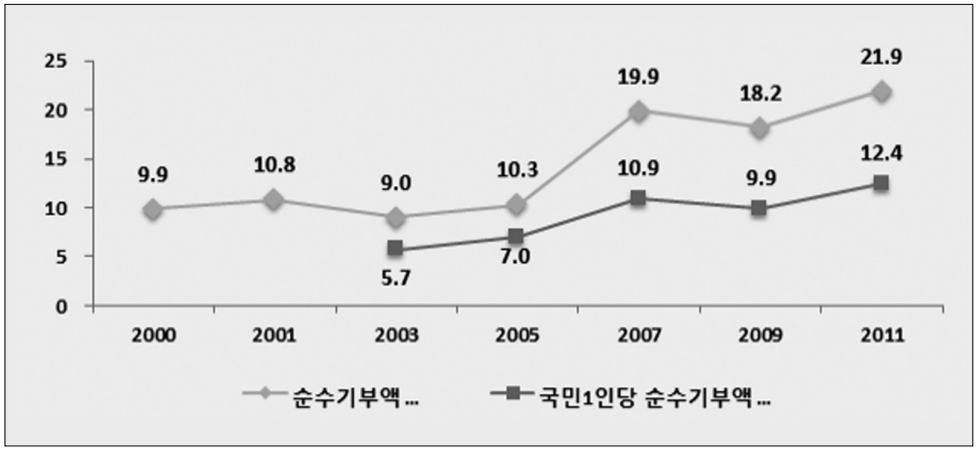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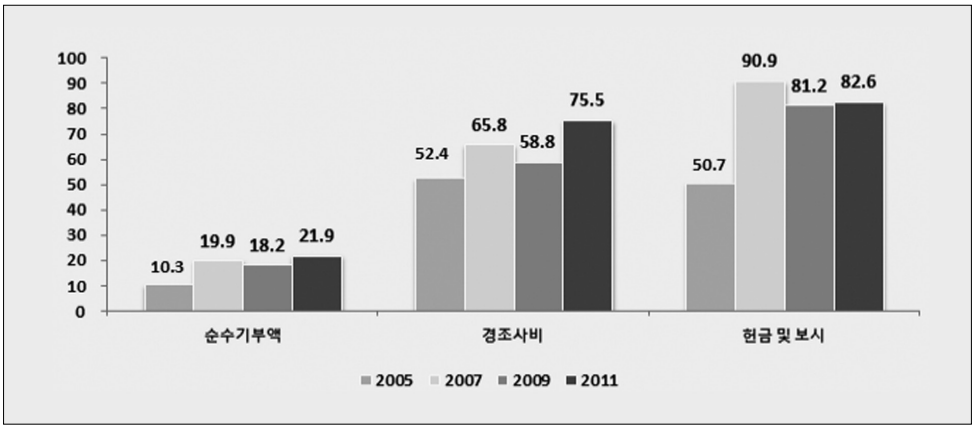
〈그림14〉 기부처별 기부 금액

(단위 : 만원)



〈그림15〉 순수 기부액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그림16〉 기부처별 기부액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1만9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14만8천원임.

⊙ 경조사비 및 종교단체로의 헌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를 기준으로 할 때 '헌금 및 보시' 평균 기부금액이 82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조사비(75만5천원)',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55만4천원)',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32만5천원)',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21만6천원)', '시민단체를 위한 기부(19만7천원),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0만원8천원)',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9만7천원)', '의료기관을 위한 기부(9만6천원)',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7만6천원)',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7만3천원)'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09년 18만2천원에서 2011년 21만9천원으로 3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민1인당 순수기부액은 2009년 9만9천원에서 2011년 12만4천원으로 2만5천원 증가함.

• 기부처별 평균 기부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순수기부액의 경우 소폭 증가함. 경조사비의 경우 16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헌금 및 보시의 경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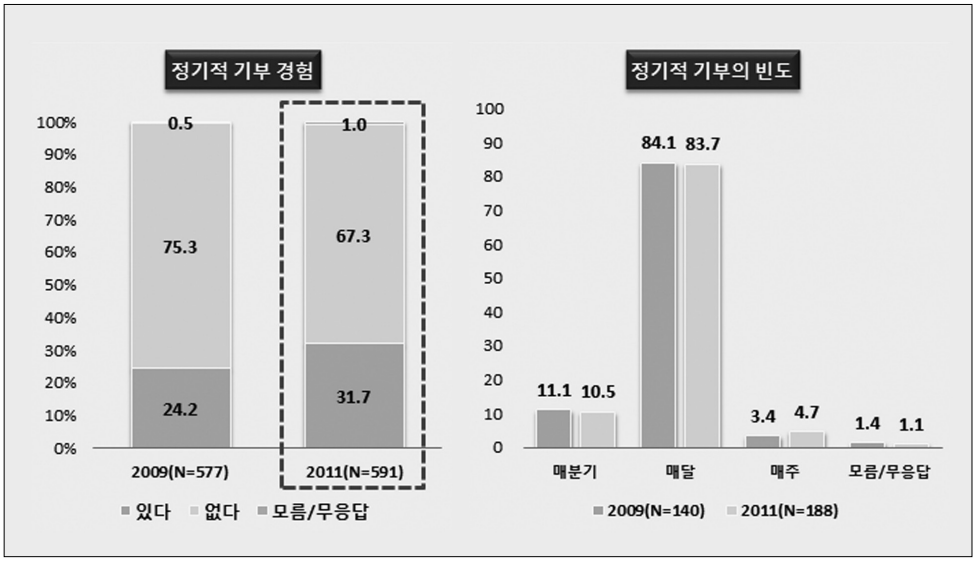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순수기부 평균금액(현금+물품)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여자(24만9천3백원), △40-49세(36만4천2백원), △자영업(39만6천2백원),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45만원4천3백원), △인천/경기(36만1천7백원), △기혼/이혼/별거(24만1천4백원), △종교 있음(31만2백원), △행복한 편(23만3천원), △진보(24만원9천3백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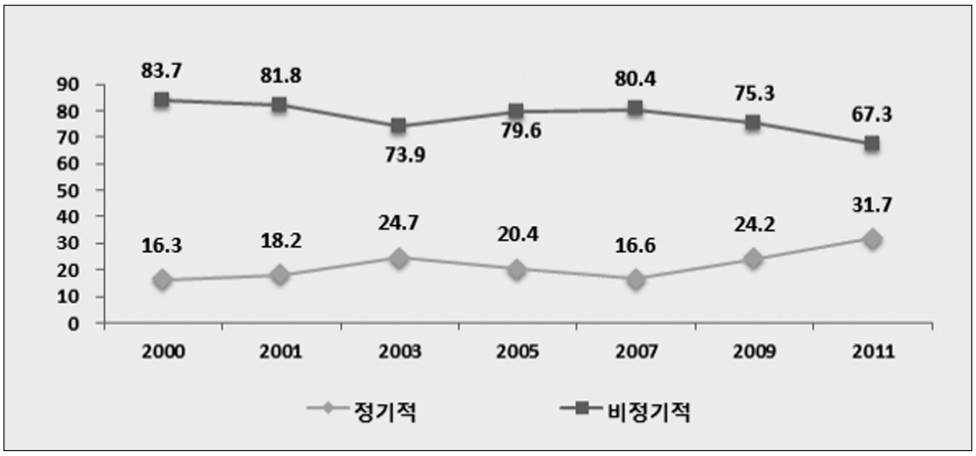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 %)



〈그림17〉 정기적 기부 경험과 빈도

(단위 : %)



〈그림18〉 정기적 기부 참여 변화 추이

전 체

⊙ 순수 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1.7%, '없다'는 응답은 67.3%, '모름/무응답'은 1.0%임.

⊙ 정기적 기부 참여자에게 정기적 기부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달'이라는 응답이 83.7%로 높고, '매분기(10.5%)', '매주(4.7%)' 순임.

• 2011년 정기적 기부 경험은 2009년 24.2%에 비해 7.5%P 증가였으며, 정기적 기부 빈도는 2009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정기적 기부 참여 비율은 2007년 16.6%, 2009년 24.4%, 2011년 3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정기적 기부 참여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 (1)

⊙ 정기적 기부 참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사무/관리/전문직(46.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9.3%), △인천/경기(51.0%), △가구원수 4명(38.3%), △기혼/이혼/사별(33.3%), △종교 있음(40.7), △행복한 편(34.4%), △진보(4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77.9%), △대구/경북(90.5%), △미혼

(73.1%), △종교 없음(77.4%), △불행한 편(86.8%), △중도(7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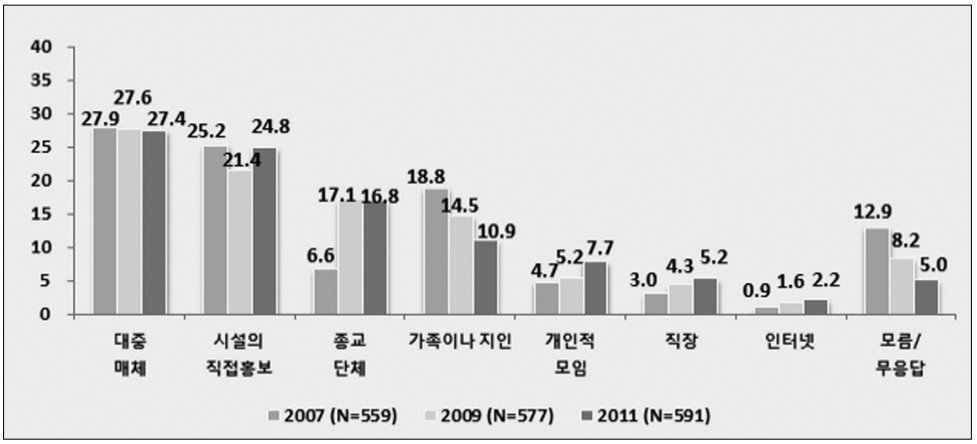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2)

⊙정기적 기부 빈도에 대해 '매 달' 하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86.0%), △30-39세(89.4%), △종교 없음(87.5%), △진보(8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기부처 인지경로 및 기부 방법

문]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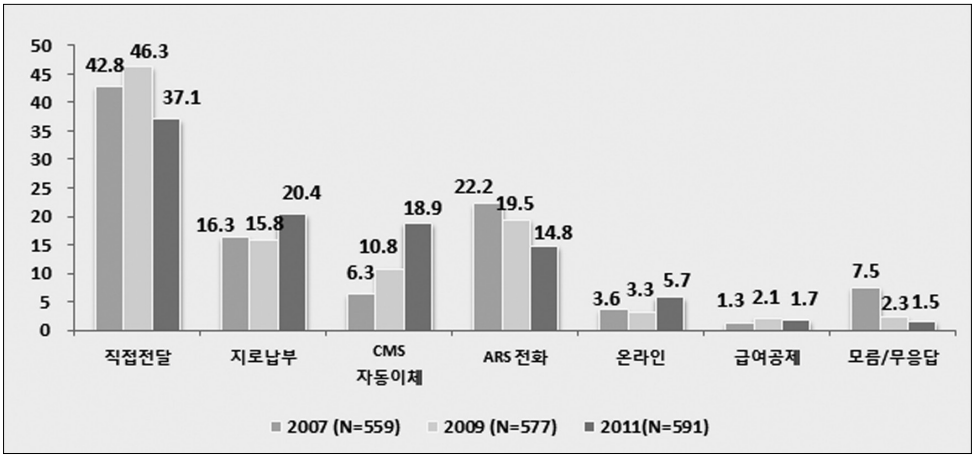


〈그림19〉 기부처 인지경로

* 2011년에는 2009년 보기인 '가족, 친척 등을 통해'와 '친구, 선배 등 지인을 통해'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로 변경함

문]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셨습니까?

(단위 : %)



〈그림19〉 기부처 인지경로

전 체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고,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24.8%)' , '종교단체를 통해(16.8%)'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10.9%)' ,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7.7%)' , '직장을 통해(5.2%)' , '인터넷을 통해(2.2%)' 의 순으로 응답함.

⊙기부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고, '지로납부(20.4%)', 'CMS 자동이체(18.9%)', 'ARS 전화(14.8%)', '온라인(신용카드, 핸드폰 결제)(5.7%)' , '급여공제(1.7%)' 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09년과 비슷한 추세인 가운데,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라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3.4%P,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라는 응답은 3.6%P 증가함.
- 기부 방법에 대한 결과를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9년에 비해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9.2%P, 'ARS 전화' 라는 응답이 4.7%P 감소하였으며, 'CMS 자동이체' 라는 응답이 8.1%P, '지로납부' 라는 응답이 4.6%P 증가하여, 기부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나 'ARS 전화' 라는 응답이 감소한 반면 '지로 납부' 와 ' CMS 자동이체' 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 (1)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라는 응답은 △중학교 졸업 이하(30.6%), △무직/퇴직/기타(37.2%), △대도시(30.1%) 및 중소도시 읍면부(29.6%), △가구원수 1명(33.4%), △종교 없음(32.1%), △보수(3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중학교 졸업 이하(31.1%), △가구원수 2명(30.4%), △종교 없음(33.3%), △행복한 편(25.5%), △중도(27.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기부 방법에 대해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은 △19-29세(43.6%), △학생(58.8%),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41.2%), △가구소득 300-399만원

(44.1%), △대도시(42.7%), △미혼(43.2%), △종교 있음(40.6%), △불행한 편(44.5%), △중도(4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지로 납부'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2.0%), △60세 이상(35.2%), △생산/기능/노무직(35.3%), △기혼/이혼/사별(22.6%), △종교 없음(25.7%), △보수(2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기부의 내적요인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적요인)

(단위 : %)

〈그림21〉 기부의 내적요인

전 체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로 '동정심'의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59.4%)', '개인적 행복감(57.7%)', '종교적 신념(34.9%)'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동정심'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10.8%P 감소하였으며, '개인적 행복감' 7.7%P, '종교적 신념' 1.9%P 감소함. 반면,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응답은 4.6%P 증가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동정심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74.8%), △미혼(68.8%), △불행한 편(72.7%), △중도(63.8%) 및 진보(6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중학교 졸업 이하(65.1%), △기혼/이혼/사별(61.8%), △진보(66.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개인적인 행복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63.6%), △40-49세(62.5%) 및 19-29세(61.4%),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66.2%), △대도시(61.7%), △종교 있음(62.9%), △진보(63.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9.7%), △중학교 졸업 이하(41.0%),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45.4%), △종교 있음(58.1%), △행복한 편(36.0%), △진보(3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7. 기부의 외적요인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외적요인)

(단위 : %)

〈그림22〉 기부의 외적요인

* 2011년에는 2009년 항목인 '일반시민들의 기부에 의한 자극' 이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으로 변경됨.

전 체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으로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 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43.1%)' , '경제적 여유(34.9%)' , '모범기부자에 의한 자극(33.8%)'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33.3%)' ,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11.8%)'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제적 여유'가 '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0.4%P 감소하였으며,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 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은 8.3%P,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는 5.4%P 감소함. 그 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과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 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응답자 특성별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3.5%), △60세 이상(56.0%), △무직/퇴직/기타(62.3%),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57.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61.2%), △기혼/이혼/사별(52.0%), △종교 있음(53.1%), △불행한 편(5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5.7%), △40-49세(52.5%),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53.0%), △가구원수 4명(48.1%), △기혼/이혼/사별(44.8%), △종교 있음(48.7%), △행복한 편(44.2%), △진보(50.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경제적인 여유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60세 이상(41.8%), △학생(48.4%),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41.8%), △가구소득 400-499만원(42.9%), △중소도시 동부(43.5%), △불행한 편(3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6.2%), △가구소득 400-499만원(40.3%), △미혼(38.0%), △종교 있음(38.1%), △행복한 편(34.2%), △진보(3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지,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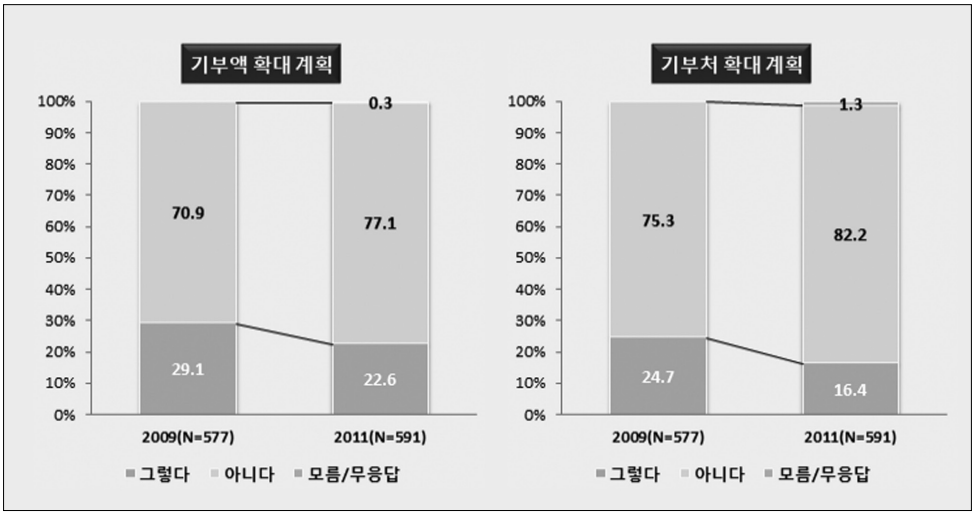
소득 400만원 이상(44.9%), △가구원수 3명(39.2%), △기혼/이혼/사별(34.1%), △종교 있음(35.7%), △불행한 편(36.6%), △진보(3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17.0%), △사무/관리/전문직(19.5%), △가구소득 400-499만원(21.6%), △중소도시 동부(16.2%), △기혼/이혼/사별(1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8.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문] 기존의 기부액을 올해 혹은 내년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 현재 기부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기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23〉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전 체

⊙ 2011년에 기부를 한 응답자에게 기부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2.6%, '아니다'는 응답이 77.1%임.

⊙ 기부처 확대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6.4%, '아니다'는 응답이 82.2%임.

•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 29.1%에 비해 6.5%P 감소하였으며,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3%P 감소함.

• 2011년 기부 유경험자의 10명 중 2명 정도는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으며, 10명 중 1명 정도는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음.

응답자 특성별 (1)

⊙ 기부액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판매/영업/서비스(30.6%),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30.7%), △미혼(25.5%), △행복한 편(23.4%), △진보(2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아니다'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생산/기능/노무직(82.5%), △중소도시 동부(79.4%), △가구원수 1명(90.1%), △불행한 편(83.5%), △보수(80.5%) 및 중도(7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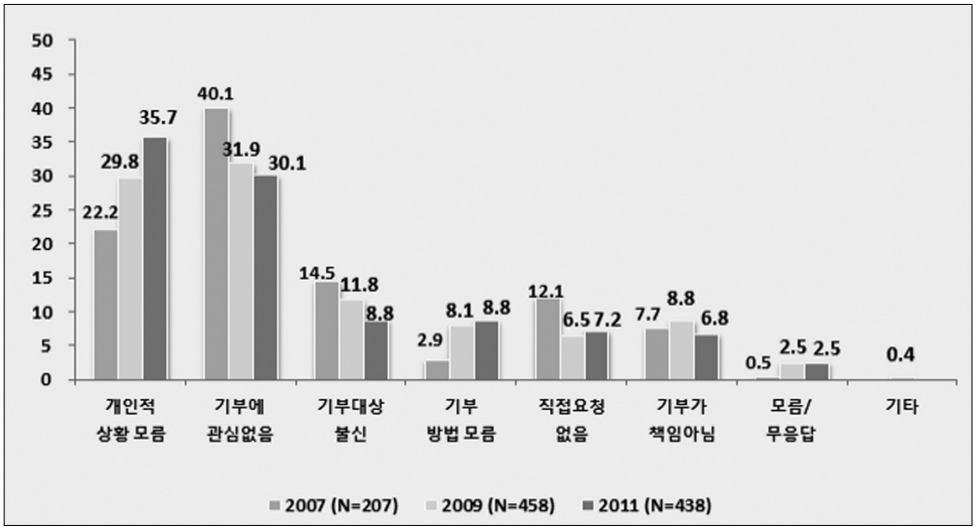
⊙ 기부처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18.1%), △30-39세(24.1%), △사무/관리/전문직(20.0%), △미혼(20.1%), △종교 있음(18.6%), △진보(2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아니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89.6%), △무직/퇴직/기타(89.7%), △기혼/이별/사별(83.1%), △종교 없음(84.4%), △불행한 편(88.0%), △보수(87.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9.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그림24〉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전 체

⊙ 2011년 기부 무경험자들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0.1%)',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8%)',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8.8%)',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7.2%)',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6.8%)' 의 순으로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5.9%P 증가한 반면,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3.0%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8.4%), △60세 이상(48.2%), △자영업(47.8%) 및 무직/퇴직/기

타(47.3%), △가구소득 100-199만원(56.0%), △중소도시 동부(41.9%), △기혼/이혼/사별(41.3%), △종교 있음(43.5%), △불행한 편(48.1%), 진보(39.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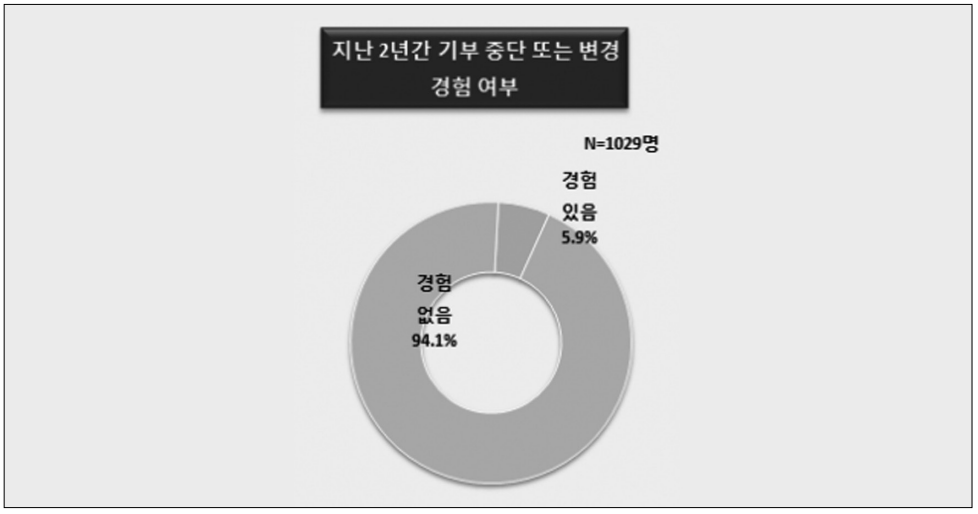
⊙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2.9%), △사무/관리/전문직(39.6%), △대도시(35.9%), △미혼(35.0%), △종교 없음(32.9%), △행복한 편(31.8%), △중도(33.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Ⅲ. 기부 관련 경험

1.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문]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10년 1월 ~ 2011년 12월) 기부를 중단 또는 변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지난 2년간 기부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25〉 기부 중단 경험과 변경 경험



〈그림26〉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 2011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지난 2년간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5.6%, '아니다' 는 응답이 94.4%임.

⊙ 기부를 하던 시설/단체/기관을 변경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2.4%, '아니다' 는 응답이 97.6%임.

⊙ 지난 2년간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변경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총 61명으로, 5.9%임.

응답자 특성별 (1)

⊙ 지난 2년간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한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50-59세(10.5%), △사무/관리/전문직(9.8%), △중소도시 읍면부(7.5%), △기혼/이혼/사별(6.3%), △종교 있음(8.7%), △행복한 편(6.2%), △진보(6.7%) 및 중도(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아니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종교 없음(97.7%), △불행한 편(97.3%), △보수(9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 지난 2년간 '기부를 하던 시설/단체/기관을 변경한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50-59세(4.5%), △전문대재이상(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4.7%), △종교 있음(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아니다'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불행한 편(9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중단 또는 변경 기관에 대한 인식

문]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10년 1월 ~ 2011년 12월)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시설/단체/기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기관에 대한 인식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러한 편이다	①+②	③보통 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61)	9.8	40.9	**50.7**	24.8	10.4	1.6	**11.9**	12.5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61)	11.6	38.8	**50.4**	24.9	9.0	3.2	**12.2**	12.5	**100.0**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61)	11.5	38.5	**50.0**	25.4	10.4	1.6	**12.0**	12.5	**100.0**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61)	8.4	39.2	**47.6**	31.3	5.4	3.2	**8.6**	12.5	**100.0**
그 단체는 나의 문의나 의견에 대해 성의있게 응답해주었다	(61)	8.1	34.2	**42.3**	34.4	9.0	1.7	**10.7**	12.5	**100.0**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61)	8.3	32.8	**41.1**	34.3	12.0	12.0	**0.0**	12.5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었다	(61)	5.0	35.5	**40.4**	16.1	19.4	11.5	**31.0**	12.5	**100.0**
그 단체는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주었다	(61)	8.3	27.6	**36.0**	26.3	20.3	4.9	**25.2**	12.5	**100.0**
그 단체에 나에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하였다	(61)	3.3	21.0	**24.3**	17.9	25.6	19.6	**45.2**	12.5	**100.0**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세제혜택 등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61)	5.0	16.0	**21.0**	24.5	27.6	14.4	**42.0**	12.5	**100.0**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61)	6.2	13.2	**19.3**	22.9	38.6	6.6	**45.2**	12.5	**100.0**
그 단체가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61)	3.7	8.3	**11.9**	26.9	32.2	16.5	**48.7**	12.5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61)	0.0	4.8	**4.8**	28.0	36.2	18.5	**54.7**	12.5	**100.0**

전 체

⊙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중단 기관과 변경 전 기관에 대해 물은 결과,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고,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50.4%)' ,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50.0%)' ,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47.6%)' 의 순으로 응답함.

• 중단 또는 변경 유경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중단 또는 변경 전 기관에 대해 '나의 기부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 '그 단체가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 지중단 또는 변경 기관한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는 답은 △남자(55.7%), △30-39세(67.9%), △사무/관리/전문직(59.1%), △중소도시 동부(58.0%), △종교 없음(57.1%), △행복한 편(51.8%), △진보(57.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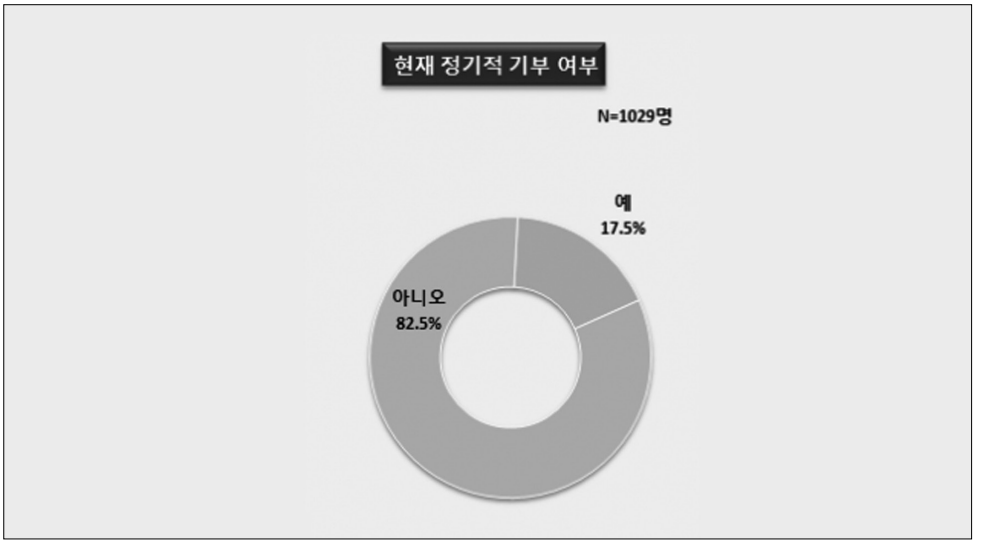
⊙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2.8%), △자영업(67.4%), △종교 있음(54.1%), △보수(5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56.1%), △고등학교 졸업(67.8%), △종교 있음(56.2%), △보수(5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현재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문] 귀하께서는 현재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27〉 현재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 2011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현재 시설/단체/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예' 라는 응답은 17.5%이며, '아니오' 라는 응답이 82.5%임.

• 일반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현재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시설/단체/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에 대해 '예'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25.1%), △사무/관리/전문직(27.3%), △기혼/이혼/사별(20.1%), △종교 있음(24.2%), △행복한 편(19.9%), △진보(2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아니오' 라는 응답은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90.9%), △학생(96.2%), △미혼(90.4%), △종교 없음(89.3%), △불행한 편(93.8%), △중도(85.3%) 및 보수(8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현재 정기적 기부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인식

문] 귀하께서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으신 시설/단체/기관에 대해 느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현재 정기적 기부 기관에 대한 인식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러한 편이다	①+②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180)	21.1	52.6	**73.7**	18.6	5.1	1.7	**6.7**	1.0	**100.0**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180)	24.1	45.5	**69.6**	23.1	6.8	0.0	**6.8**	0.6	**100.0**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180)	18.2	48.9	**67.1**	24.4	6.8	1.1	**7.9**	0.6	**100.0**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180)	18.0	47.3	**65.3**	24.0	8.4	1.7	**10.1**	0.6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180)	18.1	41.8	**59.9**	24.4	8.7	5.9	**14.6**	1.1	**100.0**
그 단체는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주었다	(180)	13.5	40.4	**53.8**	25.4	11.1	9.1	**20.2**	0.6	**100.0**
그 단체는 나의 문의나 의견에 대해 성의있게 응답해주었다	(180)	13.7	39.3	**53.0**	30.7	8.8	7.0	**15.8**	0.6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었다	(180)	12.9	37.3	**50.2**	25.9	11.9	11.5	**23.4**	0.6	**100.0**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세제혜택 등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180)	6.1	22.4	**28.5**	28.6	19.6	22.7	**42.3**	0.6	**100.0**
그 단체에 나에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하였다	(180)	3.8	17.7	**21.6**	22.1	24.8	30.4	**55.3**	1.1	**100.0**
그 단체는 나의 기부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180)	2.8	9.8	**12.6**	21.2	34.3	31.3	**65.6**	0.6	**100.0**
그 단체가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180)	1.2	9.9	**11.1**	19.7	45.7	22.9	**68.6**	0.6	**100.0**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180)	0.0	6.2	**6.2**	16.9	49.2	27.7	**76.9**	100.0	**100.0**

전 체

⊙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고,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69.6%)',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67.1%)',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65.3%)' 의 순으로 응답함.

• 현재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그 기관에 대해 기부금 사용 방식에 대한 신뢰성, 기부하는 동안의 행복감, 단체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방식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시설/단체/기관이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만 하였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주거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6.7%), △50-59세(83.7%), △주부(89.4%),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85.2%), △진보(78.0%) 및 중도(7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72.6%), △중소도시 읍면부(79.6%), △종교 있음(73.2%), △중도(7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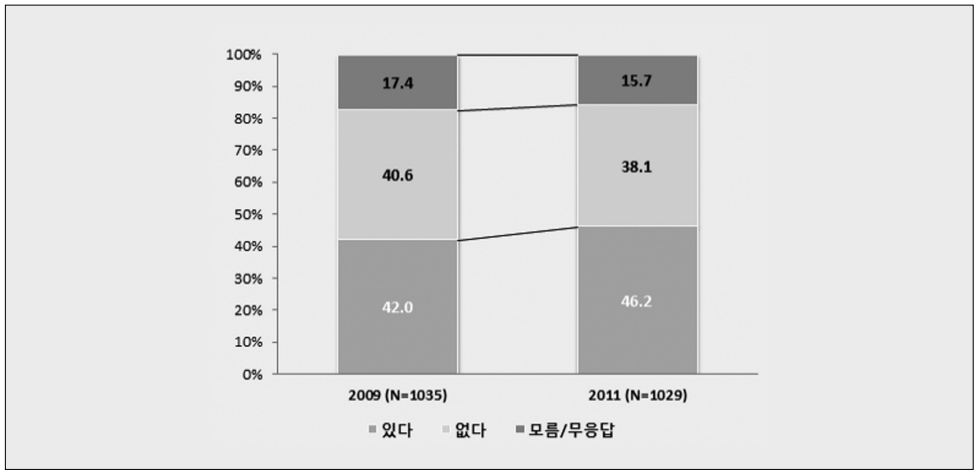
⊙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에 대해 ' 그렇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남자(69.5%), △50-59세(71.6%), △사무/관리/전문직(72.0%) 및 주부(7.9%), △중소도시 동부(72.5%), △기혼/이혼/사별(69.1%), △종교 있음(69.0%), △행복한 편(69.1%), △중도(7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Ⅳ. 기부 의향 및 계획

1.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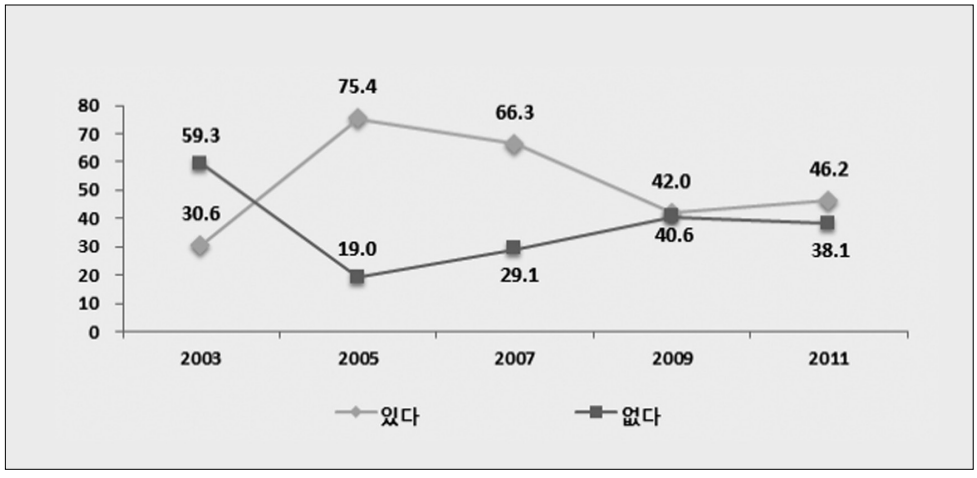
문]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28〉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단위 : %)



〈그림29〉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변화 추이

전 체

⊙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6.2%, '없다'는 응답이 38.1%로,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있다'는 응답은 4.2%P 증가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2.5%P 감소하여, 향후 기부 의향에 대한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

⊙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8.1%), △40-49세(53.1%), △사무/관리/전문직(56.0%),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62.0%), △중소도시 읍면부(55.6%), △기혼/이혼/사별(47.2%), △종교 있음(53.0%), △행복한 편(50.5%), △진보(5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50.6%), △무직/퇴직/기타(57.5%), △종교 없음(41.1%), △불행한 편(53.6%), △보수(42.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단위 : %)

〈그림30〉 기부 결정 시 고려 사항

전 체

⊙ 기부 결정 시 '기관의 신뢰성' 에 대해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고, '기부 대상(84.1%)', '사회 개선효과(67.3%)', '기관 사회적 명성(62.0%)' 의 순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일반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기부 결정 시 기관의 신뢰성과 기부 대상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기관에 신뢰성' 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5.7%P, '사회 개선 효과' 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2.8%P, '기관의 사회적 명성' 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9.5%P 증가함. 반면, '기부 대상' 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5%P 감소하여 기부 대상보다는 기관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뢰성, 사회적 개선 효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 향후 기부 시 '기관 신뢰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90.3%),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89.8%), △행복한 편(85.2%), △진보(87.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 시 '기부 대상'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88.5%), △판매/영업/서비스(91.1%), △중소도시 동부(86.7%), △행복한 편(84.9%), △진보(9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사회 개선효과' 를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69.9%), △40-49세(71.2%), △전문대재 이상(70.0%), △대도시(68.9%) 및 중소도시 동부(68.1%), △진보(7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 시 '기관의 사회적 명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68.0%), △사무/관리/전문직(66.0%), △대구/경북(68.8%), △진보(6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단위 : %)

〈그림31〉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전 체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활동내역 투명성' 을 '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84.9%로 가장 높고, '기부액 선택 가능성(83.2%)' , '기관 전문성(76.7%)' , '방법의 용이성(71.6%)' , '혜택 및 예우(47.5%)' 의 순으로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10명 중 8명 정도는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기부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9년과 2011년 모두 '활동내역 투명성' 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으며, 2011년 조사 결과는 2009년 응답 비율과 유사함. 2009년에 비해 '혜택 및 예우' 라는 응답이 7.0%P 증가하였으며, '기관 전문성' 6.1%P, '기부의 선택 가능성' 2.5%P 증가함. 반면, '방법의 용이성' 이라는 응답은 7.6%P 감소하여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혜택 및 예우, 기관 전문성, 기부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방법의 용이성은 하락하여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 '활동 내역의 투명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광주/전라(93.4%), △종교 있음(87.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액수 선택 가능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학생(88.6%), △가구소득 400-499만원(88.0%), △중소도시 동부(90.1%), △인천/경기(92.6%), △기혼/이혼/사별(84.6%), △진보(8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단체/시설/기관의 전문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하결이 높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학생(86.2%), △가구소득 400-499만원(81.5%), △중소도시 동부(79.3%), △진보(78.3%) 및 중도(7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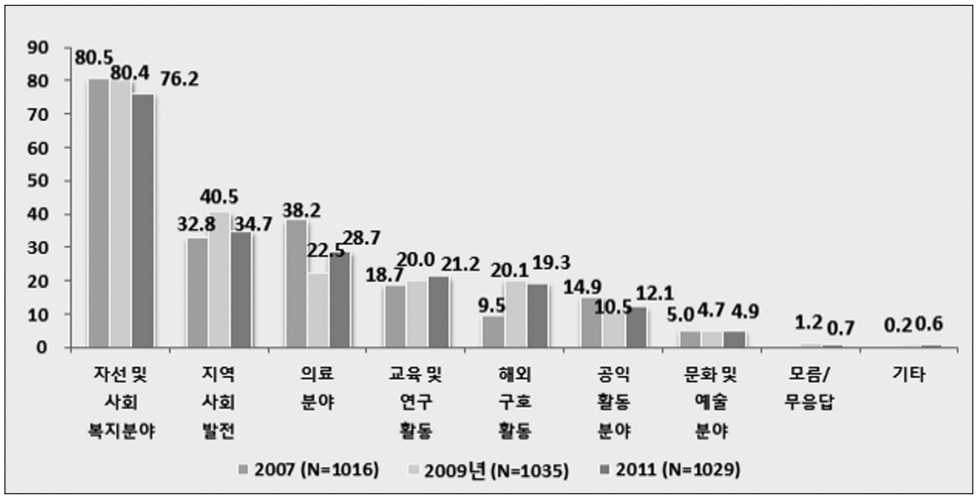
⊙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기부방법의 간편성 및 용이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73.3%), △사무/관리/전문직(77.6%), △서울(79.3%), △기혼/이혼/사별(73.1%), △종교 있음(73.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를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49.1%),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52.1%), △대도시(51.2%), △진보(48.9%) 및 보수(4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기부 금품 사용 분야, 대상, 단위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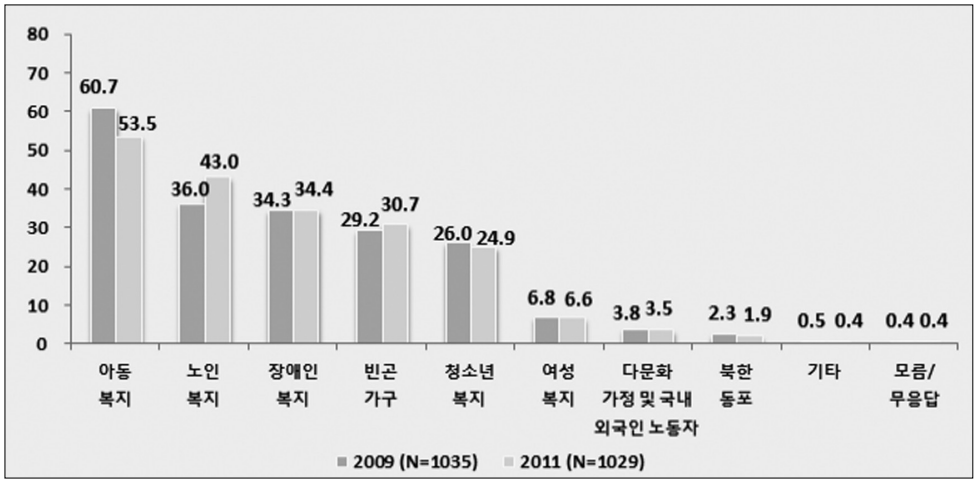
(단위 : %)



〈그림32〉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중복응답)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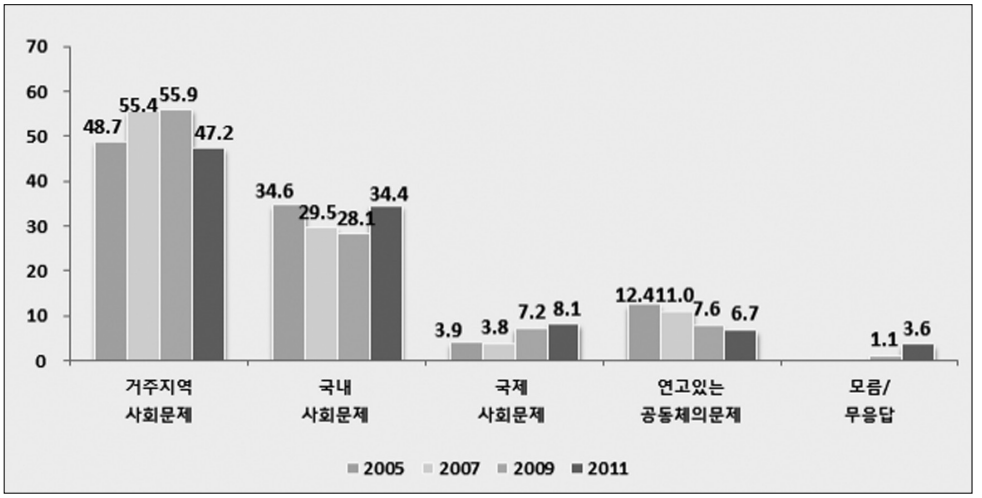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32〉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중복응답)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 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



〈그림34〉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전 체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발전 (34.7%)', '의료분야(28.7%)', '교육 및 연구활동(21.2%)', '해외구호활동(19.3%)', '공익활동분야(12.1%)', '문화 및 예술 분야(4.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금에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고, '노인복지(43.0%)', '장애인복지(34.4%)', '빈곤가구(30.7%)', '청소년복지(24.9%)', '여성복지(6.6%)',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3.5%)', '북한동포(1.9%)', '기타(0.4%)' 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의 단위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음. 그 외 '국내의 사회문제(34.4%)', '국제 사회의 문제(8.1%)',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6.7%)' 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을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11년도 조사에서도 '자선 및 사회 복지 분야' 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그러나 200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를 의망한다는 응답은 4.2%P,

'지역사회 발전' 이라는 응답이 5.8%P 감소한 반면, 의료분야라는 응답은 6.2%P 증가하여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은 2009년 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나, '아동복지' 라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7.2%P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 라는 응답은 7.0%P 증가함.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거주지역의 사회문제에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한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증가하다 2011년에 8.7%P 감소함. 반면 '국내 사회문제' 라는 응답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 6.3%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1)

⊙ 활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80.1.%), △60세 이상(84.1%), △주부(82.0%) 및 무직/퇴직/기타(81.3%), △대도시(78.6%), △기혼/이혼/사별(77.0%), △종교 있음(79.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사회발전 지원'이라는 응답은 △50-59세(39.4%),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40.8%), △대도시(35.6%) 및 중소도시 동부(35.6%), △광주/전라(40.1%) 및 대전/충청(40.0%), △종교 없음(3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 특성별 (2)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아동복지 지원'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5.5%), △30-39세(62.2%),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67.9%), △인천/경기(64.7%), △기혼/이혼/사별(54.1%), △행복한 편(54.1%), △진보(5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노인복지 지원'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62.2%), △무직/퇴직/기타(55.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63.0%), △기혼/이혼/사별(44.3%), △종교 있음(44.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3)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 단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

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1.6%), △농/임/어업(74.2%), △가구소득 100-199만원(57.1%), △강원/제주(69.0%), △기혼/이혼/사별(51.2%), △행복한 편(4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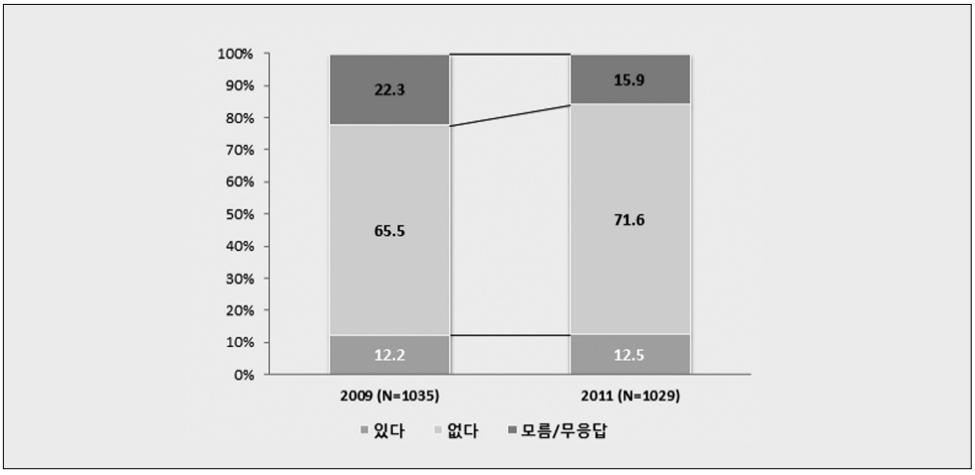
⊙반면,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8.1%), △학생(40.3%),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40.6%), △대도시(36.2%), △미혼(37.6%), △진보(3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V.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1. 유산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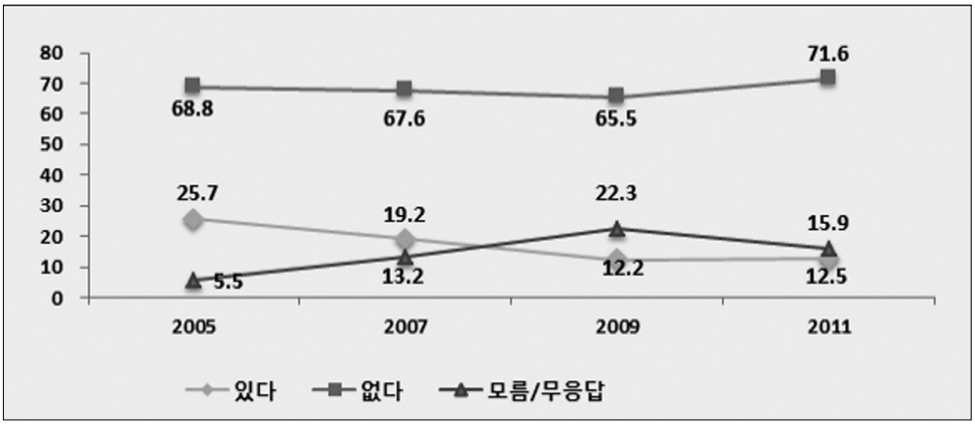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개인/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단위 : %)



〈그림35〉 유산 기부 의향

(단위 : %)



〈그림36〉 유산 기부 의향 변화 추이

전 체

⊙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71.6%로 높은 반면, '있다' 는 응답은 12.5%에 불과함.

• 2009년에 비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6.1%P 증가하였으며, '있다' 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유사한 수준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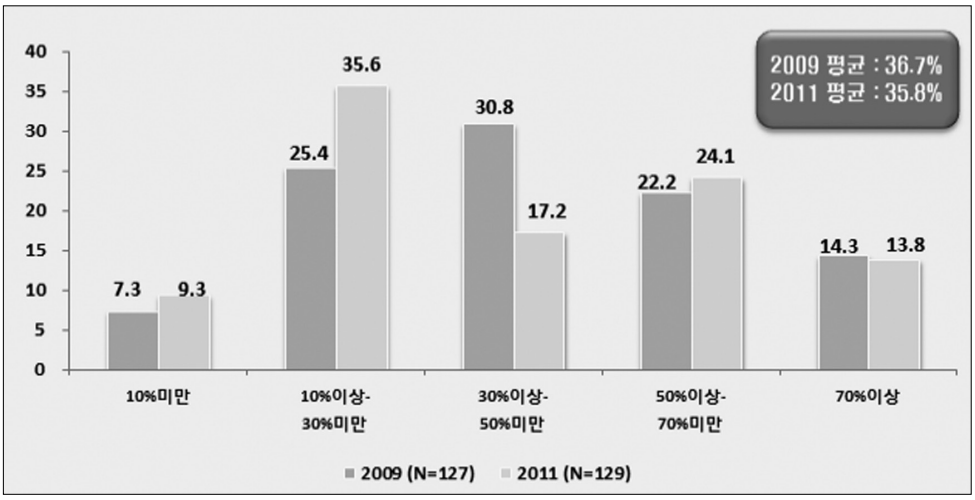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18.3%), △판매/영업/서비스(19.9%), △중소도시 동부(14.7%) 및 중소도시 읍면부(14.0%), △종교 있음(15.3%), △진보(1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84.3%), △농/임/어업(90.2%), △대도시(76.1%), △대구/경북(91.7%), △기혼/이혼/사별(74.6%), △보수(7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유산 기부 희망 비율 및 형태

문] 유산을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체 유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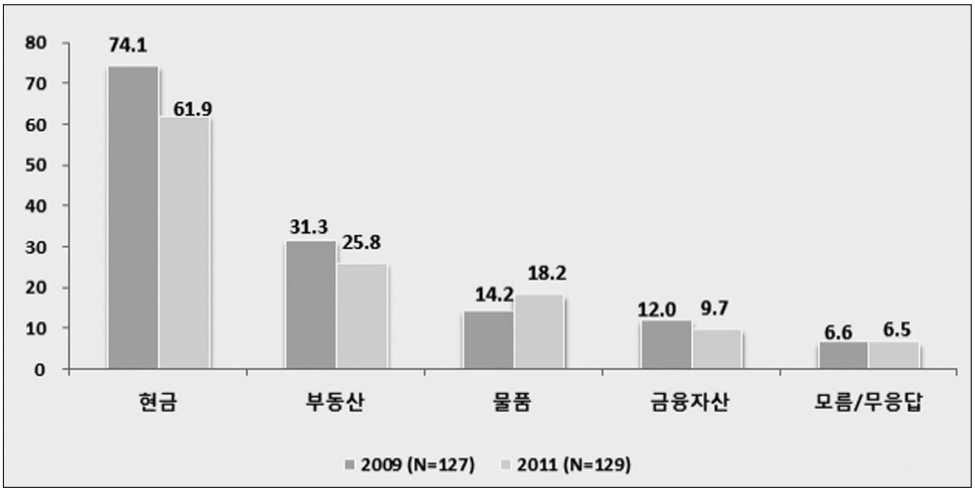
(단위 : %)



〈그림37〉 유산 기부 희망 비율

문] 유산을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기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형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38〉 유산 기부 희망 형태 (중복응답)

전 체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유산 기부 희망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 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고, '50%이상-70%미만(24.1%)' , '30%이상-50%미만(17.2%)', '70%이상(13.8%)', '10%미만(9.3%)' 의 순으로 응답함.

⊙ 기부할 의향이 있는 유산의 희망 비율의 평균은 35.8%임.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유산 기부 희망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금' 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부동산(25.8%)' , '물품(18.2%)' , '금융자산(9.7%)'의 순으로 응답함.

⊙ 유산 기부 의향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현금 형태의 유산 기부를 희망하고 있음.

• 유산 기부 희망 비율 평균을 지난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2009년 36.7%, 20011년 35.8%로 유산 희망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음.

• 유산 기부 희망 형태의 경우, 2009년에 비해 '현금' 은 12.1%P, '부동산'은 5.5%P 감소한 반면, ' 물품'은 4.0%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1)

⊙ 유산 기부 희망 비율에 대해 '10%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58.0%), △학생(48.5%), △응답자 소득 100-199만원(54.4%), △중소도시 읍면부(47.7%), △미혼(49.4%), △종교 없음(44.8%), △행복한 편(37.0%), △보수(4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50%이상-70%미만'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30.0%),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3.5%), △중소도시 동부(28.5%), △미혼(33.3%), △종교 있음(28.9%), △불행한 편(42.0%), △진보(33.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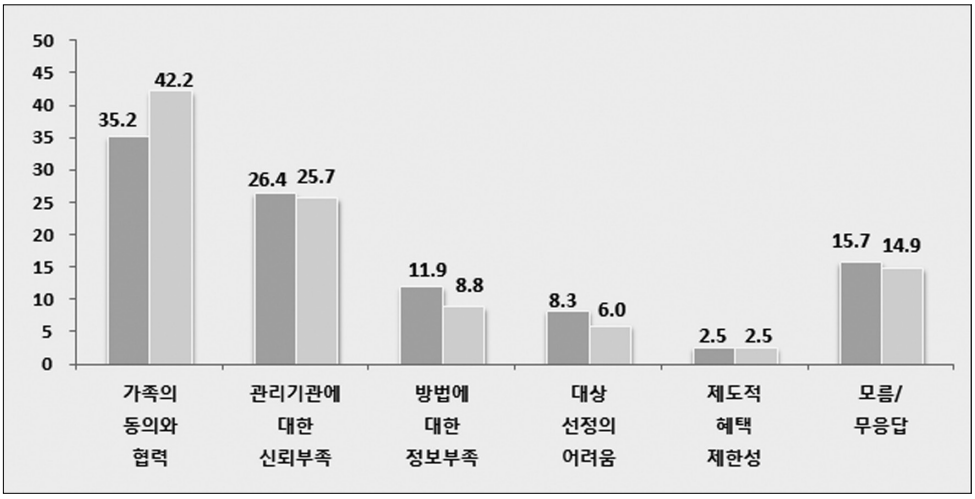
⊙ 유산 기부 희망 형태에 대해 '현금'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68.0%), △60세 이상(72.6%), △중소도시 동부(63.7%), △미혼(73.2%), △종교 없음(64.0%), △불행한 편(64.1%), △중도(6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부동산'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9.5%), △60세 이상(54.8%), △대도시(29.9%) 및 중소도시 읍면부(28.7%), △기혼/이혼/사별(31.2%), △행복한 편(26.8%), △보수(3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유산 기부 장애 요인

문] 귀하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산을 기부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그림39〉 유산 기부 장애 요인

전 체

⊙유산 기부의 장애요인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산 기부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25.7%)', '유산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8.8%)', '유산 기부 대상 선정에서의 어려움(6.0%)', '정부의 제도적 혜택에 있어서 제한성(2.5%)' 의 순으로 응답함.

- 유산 기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과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음.
- 2009년 조사 결과 대비, '가족으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이라는 응답은 7.0%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유산 기부 장애 요인이 '가족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3.6%), △60세 이상(5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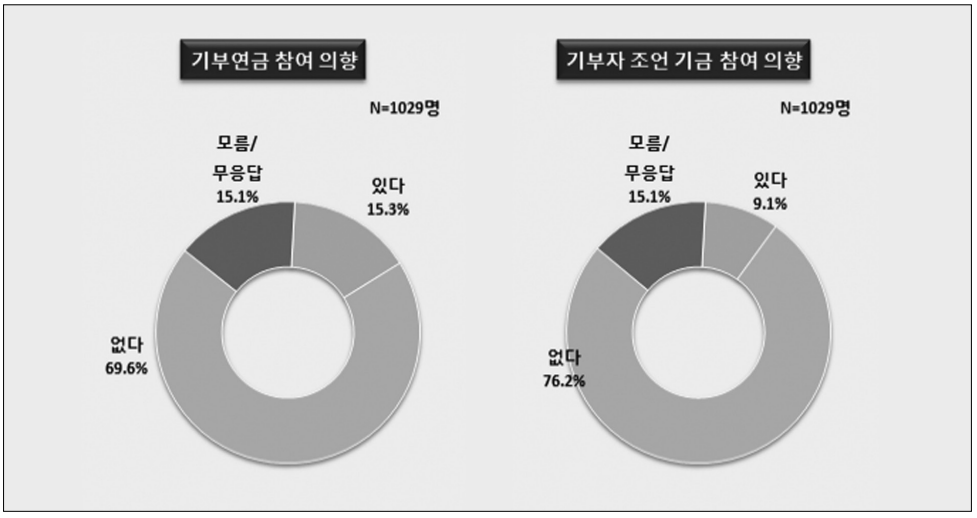
가구소득 100-199만원(53.5%), △대도시(44.3%), △기혼/이혼/사별(45.6%), △종교 없음(43.3%), △보수(43.6%) 및 중도(4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유산을 기부 시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7.1%), △가구소득 200-299만원(32.5%), △미혼(29.8%), △행복한 편(26.5%), △보수(2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기부 연금 및 기부자 조언 기금 참여 의향

문] 귀하께서는 '기부연금' 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 귀하께서는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s)' 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40〉 기부 연금 및 기부자 조언 기금 참여 의향

* 2011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기부 연금 참여 의향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15.3%이며, '없다' 는 응답은 69.6%, '모름/무응답' 은 15.1%임.

⊙ 기부자 조언 기금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9.1%이며, '없다' 는 응답은 76.2%, ' 모름/무응답 ' 은 15.1%임.

• 기부 연금과 기부자 조언 기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일반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은 기부연금 및 기부자 조언 기금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1)

⊙ 기부 연금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22.7%), △학생(24.0%),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20.9%), △광주/전라(21.9%), △미혼(19.5%), △종교 있음(17.7%), △행복한 편(16.0%), △진보(1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78.2%), △무직/퇴직/기타(76.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85.6%), △중소도시 읍면부(75.2%), △부산/울산/경남(82.2%), △기혼/이혼/사별(72.6%), △종교 없음(72.8%), △보수(7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 기부자 조언 기금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학생(16.2%),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12.1%), △광주/전라(15.1%), △미혼(13.1%), △진보(1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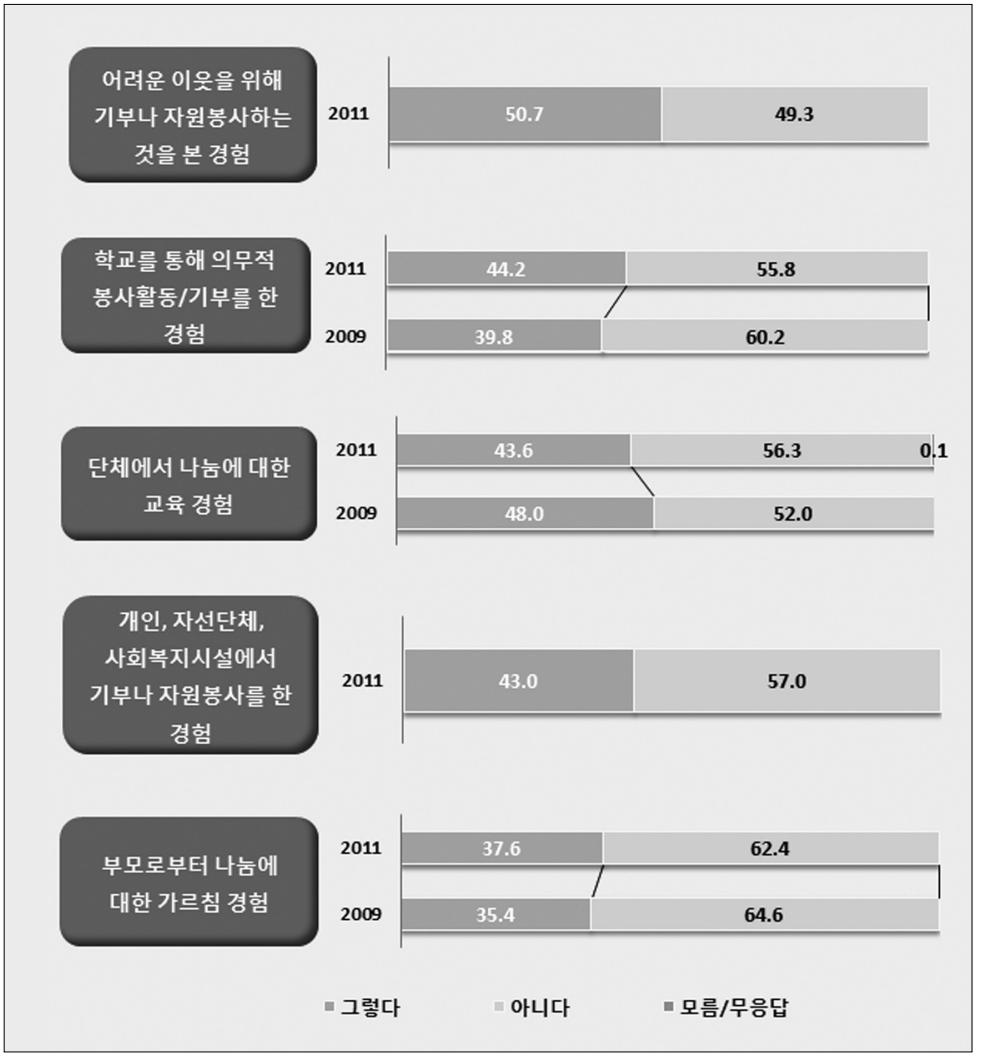
⊙ 반면,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응답자 소득 99만원 이하(78.4%) 및 100-199만원(78.2%), △중소도시 읍면부(79.9%) 및 대도시(79.2%), △기혼/이혼/사별(78.8%), △종교 없음(78.6%), △보수(8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Ⅵ.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1. 나눔 교육 경험

문]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단위 : %)



〈그림41〉 나눔 교육 경험

전 체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에 대해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음. 그 외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44.2%)' ,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43.6%)' ,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43.0%)' ,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37.6%)' , 등의 순으로 ' 그렇다 '는 응답이 높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한 경험이 있다' 4.4%P,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2.2%P 증가한 반면,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 그렇다는 응답은 4.4%P 감소함.

•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와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는 항목은 2011년에 변경되어 2009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 친천,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3,8%), △학생(69.8%), △중소도시 동부(59.9%), △대구/경북(58.1%), △종교 있음(52.6%), △행복한 편(52.5%), △진보(5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57.0%), △농/임/어업(77.0%), △부산/울산/경남(64.7%), △미혼(73.3%), △종교 없음(47.8%), △행복한 편(46.3%), △진보(5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에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학생(73.5%), △대구/경북(57.5)%, △미혼(62.1%), △행복한 편(45.4%), △진보(5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5.9%), △학생(63.5%), △응답자 소득 400만원 이상(53.8%), △중소도시 동부(46.5%), △대전/충청(51.9%), △가구원수 5명 이상(51.4%), △미혼(46.0%), △종교 있음(48.0%), △행복한 편(44.4%), △진보(4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을 경향을 보이며, △40-49세(46.3%), △사무/관리/전문직(45.0%), △서울(51.0%), △종교 있음(41.6%), △행복한 편(3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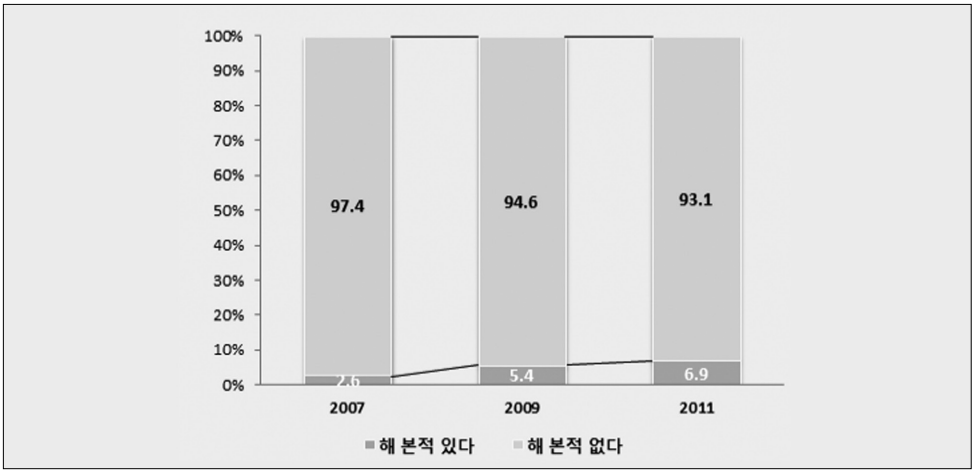
⊙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9.2%), △학생(50.5%), △중소도시 동부(40.8%), △대구/경북(52.8%), △미혼(47.3%), △진보(41.9%) 및 중도(4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Ⅷ. 기부와 인터넷 활용

1.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문]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2011년 1월~12월) 기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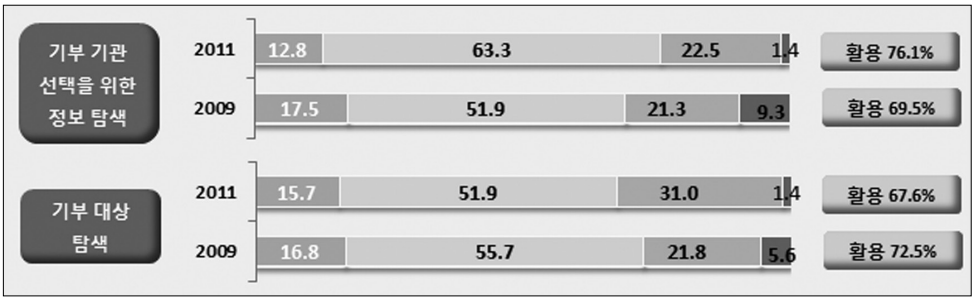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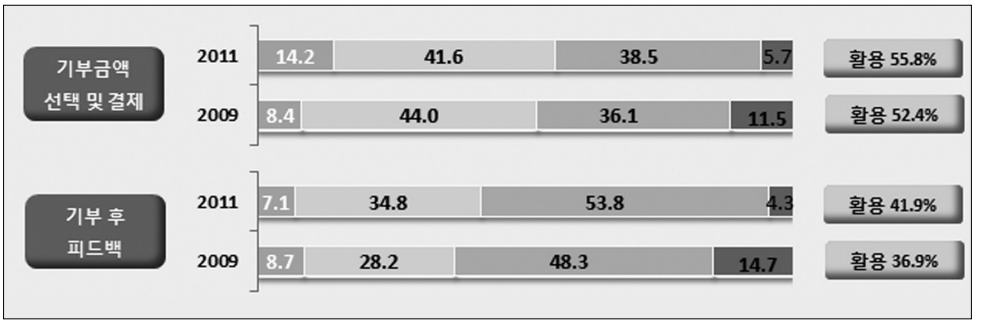
〈그림42〉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문] 귀하의 기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해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단위 : %)



(단위 : %)



〈그림43〉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전 체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본 경험에 대해 '해 본 적 없다' 는 응답은 93.1%로 높은 반면, '해 본 적 있다' 는 응답은 6.9%에 불과함.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인터넷 활용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이라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음. 그 외 기부 대상에 대한 탐색(67.6%)' ,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55.8%)' , '기부 후 피드백(41.9%)' 의 순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음.

•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결과를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 시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9년 대비 2011년에는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1.5%P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

•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이라는 응답은 6.6%P,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3.4%P, '기부 후 피드백 5.0%P 증가한 반면, ' 기부 대상 탐색 '이라는 응답은 4.9%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1)

⊙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본 경험이 대해 '해 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14.2%), △사무/관리/전문직(11.2%), △가구소득 (12.0%), △서울(10.0%), △미혼(10.5%), △행복한 편(7.8%), △진보(8.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해 본 적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무직/퇴직/기타(98.2%), △가구원수 1명(97.6%), △기혼/이혼/사별(94.3%), △불행한 편

(97.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2)

⊙'기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에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기혼/이혼/사별(80.0%), △종교 있음(83.0%), △진보(87.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기부 대상 탐색'에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79.3%), △전문대재 이상(72.4%), △기혼/이혼/사별(69.5%), △종교 없음(70.5%), △진보(7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에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전문대재 이상(63.9%), △대도시(62.6%), △기혼/이혼/사별(66.5%), △종교 있음(62.9%), △진보(7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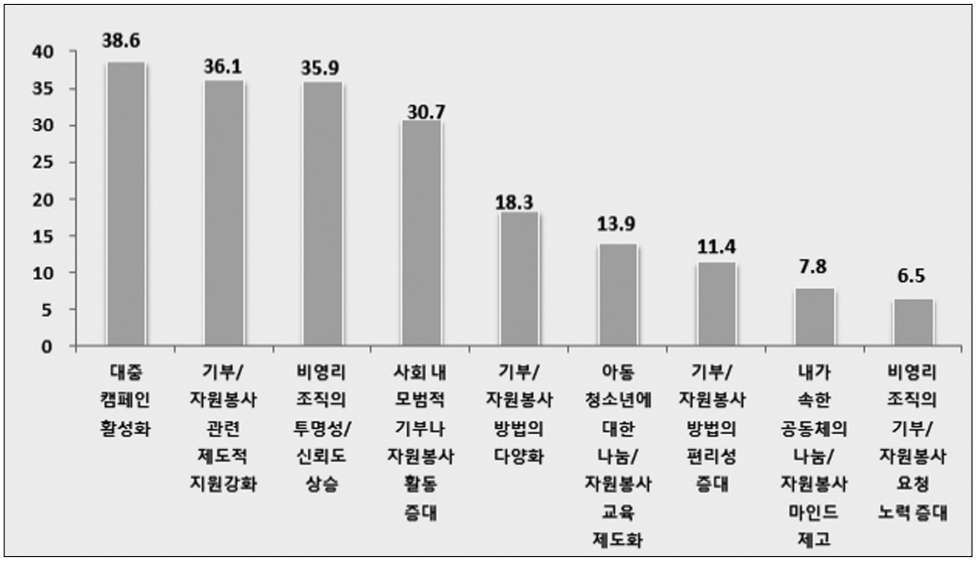
⊙'기부 후 피드백'에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남자(51.0%), △전문대재 이상(46.3%), △중소도시 동부(48.0%), △종교 없음(46.1%), △불행한 편(50.0%), △진보(6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Ⅷ.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인식

1.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문]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기부 및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단위 : %)



〈그림44〉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 2011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기부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중 캠페인 활성화' 라는 응답은 38.6%로 가장 높고,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36.1%)',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상승(35.9%)', '사회 내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30.7%)',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다양화(18.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본 조사의 설문은 2009년 설문의 보기와 내용이 달라져 직접 비교가 어려움.

응답자 특성별

⊙ 기부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 대중캠페인의 활성화 '라는 응답은 △여자(40.4%), △농/임/어업(48.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5.7%), △대도시(40.3%), △가구원수 1명(47.6%), △미혼(42.3%), △종교 없음(42.1%), △불행한 편(45.1%), △진보(4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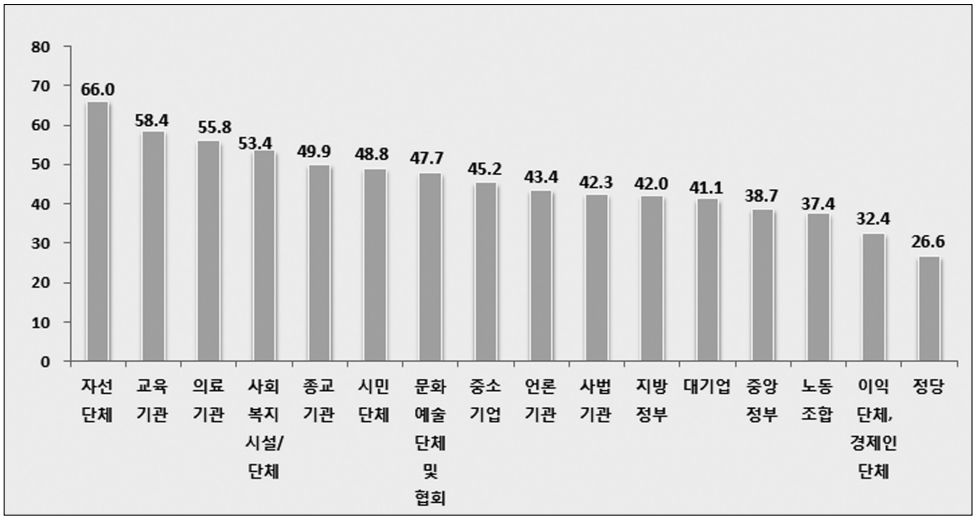
⊙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 강화'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8.4%), △30-39세(40.2%), △응답자 소득 300-399만원(47.4%), △대도시(39.1%), △가구원수 2명(40.1%), △미혼(39.0%), △종교 없음(3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Ⅸ.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1.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45〉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전 체

⊙ 국민들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정도를 100점 환산 점수로 환산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66.0점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교육기관 58.4점, 의료기관 55.8점, 사회복지시설/단체 53.4점, 종교기관 49.9점, 시민단체 48.8점,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47.7점, 중소기업 45.2점, 언론기관 43.4점의 순임.

⊙ 2009년 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임.

부 록2

2011 Giving Index of Korea 설문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ooo입니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문 의 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이영주 간사 (02) 6930-4577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성현정 과장 (02) 3014-0168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거주지 규모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동부)　③ 중소도시(읍면부)		
직업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⑨ 모름/무응답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_____ 분 동안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A. 자원봉사 실태

※ A1~A2번은 다음 [응답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A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자원봉사'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봉사, 공부방 활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모금 캠페인이나 국제 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사회단체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종교단체를 통한 여타 사회단체(아동시설, 양로원 등)의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만, 종교단체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년 동안 한 자원봉사 시간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처	A1. 자원봉사여부	A2. 자원봉사시간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자원봉사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2)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단체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3)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 자원봉사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5)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6)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7)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등)를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8)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1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1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12) 기타 ( )	① 있다 ② 없다	_____ 시간

☞A1에서 모두 '②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A6으로 가십시오

A3.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 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활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있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곳이 있다) ☞A3-1로 가십시오
② 없다 (모든 자원봉사를 기회가 닿는 때 일회적으로 하곤 한다) ☞A4로 가십시오
⑨ 모름/무응답 ☞A4로 가십시오

A3-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① 매 주 ② 매 달 ③ 매 분기 ⑨ 모름/무응답

A4.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 친척, 친구, 선배 등이 자원봉사 시설/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인터넷을 통해
③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방문, 우편, 전화등)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⑥ 종교단체를 통해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동호회 등)
⑨ 모름/무응답

A5.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셨습니까?

①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단순노력봉사 (예: 설거지, 목욕봉사, 서류정리, 태안환경봉사 등)
②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전문노력봉사 (예: 번역봉사, 법률서비스 제공, 자문위원회 활동 등)
③ 두 방법 모두
⑨ 모름/무응답
☞A7로 가십시오

A6. (A1에서 모두 ②인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②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③ 자원봉사 대상자나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④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⑤ 어디에,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⑥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⑦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A7. 귀하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2011년 1월~12월)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몇 시간을 하셨나요?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A7-1. 경험여부	A7-2. 봉사시간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교사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	① 있다 ② 없다	_____시간

B. 기부 실태

※ B1~B2번은 다음 [응답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 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B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부' 한 곳	B1. 기부여부	B2. 기부금액	
		B2-1. 현금	B2-2. 물품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에 대한 특별 헌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자선단체(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단체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5)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6)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7)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8)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2) 기타 ( )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B3. 기존의 기부액을 올해 혹은 내년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4. 현재 기부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기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5.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있다) ☞B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모든 기부를 기회가 닿는 때 일회적으로 하곤 한다) ☞B6으로 가십시오
⑨ 모름/무응답 ☞B6으로 가십시오

B5-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기부하십니까?

① 매 주 ② 매 달 ③ 매 분기 ⑨ 모름/무응답

B6.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 친척, 친구, 선배 등이 기부 시설/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기부를 했을 경우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인터넷을 통해
③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방문, 우편, 전화등)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⑥ 종교단체를 통해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동호회 등)
⑨ 모름/무응답

B7.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셨습니까?

①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② ARS 전화
③ 온라인(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④ 지로납부
⑤ CMS 자동이체
⑥ 급여공제
⑦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B8.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적동기)

내용	매우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①	②	③	④
(2) 종교적 신념	①	②	③	④
(3) 동정심	①	②	③	④
(4) 개인적인 행복감	①	②	③	④

B9.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외적요인)

내용	매우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경제적 여유	①	②	③	④
(2)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①	②	③	④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 요청	①	②	③	④
(4)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 요청	①	②	③	④
(5)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①	②	③	④
(6)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①	②	③	④

☞B11로 가십시오

B10. (B1에서 모두 ②인 응답자만)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②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③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④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⑥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⑦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B11. 귀하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2011년 1월~12월) 경조사비를 내거나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경우 작년 한 해 지출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B11-1. 기부여부	B11-2. 기부금액	
		현금	물품
(1)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① 있다 ② 없다	___만___천원	___만___천원
(2)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에 헌금 및 보시	① 있다 ② 없다	___만___천원	___만___천원

C. 기부 관련 경험

C1.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10년 1월 ~ 2011년 12월) 기부를 중단 또는 변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지난 2년간 기부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를 하다가 기부를 중단하였거나, 기부 시설/단체/기관을 변경하신 경험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다가 그만 두었으나 새로운 시설/단체/기관에 기부하지 않은 경우 중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시설/단체/기관으로 변경하여 기부한 경우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다가 한 개의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그만 둔 경우는 중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시설/단체/기관에 기부를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①	②
(2) 기부를 하던 시설/단체/기관을 변경한 적이 있다	①	②

☞C1에서 모두 '②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 C3으로 가십시오

C2. (C1에서 하나라도 ①인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10년 1월 ~ 2011년 12월)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시설/단체/기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중단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가장 마지막 중단한 시설/단체/기관을 기준으로, 변경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변경하시기 전의 시설/단체/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2년 간 기부를 중단했던 시설/단체/기관 또는 변경 전의 시설/단체/기관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러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단체는 나에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그 단체는 나의 문의나 의견에 대해 성의있게 응답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단체가 (정보제공 또는 기부요청 등을 위해)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그 단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단체는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단체는 나의 기부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 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세제혜택 등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께서는 현재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십니까?

-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 현재 시점으로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한 경우에 한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예 ☞C4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D1으로 가십시오

C4. 귀하께서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으신 시설/단체/기관에 대해 느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개 이상의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시설/단체/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시설/단체/기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러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단체는 나에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그 단체는 나의 기부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그 단체는 나의 문의나 의견에 대해 성의있게 응답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단체가 (정보제공 또는 기부요청 등을 위해)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그 단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단체는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단체는 나의 기부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그 단체에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 단체는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을 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세제혜택 등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 단체에 대한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D. 기부 의향 및 계획

D1.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⑨ 모름/무응답

D2.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내용	매우 고려한다	대체로 고려한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 누구에게 기부할 것인지(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①	②	③	④
(2) 기부할 시설/기관/단체/개인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	①	②	③	④
(3)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①	②	③	④
(4) 기부가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는지	①	②	③	④

D3.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내용	매우 고려한다	대체로 고려한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부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쉬운지	①	②	③	④
(2)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도록 기부액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①	②	③	④
(3) 기부의 대상이 되는 단체/시설/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①	②	③	④
(4) 기부금 사용 및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①	②	③	④
(5)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예우가 어떠한지	①	②	③	④

D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
②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학교 등)
③ 의료분야 지원
④ 문화 및 예술분야 지원
⑤ 공익활동분야 지원 (시민단체 등)
⑥ 해외구호활동 지원
⑦ 지역사회발전 지원 (지역도서관, 지역 청소년센터 등)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D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아동복지 지원 (일반 · 결식 ·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② 청소년복지 지원 (일반 · 빈곤 · 시설 청소년 등)
③ 장애인복지 지원 (일반 · 시설 · 빈곤 장애인 등)
④ 노인복지 지원 (일반 노인, 무의탁 노인, 시설 노인 등)
⑤ 여성복지 지원 (일반 여성, 직장 여성, 주부, 여성가구주 세대 등)
⑥ 빈곤가구 지원 (실직자와 근로빈곤층 등)
⑦ 북한동포 지원
⑧ 다문화 가정(결혼이주여성 등)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
⑨ 기타 ( )
⑨⑨ 모름/무응답

D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떠한 대상을 위해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② 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모교, 고향 등)를 위해서
③ 국내의 일반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④ 국제의 일반적 사회 문제(지진, 쓰나미, 제3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⑨ 모름/무응답

E.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E1.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개인/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유산기부'란 사전 유언을 통한 사후의 기증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소장품 등의 권리를 특정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E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E2로 가십시오
⑨ 모름/무응답 ☞E2로 가십시오

E1-1. 유산을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체 유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_____ %

E1-2. 유산을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기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형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현금
② 물품
③ 부동산
④ 금융자산(주식 및 보험)
⑨ 모름/무응답

E2. 귀하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산을 기부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의 어려움
②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유산을 기부하는 대상 선정에서의 어려움
④ 유산을 기부 시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⑤ 정부의 제도적 혜택에 있어서 제한성
⑨ 모름/무응답

E3. 귀하께서는 '기부연금'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부연금'이란 기부와 연금을 결합한 기부방식으로 일정 금액(약 1,0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50%까지를 연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러한 기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⑨ 모름/무응답

E3. 귀하께서는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s)'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s)'이란 개인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금형태로 상대적으로 고액(약 OOOOO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기부자 명의의 금융펀드에 기부하여 운용되도록 하고, 기부자가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원하는 곳에 배분하도록 하는 기부방식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⑨ 모름/무응답

F.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F1. 1.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은 (5)로 간주합니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4) 개인(친구나 이웃 등),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5)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학생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 교양과목 등)/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G. 기부와 인터넷 활용

G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2011년 1월~12월) 기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부를 하기 위한 대상 또는 기관의 정보 검색이나 기관 검색, 기부금 결재 등 기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해본 적 있다 ☞G2로 가십시오

② 해본 적 없다 ☞H1으로 가십시오

G2. 귀하의 기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해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내용	매우 많이 활용한다	어느정도 활용한다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1) 기부 대상(아동, 장애인, 빈곤층 등)에 대한 탐색	①	②	③	④
(2) 기부 단체/시설/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①	②	③	④
(3)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①	②	③	④
(4) 기부 후 피드백(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용확인, 기부내역확인 등)	①	②	③	④

H.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

H1.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기부 및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 (세금공제 혜택 확대 등)
② 대중캠페인의 활성화
③ 사회 내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 (부유층 또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
④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신뢰도 상승
⑤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다양화 (재능기부 등)
⑥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편리성 증대 (기부, 자원봉사의 기회 및 종류 다양화)
⑦ 비영리조직의 기부 및 자원봉사 요청 노력 증대
⑧ 내가 속한 공동체(직장, 종교단체, 모임 등)의 나눔 및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
⑨ 아동청소년에 대한 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제도화
⑨⑨ 모름/무응답

I.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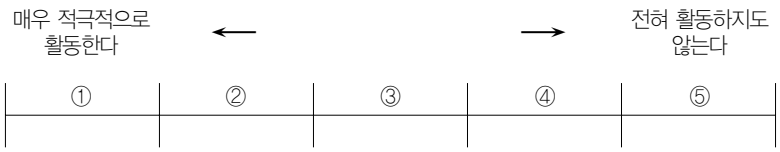
내용	매우 신뢰 한다	어느정도 신뢰하는 편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사회복지 시설/단체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 미인가 시설 포함)	①	②	③	④
(2)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 여성, 인권 단체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예술 단체(미술관, 박물관 등) 및 협회	①	②	③	④
(4) 자선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적십자, 이웃사랑회, 월드비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구세군자선냄비 등)	①	②	③	④
(5) 교육기관 (초, 중/고, 대학교)	①	②	③	④
(6) 의료기관 (병원 등)	①	②	③	④
(7) 종교기관 (교회, 성당, 절 등)	①	②	③	④
(8)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등)	①	②	③	④
(9) 정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①	②	③	④
(10) 이익단체, 경제인 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전경련, 경총 등)	①	②	③	④
(11) 대기업	①	②	③	④
(12)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13) 중앙 정부	①	②	③	④
(14) 지방 정부 (도, 시, 군, 구)	①	②	③	④
(15) 사법 기관 (법원 등)	①	②	③	④
(16) 언론기관 (방송사, 신문사 등)	①	②	③	④

J.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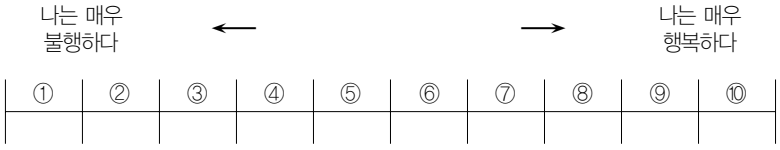
J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개신교) ☞J1-1로 가십시오
② 천주교(가톨릭) ☞J1-1로 가십시오
③ 불교 ☞J1-1로 가십시오
④ 기타 ( ) ☞J1-1로 가십시오
⑤ 믿는 종교가 없다 ☞J2로 가십시오
⑨ 모름/무응답 ☞J2로 가십시오

J1-1. 귀하는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J2.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의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J3. 평소 귀하는 '보수적' 인 입장과 '진보적' 인 입장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진보적인 것을 '1번', 가장 보수적인 것을 '10번' 이라고 하였을 때, 귀하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J4.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
⑨ 모름/무응답

J5.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전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_____ 만원

J7. 귀댁의 가구원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십니까?

_____ 만원

J8.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현재 배우자가 있다)
③ 이혼
④ 사별
⑨ 모름/무응답

J9. 귀하께서는 이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들어본 적이 있다
② 들어본 적이 없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 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기부문화 연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Giving Index'는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매년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기부 동향 및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모색,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빙코리아 연구자료는 영어로도 번역 출판되어 해외에도 소개되고있습니다.

■ 기부관련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기부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부문화 연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자료는 기빙코리아 홈페이지(www.givingkorea.org)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이끌어주시는 분들

운영이사장	운영이사장 김영진 ㈜ 한독약품 회장	
운영이사회	운영이사 김기수 ㈜ 모헨즈 회장	운영이사 김 량 ㈜ 삼양제넥스 사장
	운영이사 김일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운영이사 김정완 ㈜ 매일유업 회장
	운영이사 김중민 ㈜ 스탭뱅크 회장	운영이사 남승우 ㈜ 풀무원 사장
	운영이사 박용만 ㈜ 두산 회장	운영이사 윤재승 ㈜ 대웅 부회장
	운영이사 이강호 ㈜ 한국그린포스퓸프 사장	운영이사 정몽윤 ㈜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기부문화연구소장	소 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기부문화분과	연구위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김운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위원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위원 박 철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박태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구위원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이민영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위원 이형진 도서출판 아르케 대표	연구위원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사회공헌분과	부 소 장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소장	
	연구위원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상민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위원 전상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제도법제분과	부 소 장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구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윤태화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Tel 02-766-1004 / **E-mail** research@beautifulfund.org
(110-0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

나눔문화1%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 Giving Korea 2012는 나눔문화1% 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ㄱ 강나연 강미영 강병규 강성훈 강정선 강정은 고지희 고화숙 곽도경 곽성윤 곽철 권재민
권홍주 김가현 김경남 김경민 김경민 김경아 김경호 김경화 김나연 김남희 김대군 김만중
김명곤 김명현 김명희 김미란 김민규 김민성 김민수 김민수 김병광 김병성 김분옥 김상률
김상미 김상아 김상연 김상인 김생수 김선규 김선미 김선영 김설희 김성태 김성호 김세아
김세웅 김세현 김소은 김솔 김송현 김수민 김수완 김수정 김수철 김수형 김숙희 김순영
김승숙 김연재 김영각 김영선 김영준 김예진 김용건 김용길 김원태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은오 김의원 김이순 김인환 김일영 김장길 김장호 김재숙 김재종 김정길 김정은 김정철
김정현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정휴 김종균 김종애 김종용 김종원 김종진 김주선 김주연
김주표 김주현 김지나 김지은 김지하 김진아 김진우 김진희 김창은 김한결 김현승 김현정
김형주 김형준 김형중 김혜리 김혜진 김혜현 김효빈 김훈찬 김홍덕 김희경 김희택 ㄴ 남궁원
노정연 노효선 ㄹ 라은경 류기현 류삼준 류선영 류선호 류성국 류은양 류종길 류종욱
ㅁ 마춘희 문상미 문은실 문현승 민기복 민만석 민승자 ㅂ 박경 박경완 박도혁 박명원 박명희
박미나 박미옥 박봉기 박상규 박서현 박선민 박성래 박성수 박성옥 박성진 박성환 박세용 박소라
박소영 박수연 박수현 박영미 박용환 박유숙 박은진 박재성 박재영 박재한 박정아 박제영
박종욱 박종은 박준오 박찬숙 박창욱 박태용 박한아 박형철 박혜윤 박혜준 박효진 박희숙
반삼희 배재문 배주용 배지호 백길화 백봉선 백송이 백승록 백승호 변종호 봉인주 ㅅ 사미자
서경원 서경임 서애숙 서한슬 서효진 선재갑 성연희 소정순 손무근 손성일 손은경 손지원
손형순 송광훈 송문환 송민재 송상진 송상훈 송석천 송은정 송하정 송호진 신명철 신미영
신병구 신서경 신수경 신승근 신여산 신영국 신용호 신유정 신윤호 신정은 신태중 신향철
심은희 심재면 ㅇ 안미경 안성식 안영호 안용학 안중산 안창규 양기영 양미라 양아림 양인숙
양혜리 양희선 연미성 염경혜 염정신 오근영 오미선 오승현 오은순 오준석 오진구 오현 위성윤
유동훈 유동훈 유승식 유인화 유정문 유창열 유현옥 유현주 윤가영 윤미현 윤여성 윤영선
윤유리 윤정숙 은형란 이강욱 이경희 이길선 이대호 이동익 이동진 이만규 이명석 이명준
이미경 이미영 이미옥 이미화 이범수 이선명 이선연 이선이 이선희 이성민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소희 이수옥 이수정 이수진 이수호 이승문 이승원 이승준 이시연 이연숙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옥선 이용규 이용주 이원보 이유성 이유주 이유진 이윤나 이윤선 이은주
이은하 이은혜 이재영 이지훈 이채혁 이태호 이태희 이하나 이헌영 이현경 이형구 이형실
이혜인 이혜주 이희옥 임경민 임기현 임미정 임서연 임수미 임윤선 임정기 임정옥 ㅈ 장민경
장선영 장수정 장수진 장윤식 장재민 장정현 장효점 전성실 전은주 전은지 전은희 전홍규
정관희 정상희 정선범 정선용 정성모 정성복 정세윤 정승택 정연화 정연힘 정영은 정윤환
정은경 정은영 정정용 정종인 정지영 정진숙 정한매 정현진 정홍미 정효은 조리라 조명옥
조민정 조부식 조숙자 조승민 조용복 조원민 조윤지 조정민 조정숙 조태운 조현지 조형근
주민철 지병주 지중철 진근탁 진오균 진은경 ㅊ 차은실 차홍조 차희찬 최나눔 최성은 최승민
최용민 최윤석 최은희 최재봉 최지선 최지은 최진섭 최현성 최화규 추병호 ㅌ 태보영
ㅍ 편이자 표현수 ㅎ 하인호 하지윤 하지훈 한갑석 한규일 한상헌 한선미 한신영 한정림
한정한 함영승 함창국 함현주 허선연 허은선 허은희 현성모 홍소연 홍예지 홍인성 홍인식
홍효순 황경언 황미라 황보승 황성현 황신애 황아현 황영순 황현석 황현조 황휘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

발행일 2012년 10월 17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예종석
등록일 2006년 10월 25일 제300-2006-150호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 및 편집 아름다운재단 교육홍보팀
주소 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화 02)766-1004
전송 02)6930-4598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해든D&P
인쇄 해든디앤피 02)2266-6372

ISBN : 978-89-93842-24-1

값 10,000원

Giving Korea 2012

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값 10,000원

9 788993 842241 94300

ISBN 978-89-93842-24-1
ISBN 978-89-958799-0-4 (세트)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